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어 ‘-고’의 보조사 결합형에
대한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송 남 남

한국어 ‘-고’의 보조사 결합형에 대한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송 남 남


인준서


송남남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0월

심사위원장 홍종선 

심사위원 강혜선 (인) 

심사위원 김선영 (인) 

심사위원 심희연 (인) 

심사위원 김종호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한국어는 고립어인 중국어와 달리 교착어로서 어미와 조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어미와 조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언어 습득 과정에서 어미나 조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지만, 중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어 학습자, 특히 이미 성인이 된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어미와 조사의 기능이나 통사적인 제약 등에 대해 오직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고 습득할 수가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어미 뒤에 다양한 보조사를 붙이기도 한다. 그 중에 ‘-고’와 조사의 결합형은 문법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 교사나 학습자 모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한국어 교재를 보면 의외로 ‘-고’와 조사의 결합형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부족하다. 게다가 ‘-고’와 조사의 결합형에 대하여 단순히 ‘-고’와 조사의 의미 결합이라고 피상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어, ‘-고’와 조사의 결합형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정확히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고’의 의미 검토를 토대로 하고 ‘-고’와 조사의 결합형의 의미를 규명하고 교재 기술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1장에서 본 연구의 연구 동기, 방법 그리고 대상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

정을 밝혔다. 3장에서 ‘-고x’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징에 대한 검토는 예문을 분석하면서 진행하였다. 예문이 이 부분의 기초 분석 자료인데 이 기초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 말뭉치의 예문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장에서 현재 중국 현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대상으로 삼고 교재를 분석한 다음에 ‘-고x’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정리하며 연구에 대한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 ‘-고’의 보조사 결합형, 어미화, 조사 결합형, 교재 개선 방안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3
3. 연구 대상	6
II. 기존 논의	9
1. ‘-고’에 대한 기존 논의	9
1) ‘-고’의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	9
2) ‘-고’의 통사적 특징에 관한 연구	20
3)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보는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22
2. 보조사에 대한 기존 논의	31
III. ‘-고 _X ’의 의미·통사적 특징	34
1. ‘-고 _X ’의 판별 기준과 결과	35
1) ‘-고 _X ’의 판별 기준	35
2) ‘-고 _X ’의 판별 결과	38
2. 어미화된 ‘-고 _X ’	39
1) 조건의 ‘-고 _X ’	39
① -고는/-곤	39
② -고야	43
③ -고라야	44
④ 조건의 ‘-고 _X ’의 통사적인 특징	45
⑤ 조건 연결어미의 차이	49
2) 양보의 ‘-고 _X ’	52
① -고도	52
② -고라도	64
③ 양보의 ‘-고 _X ’의 통사적인 특징	65
④ ‘-고도’와 ‘-어도’의 차이	67

3. 조사 결합형 ‘-고 _x ² ’	68
1) 계기의 ‘-고 _x ² ’	68
① -고는/-곤	68
② -고부터	69
③ -고야	70
④ -고만	71
⑤ -고나	72
⑥ -고들	73
⑦ 계기의 ‘-고 _x ² ’의 통사적인 특징	74
2) 방법이나 동시의 ‘-고 _x ² ’	77
① -고도	77
② -고라도	78
③ -고야	79
④ -고만	80
⑤ -고나	81
⑥ -고들	81
⑦ -고까지	82
⑧ 방법이나 동시의 ‘-고 _x ² ’의 통사적인 특징	83
3) 병렬의 ‘-고 _x ² ’	85
① 의미	85
② 통사적인 특징	93
4) 첨가의 ‘-고 _x ² ’	94
① 의미	95
② 통사적인 특징	95
5) 조건의 ‘-고 _x ² ’	96
① 의미	96
② 통사적인 특징	99
4. 소결	100
IV.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 _x ’의 교재 개선 방안	104
1. 기존 교재 검토	104
1) ‘-고 _x ’의 선택과 배열	107

① ‘-고x’의 필수 교수 항목이 교재에 들어갔는가?	107
② ‘-고x’의 제시 시기는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부합하는가?	117
2) ‘-고x’에 대한 설명	125
① -고는/-곤	127
② -고도	133
③ -고라도	137
④ -고야	139
⑤ -고만	142
⑥ -고나	145
⑦ -고들	146
⑧ -고까지	149
3) ‘-고x’에 대한 예시와 연습	150
① -고는/-곤	151
② -고도	159
③ -고라도	169
④ -고만	171
2. 교재 개선 방안	175
1) 개선 원칙	175
2) -고는/-곤	180
3) -고도	193
4) -고라도	201
5) -고부터	207
6) -고야	208
3. 소결	213
V. 결론	21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고’의 통사적 특징	30
<표 2> 조건 의미인 ‘-고 _x ¹ ’의 의미·통사적인 특징	49
<표 3> ‘-고는’과 ‘-면’의 차이	51
<표 4> 양보 의미인 ‘-고 _x ¹ ’의 의미·통사적인 특징	67
<표 5> 계기 의미인 ‘-고 _x ² ’의 의미	76
<표 6> 계기 의미인 ‘-고 _x ² ’의 통사적 특징	76
<표 7> 방법이나 동시 의미인 ‘-고 _x ² ’의 의미	84
<표 8> 방법이나 동시 의미인 ‘-고 _x ² ’의 통사적 특징	85
<표 9> 어미화 여부의 분류에 따른 ‘-고 _x ’의 의미적 특징	101
<표 10> 어미화 여부의 분류에 따른 ‘-고 _x ’의 통사적 특징	102
<표 11> 세종 말뭉치(현대문어)에 나타난 ‘-고 _x ’의 목록과 사용빈도	108
<표 12> ‘빈도 조사2’에 나타난 ‘-고 _x ’의 목록과 사용빈도	110
<표 13>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의 ‘-고 _x ’ 사용 빈도 비교	111
<표 14>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타난 ‘-고 _x ’의 개황	112
<표 15> 세 개의 자료 중에 각각의 ‘-고 _x ’가 나타난 회수	112
<표 16> 문법 항목으로 단독 제시된 ‘-고 _x ’의 목록 [한국어 교재]	113
<표 17> 조사 ‘x’에서 ‘-고 _x ’를 제시하는 교재	115
<표 18> 한국어 교재에 ‘-고 _x ’에 대한 학습 내용 포함 여부	116
<표 19> ‘-고 _x ’의 난이도 제시 [현지 교재]	121
<표 20> ‘-고 _x ’의 난이도 제시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	122
<표 21> 한국에서 도입된 중급 수준 교재 ‘-고 _x ’의 제시 현황	123
<표 22> 한국에서 도입된 고급 수준 교재 ‘-고 _x ’의 제시 현황	124
<표 23> ‘-고 _x ’의 의미적 특징	125
<표 24> ‘-고 _x ’의 통사적 특징	126
<표 25>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고는’에 대한 설명	128
<표 26>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곤’에 대한 설명	129
<표 27> 조사 ‘는’에서 ‘-고는’를 설명하는 교재	130
<표 28>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고도’에 대한 설명	134

<표 29>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고라도’에 대한 설명	137
<표 30>	조사 ‘라도’에서 ‘-고라도’에 대한 교재별 설명	138
<표 31>	조사 ‘야’에서 ‘-고야’에 대한 교재별 설명	139
<표 32>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고만’에 대한 설명	142
<표 33>	조사 ‘만’에서 ‘-고만’에 대한 교재별 설명	143
<표 34>	조사 ‘나’에서 ‘-고나’에 대한 교재별 설명	145
<표 35>	조사 ‘들’에서 ‘-고들’에 대한 교재별 설명	146
<표 36>	조사 ‘까지’에서 ‘-고까지’에 대한 교재별 설명	149
<표 37>	‘-고는/-곤’: 「요녕」 (제3권: 21~41)	151
<표 38>	‘-고는/-곤’: 「요녕」 (제5권: 1~19)	152
<표 39>	‘-고는/-곤’: 「표준」 (제4권: 45~62)	155
<표 40>	‘-고는/-곤’: 「연세」 (제3권: 117~142)	157
<표 41>	‘-고도’: 「민족」 (제3권: 149~160)	159
<표 42>	‘-고도’: 「요녕」 (제3권: 115~138)	161
<표 43>	‘-고도’: 「흑룡강」 (제2권: 141~156)	162
<표 44>	‘-고도’: 「연세」 (제3권: 219~245)	164
<표 45>	‘-고도’: 「연세」 (제5권: 223~250)	166
<표 46>	‘-고도’: 「가나다」 (제5권: 128~133)	168
<표 47>	‘-고라도’: 「민족」 (제3권: 110~137)	169
<표 48>	중급 수준과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고x’ 설명의 방식 차이	180
<표 49>	교재에서의 ‘-고는/-곤 ¹ ’에 대한 기술	182
<표 50>	교재에서의 ‘-고는/-곤 ² ’에 대한 설명과 예시	189
<표 51>	교재에서의 ‘-고도 ¹ ’에 대한 설명과 예시	195
<표 52>	교재에서의 ‘-고도 ² ’와 ‘-고도 ³ ’에 대한 설명과 예시	197
<표 53>	교재에서의 ‘-고도 ⁴ ’에 대한 설명과 예시	199
<표 54>	교재에서의 ‘-고라도 ¹ ’에 대한 설명과 예시	201
<표 55>	교재에서의 ‘-고라도 ² ’에 대한 설명과 예시	203
<표 56>	교재에서의 ‘-고라도 ³ ’에 대한 설명과 예시	204
<표 57>	교재에서의 ‘-고부터’에 대한 설명과 예시	207
<표 58>	교재에서의 ‘-고야 ¹ ’과 ‘-고야 ² ’에 대한 설명과 예시	209
<표 59>	교재에서의 ‘-고야 ³ ’에 대한 설명과 예시	210
<표 60>	교재에서의 ‘-고야 ⁴ ’에 대한 설명과 예시	211

<표 61> ‘-고’의 통사적 특징	217
<표 62> 어미화 여부의 분류에 따른 ‘-고 _x ’의 의미적 특징	218
<표 63> 어미화 여부의 분류에 따른 ‘-고 _x ’의 통사적 특징	219

그림 목 차

<그림 1> ‘-고’가 가지는 관계의미 범주 <출처: 박용한(2000: 39)>. ……………	13
<그림 2> 필수 조건 ……………	44
<그림 3> 기대치로 해석한 양보의 의미 ……………	63
<그림 4> ‘-고야’와 ‘-면야’의 관계 ……………	98
<그림 5> 세종 말뭉치에서 개별 ‘-고x’가 차지하는 비율 ……………	110
<그림 6>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타난 ‘-고x’의 급수 분포 ……………	118
<그림 7> ‘-고도’의 급수 분포 ……………	119
<그림 8> ‘-고는’의 급수 분포 ……………	120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어는 고립어인 중국어와 달리 교착어로서, 어미와 조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어미와 조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언어 습득 과정에서 어미나 조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지만, 중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어 학습자, 특히 이미 성인이 된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어미나 조사의 기능이나 통사적인 제약 등에 대해 오직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고 습득할 수가 있다.

- (1) 내가 **태어나고**부터 단 하루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날이 없다.
- (2) 잠시 **뉘고**만 갈게요.
- (3) 사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야?
- (4) 사내 자식이 드들겨 **맞고**나 다니고.
- (5) 회원이 **아니고**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 (6)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다.
- (7) 밥을 **먹고**도 배고프다.

(1~7)처럼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어미 뒤에 다양한 보조사를 붙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연결어미 ‘-고’ 뒤에 ‘부터’, ‘만’, ‘나’, ‘는’, ‘야’, ‘도’ 등 다양한 보조사를 붙일 수 있다. 하지만 (1~4)와 같이 ‘-고부터’, ‘-고만’, ‘-고나’ 등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의 결합형은 ‘-고’의 의미와 뜻이 비슷한 반면에 (5~7)과 같이 ‘-고는’, ‘-고야’, ‘-고도’는 이미 한 덩어리가 되고 ‘-고’와 보조사 ‘는’, ‘야’, ‘도’로 쪼갤 수 없다. 또한, (3, 4)와 같

이 ‘-고’ 자체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 조사와 결합한 후에 그 의미가 ‘-고’의 의미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 모든 의미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나 몇 가지의 의미와만 연관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고’와 조사의 결합형은 문법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 학습자나 교사 모두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국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학습자나 교사 모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고’와 조사의 결합형을 한국어를 교육하는 중국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현재 중국 현지에서 활용되는 교재를 보면 의외로 ‘-고’와 조사의 결합형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적다. ‘-고도’의 경우 일상 언어 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한국어 능력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기술이 없는 교재도 있다. 그리고 ‘-고’와 조사의 결합형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교재에서도 단지 ‘-고’와 조사의 의미 결합이라고 단순히 피상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어, ‘-고’와 조사의 결합형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정확히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우선 형태상은 ‘-고’와 조사가 결합한 것 같아도 그 의미가 ‘-고’와 무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고’와 의미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모든 의미와 연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의 몇 가지와만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다. 단지 의미의 결합이라고 소개하면 그 의미의 범주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그밖에 하나의 결합형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의 의미만 소개할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조사의 의미와 무관하게 결합형이면 무조건 ‘-고’에 대한 강조라고 소개하는 교재도 있다. 이렇게 의미 기술만 부족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통사적인 제약도 교재에는 거의 언급이 없다.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이 틀리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렇듯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침서가 되는 교재가 이렇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혼동을 주기 마련이다. 즉,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습하기 어렵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고’의 의미 검토를 토대로 하고 ‘-고’와 조사의 결합형의 의미를 규명하고 교재 기술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이다.¹⁾

- (ㄱ)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보는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검토.
- (ㄴ) ‘-고x’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징 검토.
- (ㄷ)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x’ 교재 개선 방안 검토.

이어서 이 3가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또 그 연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겠다.

2. 연구 방법

1절에서 본고의 연구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연구 방법을 제시하겠다.

첫째,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보는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검토. ‘-고x’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밝히려면 먼저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고’는 절과 절을 연결하여 복합문을 구성하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어미, 문장의 종결 기능을 띠는 종결어미, 보조용언을 본용언에 이어 주는 보조적 연결어미, 복합동사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로 폭넓게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절과 절을 연결하여 복합문

1) 본고는 ‘-고’에 결합된 조사를 ‘x’로 부르겠다.

을 구성하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어미 ‘-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²⁾.

종래 ‘-고’에 대해 많이 연구해왔는데, 기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모든 ‘-고’의 용법을 해석할 수 있는지가 이 부분에서 먼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선행연구에 ‘-고’의 용법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겠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나타난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살펴본 후에,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보는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에 대해 검토하겠다.

둘째, ‘-고_x’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징 검토. ‘-고’에 대한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은 이미 첫 번째 부분에 다룬 내용인데, 조사의 의미 기능은 기존 사전을 참조하겠다. 본고에 참고하고자 하는 사전은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이다³⁾.

‘-고_x’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징에 대한 검토는 예문을 분석하면서 진행하겠다. 예문이 이 부분의 기초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 이 기초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 말뭉치⁴⁾의 예문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_x’는 ‘-고’의 의미와 무관한 어미화된 ‘-고_x¹⁾’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합형 ‘-고_x²⁾’도 있다. ‘-고_x’의 어미화 여부는 ‘-고_x’의 교수 방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교재 편찬에도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선 어미화된 ‘-고_x¹⁾’과 조사 결합형 ‘-고_x²⁾’의 판별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판별 결과를 제시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고_x’의 의미와

2) ‘연결어미’로 부르나 ‘부사형 어미’로 부르느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으나, 본고의 논의할 주된 내용이 아니라 학교 문법에 따라 ‘연결어미’로 부르겠다.

3) 이어진 논의에서 『국립』, 『고려』, 『연세』를 부르겠다.

4) 세종 말뭉치는 2011년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자료이며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11.12 수정판)의 일부분이다. 본고는 특히 63,632,472 어절을 가진 원시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검색은 세종 말뭉치와 함께 배포된 한마루 직접검색기2.0을 이용하였다.

통사적인 특징을 종류별로 검토하겠다.

셋째, ‘-고x’ 교재 개선 방안 검토. 중국 현지 대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한국어 교재에 ‘-고x’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 단순히 ‘-고’와 조사의 결합으로 해석하거나 ‘-고’의 강조 표현이라는 피상적인 기술에 그쳤다. 교재에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ㄱ) 문법 항목의 선택과 배열

ㄱ-1) ‘-고x’의 필수 교수 항목이 교재에 들어갔는가?

ㄱ-2) ‘-고x’의 제시 시기가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부합하는가?

(ㄴ)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문법의 의미와 통사적인 특징을 적절하게 설명했는가?

(ㄷ) 문법 항목에 대한 예시와 연습

ㄷ-1) 제시된 예문의 형식과 배열순서가 적절한가?

ㄷ-2) 제시된 예문이 문법 항목의 의미·통사 특징을 반영했는가?

ㄷ-3) 제시된 예문의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가?

ㄷ-4) 연습 문제의 형식이 4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었는가?

ㄷ-5) 연습 문제의 내용이 문법 항목의 의미·통사 특징을 반영했는가?

교재에 소개되어야 하는 ‘-고x’의 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단계에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종 말뭉치, 국립국어원(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한국어 능력시험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 세 가지 자료 중에 각각의 ‘-고x’가 나타난 빈도수 순위, 형태적 난이도와 학습자 심리적 난이도, 이 세 가지 사항에 의하여 ‘-고x’의 목록과 교수 단계를 결정하겠다. 이어서 ‘-고x’ 대한 설명, 예문, 연습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

3. 연구 대상

본고에 ‘-고x’의 검토 범위는 연결어미 ‘-고’와 조사의 결합 형식을 갖는 모든 ‘-고x’이다. 그 목록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과 세종 말뭉치를 활용하였다.⁵⁾ 그 결과에 따르면 ‘-고x’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고x’목록:

-고는, -곤, -고도, -고만, -고나, -고야, -고들⁶⁾, -고까지, -고라도, -고부터, -고라야
(총 11개)

4장에서 살펴볼 교재는 크게 중국 현지에서 편집된 교재와 한국에서 편집되고 중국으로 도입된 교재 두 가지로 나누겠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도 이 범위 내에서 채택된다.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배려하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어의 문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용어, 문법 범주의 정의, 의미 해석, 통사적인 특징 해석 등 부분에 오류가 적지 않다. 한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한국어의 문법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재로서 각각 모국어가 다른 학습자에게 적합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을 번역된 언어만 달리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권 학습자들은 가족 호칭어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끼

5) 본고는 『국립』에서 ‘보조사’로 인정하는 모든 조사가 ‘-고’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세종 말뭉치의 현대 문어-원시 말뭉치를 검색 범위로 해 어절 검색으로 ‘-고x’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가 있는 ‘-고x’ 중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로 쓰인 ‘-고x’를 ‘-고x’의 목록에 수록한다.

6) 『국립』에 따르면 ‘들’은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예를 들면 ‘사람들’, ‘그들’, ‘너희들’ 등, ‘복수’의 뜻을 더할 때 접사로 쓰인다.

체언, 부사어, 연결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예를 들면 ‘이 방에서 텔레 비전을 보도들 있어라.’, ‘다들 떠나갔구나’, ‘다 떠나들 갔구나.’, ‘안녕들 하세요?’ 등,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낼 때 보조사로 쓰인다.

지 않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지역 학습자들은 이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또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조사나 어미의 습득은 비교적 쉬운 일이겠지만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게는 넘어가기가 힘든 큰 산일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한국어 학습자라도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냐에 따라 각각 적합한 문법서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문법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으로부터 도입된 교재에서 조사나 어미에 대한 설명은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문법 설명이나 예문에 대한 번역이 잘못되거나 원래의 뜻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다.

본고는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현황을 참고하여 중국 현지에서 편집된 교재와 한국에서 편집되고 중국으로 도입된 교재를 각각 네 가지씩 선정하고 검토하겠다. 이 여덟 가지의 교재는 아래와 같다.⁷⁾

중국 현지에서 편집하고 출간된 교재:

- (ㄱ) 『한국어 1-4』 (2004), 이선한·안병호 외 4, 민족출판사.
- (ㄴ) 『신편 초·중·고급 한국어(상·하)』 (2008), 최희수, 요녕민족출판사.
- (ㄷ) 『기초 한국어 1-4』 (2008), 남일,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고급 한국어 1-2』 (2011), 심현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ㄹ) 『표준 한국어 교정 1-6』 (2010), 장광군, 려춘연, 요녕민족출판사.

한국에서 편집·출간되고 중국으로 도입된 교재:

- (ㄱ) 『한국어교정 1-6』 (2008),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세계도서출판사.
- (ㄴ) 『표준 한국어 교정 1-6』 (2012), 한국외국어대학·한국어문화교육원, 상무인서관.
- (ㄷ) 『가나다 KOREAN for Chinese』 (2006), 가나다 한국어보습반, 베이

7) 편의를 위하여 후술된 내용에 순서대로 「민족», 「요녕», 「흑룡강», 「표준», 「연세», 「외대», 「가나다», 「서울대」로 부르겠다.

징대학출판사

(ㄴ) 『한국어 1-4』 (2007), 한국서울대학언어교육원, 외어교학여연구출판사.

Ⅱ. 기존 논의

1. ‘-고’에 대한 기존 논의

‘-고’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고’ 자체의 의미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의미나 기능이 흡사한 ‘-어서’와의 비교로 초점 옮기고, 요즘 들어 한국어교육에서 ‘-고’를 어떻게 학습자에게 교수해야 하느냐에 관심을 두었다. 우선 ‘-고’의 의미기능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겠다.

1) ‘-고’의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

‘-고’의 의미나 통사적인 특성에 따라 이것을 ‘대등적 연결어미’로 보느냐 ‘종속적 연결어미’로 보느냐 혹은 ‘부사형 전성어미’로 보느냐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본고에서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대등과 종속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남기심(1985), 유현경(1986), 정정덕(1986), 김영희(1988), 최재희(1985), 이관규(1992), 서정수(1994), 이필영(1994) 등 통사적 관계에 따라 대등과 종속을 구별하였다. 반면에 이익섭·임홍빈(1983), 권재일(1985), 남기심·고영근(1993),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는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이를 구별하였다. 이은경(1998: 475)에서는 ‘종속접속어미로 분류된 어미가 사용되었을 때도 대등접속 구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은경(1998: 475)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등접속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고’와 ‘-며’뿐이다. 본고에서는 대등접속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의 기능에 한해서만 대등의 기능으로 설명하고 그 외의 기능은 종속의 기능으로 설명할 것이다. ‘-고’가 보통 종속의 기능을 할 때 보조사와 결합한다. 따라서 ‘-고’가 종속 기능을 할 때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착하고도 예쁘다’와 같이 ‘-고’가 대등의 기능을 나타낼 때

도 일부 보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함으로 대등의 ‘-고’를 역시 살펴볼 것이다.

‘-고’의 의미에 대해 최현배(1975: 295)에서는 이음법 문장 유형을 열네 가지의 꼴로 나누어 각각 ‘매는꼴, 놓는꼴, 벌림꼴, 풀이꼴, 견줄꼴, 가림꼴, 잇달음꼴, 그침꼴, 더보탬꼴, 더해감꼴, 뜻함꼴, 목적꼴, 마침꼴, 되풀이꼴’로 제시했다. 그 중의 벌림꼴에서 ‘-고’를 다루고 있는데, ‘때 벌림꼴(차례 벌림)’과 ‘얼안 벌림꼴’ 두 갈래로 나누었다. 차례벌림은 다시 그 움직임이 끝남을 보이는 것과 그 다음의 움직임의 수(방법)을 보이는 것으로 나뉜다. 최현배(1975: 295)과 비슷하게 ‘-고’의 의미를 분류하는 것은 정희정(1990), 남기심(1994), 윤평현(2005)가 있다.

정희정(1990)은 ‘-고’와 ‘-어서’를 대비·대조하는 논의로서 둘의 의미 차이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최현배(1975)의 의미 분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두 연결어미의 통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남기심(1994: 11)에서 ‘-고’의 ‘-고서’, ‘-고 나서’와의 대치 가능성에 따라 ‘-고’에 의한 접속문을 살펴보았다. 분류항목은 다음과 같다.

- (ㄱ) ‘-고서’나 ‘-고 나서’의 어느 것으로도 대치가 불가능한 경우
- (ㄴ) ‘-고서’로 대치되는 경우
- (ㄷ) ‘-고 나서’로 대치되는 경우
- (ㄹ) ‘-고서’와 ‘-고 나서’로 모두 대치가 가능한 경우

첫 번째 부류는 ‘공간나열’로, 두 번째 부류는 ‘동시나열’로, 세 번째 부류는 ‘계기나열’로, 네 번째 부류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로 ‘-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윤평현(2005: 1~45, 240~286)는 접속어미 전체를 다루면서 ‘-고’에 대해서 ‘나열관계 접속어미’와 ‘시간관계 접속어미’ 두 가지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시간관계를 가진 ‘-고’는 또 ‘동시’의 의미를 가진 ‘-고’와 ‘계기’의 의미 가진 ‘-고’

로 좀 더 세분화하였다.

‘-고’에 대한 의미 분석은 많은 논저에서 이분화를 시도하였다. 최현배(1975: 306~313)의 ‘차례별립’과 ‘얼안 별립’, 윤희현(2005: 1~45, 240~286)의 ‘나열관계’와 ‘시간관계’, 정경희(1995), 박용한(2000)에서 ‘-고’뿐만 아니라 모든 연결어미는 ‘시간적 관계’- ‘공간적 관계’로 이분화하고 있다. 그밖에 서정수(1982)는 ‘-고’의 의미를 크게 ‘순차적 나열’, ‘비순차적 나열’로 분류하였다. 남기심(1994: 11~14)은 ‘-고’의 의미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지만 소위 ‘공간나열’이라는 것은 많은 논저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공간’의 이동이나 실제적인 ‘공간’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대립 개념으로 ‘비시간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시간관계를 가지지 않은 관계는 ‘공간관계’이다. 그래서 남기심(1994)에서 ‘공간’, ‘동시’, ‘계기’, ‘다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시간(계기, 동시)’와 ‘공간’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최현배(1975), 남기심(1994), 윤희현(2005)의 견해를 정리해자면 ‘-고’의 의미를 크게 시간과 연관이 있는 의미와 시간과 연관이 없는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간과 연관이 있는 의미는 최현배(1975: 306~309)에서 ‘계기’와 ‘방법’으로, 남기심(1994: 29~38), 윤희현(2005)은 ‘계기’와 ‘동시’로 다시 분류하였다. 시간과 연관이 없는 의미는 최현배(1975)는 ‘나열’, 윤희현(2005)은 ‘단순 나열’, 남기심(1994)은 ‘공간나열’로 보았다.

그럼 시간관계가 있지만 ‘계기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 최현배(1975)에서 ‘수(방법)’, 남기심(1994)와 윤희현(2005)에서는 ‘동시’로 보았다. 필자는 ‘수(방법)’과 ‘동시’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고 본다.

(1) 농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

(1)의 의미는 윤희현(2005)에서 논의하였듯이 ‘농부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

는 것과 농촌에서 사는 것은 넓은 시간대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지만 '농사를 짓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살아간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본고는 (1)과 같은 문장에 대해 '동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방법'의 의미로도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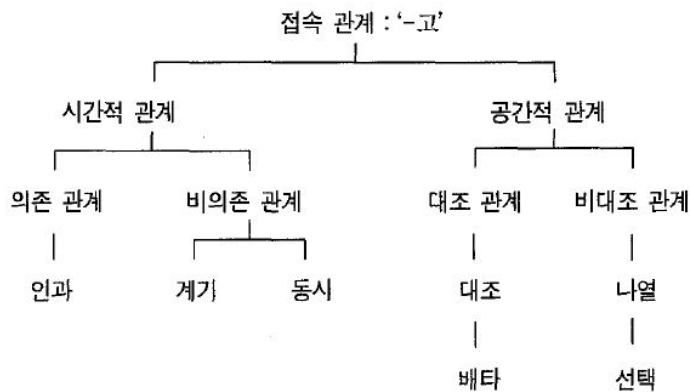
또한, 윤희현(2005)에서 '나열관계'를 다시 '단순나열'과 '중첩나열'로 나누었다. '-고'는 '단순나열'의 접속어미로 분류하였다. 윤희현(2005)에 따르면 '단순나열'은 배열에 참여하는 명제들을 완전히 독립된 각각의 명제로 보고 배열의 순서에 관계없이 평면적으로 명제를 제시하는 것이며, '중첩나열'은 배열에 참여하는 명제들이 서로 독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명제들에 대한 화자의 화용론적 인식 과정에서 선후의 순서가 있으며, 이 순서에 따라 명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와 같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서를 뒤바꾸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표현 의도에 변화를 가져온 예문에 대해서는 화자가 특정 명제에 초점을 두어 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너는 철수를 지키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라는 문장은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철수를 지킨다.'로 바꾸면 의미 변화가 생기고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이유는 '특정 명제'로 설명하기 어렵다. 화자의 화용론적 인식 과정에서 선후의 순서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장을 보서는 '단순나열'과 '중첩나열'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본다. '-고'는 '단순나열'이나 '중첩나열'로 구분할 필요없이 '나열'로 본다.

지금까지는 최현배(1975)에서 '-고'에 대한 입장, 그리고 최현배(1975)와 입장이 크게 보면 비슷한 남기심(1994)와 윤희현(2005)의 입장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다음에 '-고'의 의미를 조금 더 세분하게 분석하는 김승곤(1977)과 박용한(2000)을 보겠다.

김승곤(1977)에서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고’까지 포함하는 ‘-고’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동작성’의 ‘-고’에서 연결어미로 쓰이는 ‘-고’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동작이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진행’와 ‘완료(미완)’의 의미를 도출하였고, 그 다음에 ‘수단’, ‘서열’, ‘중첩대칭’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동작이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고’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의심이 생긴다. 그것이 동작의 상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고’ 자체가 가지는 의미인지 더 고심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박용한(2000: 30~42)에서 장경희(1995)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첫째 접속어미로 표현되는 사건관계의 계층구조, 둘째 이른바 접속관계의 ‘-고’가 갖고 있는 관계의미들의 하위 범주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서 ‘-고’가 갖고 있는 관계의미를 아래<그림 1>과 같이 보여주었다.



<그림 1> ‘-고’가 가지는 관계의미 범주 <출처: 박용한(2000: 39)>.

<그림 1>과 같이 논의에서 모든 접속어미를 망라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었고, ‘-고’의 용법을 그 틀에 맞게끔 채웠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채우는 과

정에 ‘-고’가 가지는 특성을 잃게 만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밥을 안 먹고 어찌 삽니까?’와 같은 예문은 ‘-고’의 용법이 공간적 관계이다. <그림 1>에 따라 좀 세분하게 분류하면 공간적 관계 중의 비대조 관계이다. 하지만 이 예문의 ‘-고’는 나열이나 선택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박종갑(1987)에서는 ‘-고’를 ‘통사, 의미, 음운’ 등 정형성에서 벗어나 화용론적인 시각으로 ‘-고’의 의미 기능을 탐구하는 것을 시도했다. 박종갑(1987: 5)에 따르면 ‘-고’ 그 자체는 단순한 ‘연결’ 이외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고’에 의한 접속에 있어서 서술어의 품사나 의미특성, 문장의 통사구조 등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고 순수히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화용론적 관점에서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화용론적 관점에서는 비문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예문 (2)는 박종갑(1987: 4)에서 나오는 예문인데 화용론적으로 보면 올바른 문장과 비문의 범주 확정이 어렵다.

(2) My cat realises that I'm A lousy cook.

... goldfish

... pet amoeba.....

... frying pan

... sincerity

... birth

박종갑(1987: 4)

또한 아래 (3)처럼 화용론적으로 보면 ‘취미 생활 비교’라는 같은 화제이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된다고 하였지만 (4)처럼 똑같이 ‘취미 생활 비교’ 화제이지만 비문이다. (5)는 (4)의 후행절 ‘누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누나는 책을 좋아한다’로 바꿨는데 올바른 문장이 된다. (4)와 (5)를 통해서 ‘-

고'의 용법을 통사론에서 벗어나 순수히 화용론적인 입장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훈아는 그림을 좋아하고 백호는 문화책을 즐겨 본다. (박종갑 1987: 1)
- (4) *형은 등산을 좋아하고 누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 (5) 형은 등산을 좋아하고 누나는 책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화용론 시각으로 '-고'의 용법을 분석하는 시도는 역시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이어서 사전에서 '-고'에 대한 기술을 보겠다. 본고에서 검토할 사전은 『국립』, 『고려』, 『연세』이다.

세 개의 사전에서 기술되는 '-고'의 의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⁸⁾

첫째,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연결'이라는 용법은 세 개의 사전에서 모두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 『고려』에서 '대등 나열' 하나로 설명하였는데 『연세』에서 '대등 나열'을 더 세분하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였다.

- (6) 그녀는 목장을 경영하며 젓소를 기르고, 3남매를 키우는 40대의 미망인이었습니다.
- (7) 흥정은 불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다.
- (8) 희고 흰 그 손으로 막일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 (9) 가슴에 쌓이고 쌓인 한을 풀지 못하고 그는 죽었다

(6)은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함을 나타낸다. (7)은 반대되는 사실을

8) 『국립』, 『고려』, 『연세』에서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고'와 단어 형성할 때 쓰이는 '-고', 그리고 『국립』에서 기술하는 “'하다'의 선행 형식이 되게 하거나 명사적으로 쓰이도록 한다”의 기능을 하는 '-고'의 기능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맞세움을 나타낸다. (8)은 [~-고 ~-ㄴ의 꼴로 쓰이어]상태나 성질 등을 강조함을 나타낸다. (9)는 [~-고 ~-ㄴ의 꼴로 쓰이어]행위의 반복을 나타낸다. 여기서 (7)의 ‘반대되는 사실을 맞세움’을 나타내는 것은 ‘-고’에 의해 실현되었을까 의심이 생긴다. 즉, ‘그녀는 목장을 경영하며 쫓소를 기르고, 3남매를 키우는 40대의 미망인이었습니다’의 ‘-고’와 ‘홍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다’의 ‘-고’는 기능이나 의미가 차이가 없다고 본다. 또한, 같은 동사를 연결하여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도 동사가 반복해서 실현된 의미이지 ‘-고’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등적’인 ‘-고’의 용법을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본다. (6), (7), (9) 세 개의 ‘-고’의 용법이 완전 같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서 같은 형용사나 같은 동사의 반복을 [~-고 ~-ㄴ의 꼴로 쓰이어]의 형식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형식 말고 다른 형식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회고 회다.’, ‘쌓이고 쌓였다.’와 같이 뒤에 관형사형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되고 ‘-고’의 용법이 달라진 점이 없다. 이어서 (8)의 ‘상태나 성질 등을 강조함을 나타냄’의 ‘-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고 회다’에 대해서 필자는 ‘대등적 연결’이라고 보지 않는다.

‘회고 회다’ 같이 ‘A고 A’ 형식을 갖는 문장을 병렬로 보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ㄱ) 병렬된 문장은 ‘A고 B고 C고....’같이 2개 이상이 나열되는데 ‘예쁘고 예쁘고 예쁘다’혹은 ‘예쁘고 예쁘고 착하다’와 같이 쓰일 수 없는 것처럼 이럴 때의 ‘-고’가 병렬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ㄴ) ‘-고’로 연결된 병렬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분열시켜 ‘그리고’로 연결할 수 있다.

(10-1) 산이 높고 푸르다.

(10-2) 산이 높다. 그리고 푸르다.

(11-1) 꽃이 예쁘고 예쁘다.

(11-2) *꽃이 예쁘다. 그리고 예쁘다.

(ㄷ)의 ‘-고’에 의해서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은 독립된 문장으로 되어 ‘그리고’로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11)은 그렇지 못하다. 병렬이라면 평행하는 선처럼 한 사물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인데 ‘A고 A’구조는 한 가지의 특성만 나타낸다.

(ㄹ) 병렬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계가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행절과 후행절의 ‘A’가 형태가 똑같아도 문장에서 비중이 똑같다고 장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A고 A’ 형식을 가진 ‘-고’는 ‘대등’의 용법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필자는 이럴 때의 ‘-고’는 선행절이 나타내는 것을 기초로 하고 한 걸음 더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즉 ‘첨가⁹⁾’의 의미로 본다. 이런 ‘더함’ 때문에 ‘A고 A’ 구조 전체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는 용법도 세 개의 사전에서 모두 나타났다. 다른 점은 『고려』와 『연세』에서 ‘계기’와 ‘이유’를 ‘-고’의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누었지만 『국립』은 ‘이유’를 ‘계기’에 포함시켰다. 여기에서는 『국립』과 마찬가지로 ‘이유’를 ‘계기’에 포함시키겠다.

‘생선을 먹고 설사나다’와 같은 문장은 『고려』와 『연세』에서 ‘이유’로 분류하는 문장이다. 하지만 ‘생선을 먹고 설사나다’가 ‘생선을 먹은 후에 설사나다’로 바뀌도 의미 영향에 없다. ‘-은 후에’는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 쓰이는 ‘-고’도 ‘이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의 대화 상황을 설정해 보자.

9) 김종록(2010: 173~174)에서 ‘-고도’의 의미를 논의할 때 같은 형용사의 반복일 때 ‘-고도’는 ‘첨가+강조’의 뜻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가 ‘첨가’의 의미, ‘도’가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고는 그 뜻을 본받아서 ‘회고 회다’같은 구조를 가진 ‘-고’에 대해서는 ‘첨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환자: (ㄱ) 아침 일어나고 토하기 시작했어요.

(ㄴ) 점심먹고 토하기 시작했어요.

(ㄷ) 생선먹고 토하기 시작했어요.

(ㄷ)이 흔히 원인으로 해석하는 예문이다. (ㄷ)예문이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생선먹다’와 ‘토하다’라는 어휘의 의미가 주는 연관성 때문이지 ‘-고’라는 어미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고’가 원인의 어미를 지난다면 (ㄱ)예문에서 ‘일어나다’와 ‘토하다’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첫째, 문장을 통해서 꼭 생선 먹기 때문에 토한다고 할 수가 없다. 둘째, 만약 생선 먹기 때문에 해석한다면 그럼 ‘점심먹고’, ‘일어나고’ 모두 원인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일어나기 때문에 토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고’는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셋째, 『국립』에서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고려』에서 ‘뒤에 서술한 행동의 과정에서 앞선 행동이 야기한 상태가 여전히 유효함을 나타낸다’의 표현으로 전술된 논저에서 흔히 말하는 ‘동시나 방법’을 나타낸다. 『연세』에서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과 동시에 이루어짐(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 ‘앞의 행동이나 결과가 뒤에 오는 행동에 그대로 지속됨(우리는 촛불을 켜고 공부를 했다)’, 그리고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의 수단이나 방법(김사장이 차를 몰고 부산에 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분류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와 같은 문장은 이전의 내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부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농촌에서 사는 것은 넓은 시간대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지만 ‘농사를 짓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살아간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해석되

는 ‘차를 몰고 부산에 갔다’는 ‘차를 모는 것과 부산에 가는 것은 같은 시간 대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 ‘앞의 행동이나 그 결과가 뒤에 오는 행동에 그대로 지속됨’으로 해석되는 ‘우리는 촛불을 켜고 공부를 했다’를 보자. ‘먼저 촛불을 켜고, 그 상태로 공부를 했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공부 시작할 때부터 촛불 이미 켜진 상태일 수도 있다. 밤에 자습실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자. 불 켜진 자습실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럼 이럴 때도 ‘우리를 불 켜고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어떤 상태에서 공부를 했느냐에 대한 설명이다. 이럴 때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용법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실제로 분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길고 긴 세월’과 같이 ‘A고 A’의 ‘-고’를 『국립』과 『고려』에서 ‘형용사 어간을 반복하여 그 뜻을 강조한다’로 보았지만 전술된 바와 같이 ‘강조’라는 것은 ‘-고’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 아니라 ‘-고’는 선행절이 나타내는 것을 기초로 하고 한 걸음 더함을 나타내 ‘첨가’의 의미를 가져서 ‘A고 A’ 구조 전체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섯 째, 『고려』와 『연세』에서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어찌 낮 들고 살아가겠소?’와 같은 문장에 나타난 ‘-고’는 ‘조건’으로 보았다. 『국립』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어찌 낮 들고 살아가겠소?’와 같은 문장에 나타난 ‘-고’는 ‘의미’가 전술된 ‘-고’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수사 의문문에만 쓰이는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다. 이는 ‘-고’의 어떤 용법과도 다르다. 따라서 필자는 ‘-고’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의미에 대한 논의에서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 ‘-고’의 의미와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회의 일정을 두고 논의하였다’, ‘판단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등 문장에 사용되는 ‘-

고'의 의미에 대해 기술된 바가 없는데 필자가 이를 '관용표현'의 일부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런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필자는 '-고'의 의미를 '계기', '방법이나 동시', '병렬', '첨가', '조건' 등 다섯까지 보려고 한다.

2) '-고'의 통사적 특징에 관한 연구

이어서 '-고'의 통사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연구는 방운규(1999), 박소영(2000), 이은경(2000), 윤희현(2005), 이은경(2007), 목지선(2012) 등이 있다.

방운규(1999)에서 '마디 바꾸기 제약', '임자말 제약', '풀이말 제약', '의향법 제약', '때때김법 제약'에 대해, 박소영(2000)에서 '주어의 실현', '술어의 실현(용언의 종류와 의미 특성, 용언의 상적 특성)'에 대해, 이은경(2000)은 '선·후행절의 대칭성', '선행절의 이동제약', '후행절의 대응제약', '선행절의 대조성', '선행절의 언표내적효력', '선행절의 시제 해석', '주체존대소' 등에 대해, 윤희현(2005)은 '선행절 서술어의 성질에 따른 결합상의 제약', '선행절 주어와 후행절 주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제약', '시상어미와의 결합 양상', '서법 제약', '선행절 또는 후행절에 오는 부정 표현과의 결합 양상' 등에 대해, 이은경(2007)에서 '말뭉치 접속문의 동사 유형(자동사, 타동사)', '말뭉치 접속문의 문형(NP-가 NP-를 V, NP-가 V 등)', '말뭉치 접속문의 성분 공유 현상(인물 명사, 비 인물 명사; 주어 성분 공유, 다른 성분 공유; 동일한 명사구 공유)' 등에 대해, 목지선(2012)은 '동일주어 제약', '성분 공유', '부정 결합 양상(행위 수행을 요구하지 않는 용법, 행위 수행을 요구하는 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방운규(1999)는 나열문을 주제로 논의하는 논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일반적인 연결어미의 통사적 특징(주어 동일 제약, 술어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서법제약) 외에 대등관계와 연관되는 특징도 논술했다. 예를 들면, 선·

후행절 위치 바꿈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 논술된 ‘-고’의 통사적인 특징이 ‘마디 바꾸기 제약’, ‘임자말 제약’, ‘풀이말 제약’, ‘의향법 제약’, ‘때때김법 제약’ 등이 있다. 박소영(2000)은 ‘-고’의 양태적인 용법에 대해 논의한 논문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시각이 다른 논문들과 다소 다르다. 주어에 대해서는 ‘동일 주어 제약’ 말고 주어와 조사의 결합 양상을 논술 하였고, 술어에 대해서도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가 술어로 쓰일 수 있는지를 논술하는 대신 ‘신체동사-자세, 신체동사-표정, 소유동사, 착용동사, 위치관계 동사, 동반동사, 심리동사’ 등으로 나누고 말뭉치 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각각 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밝혔다. 이은경(2000)은 한국어의 연결어미의 전반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어느 어미의 용법을 고려해서 논의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은 ‘한국어의 접속 구성이 실제로는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으로 명확하게 이분되는지는 점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논지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선행절의 대등성 및 종속성’, ‘선행절의 독립성 및 의존성’을 분별할 수 있는 특징들을 논술의 중심으로 삼았다. 윤평현(2005)은 이은경(2000)과 비슷하게 어느 특징적인 연결어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국어 접속어미’의 전반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윤평현(2005)도 ‘-고’의 용법을 고려하기보다 전반에 접속어미의 통사적인 특징에 관심을 두었다. 또 ‘-고’의 용법을 고려하기보다 전반에 접속어미의 통사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논술하였다.

이은경(2007: 333~356)은 ‘절대적인’ 통사적인 특징보다 ‘상대적인’ 통사적 특징들을 진술했다. 따라서 논술할 때, 술어는 어떤 품사이어야 하거나 어떤 문형이어야 문장이 성립되느냐에 비해 술어와 문형의 각 종류의 비율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 예를 들면, 술어에 대한 논의에는 선·후행절의 술어가 ‘자동사, 타동사’인 비율을 논술하고, 성분 공유에 대한 논의에는 공유성분이

인물명사의 비율과 비 인물명사의 비율을 논술했다.

목지선(2012: 51~74)는 ‘-고’가 ‘부정 표현과의 결합 양상’에 논의 중심을 두었다. 따라서 긍정문으로 쓰일 때의 ‘동일 주어 제약’과 ‘성분 공유 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논술했고 ‘부정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논지에 따라 서로 다른 통사특징을 택해 논술했다. 위와 같은 논의를 전체적으로 보면 술어의 유형에 대한 고찰은 여섯 개의 논의에서 네 번 언급되었다. 그 다음에는 동일 주어 제약, 시제소는 세 번, 그리고 서법 제약, 선·후행절 위치 바꿈, 부정 표현, 성분 공유 현상은 두 번이다. 나머지는 각 논지의 특수성 때문에 그 논의에서만 언급되었고 다른 논의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본고도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고’의 용법을 전달할 때 어떤 경우에 ‘-고’를 쓸 수 없는지, 즉 ‘-고’는 어떤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지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자 한다. ‘선·후행절 위치 바꿈’은 대등관계인지 판단할 때 흔히 사용되는 기준이지만 ‘-고’의 교육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부정 표현’은 ‘-고’가 어떤 특정한 의미로 쓰일 때 문 의미가 있는데 일반 경우는 부정이나 긍정이나 문장의 성립에 큰 상관이 없다. ‘성분 공유’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꼭 같아야 하는지의 ‘주어 동일 제약’,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중 어떤 유형이 ‘-고’의 술어가 될 수 있는 ‘술어 제약’, ‘-고’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있는지의 ‘시상어미 제약’, 그리고 ‘-고’를 쓸 때 문장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의 ‘종결법 제약’ 등 네 가지의 측면에서 ‘-고’의 통사적인 특성을 보고자 한다.

‘-고’의 통사적인 특징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고’의 의미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3장에서 살펴보겠다.

3)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보는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김수정(2004)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해 연결 어미를 논의하면서 ‘-고’의 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한 가지는 ‘나열’을 나타낸 ‘-고’이고 또 한 가지는 ‘계기’를 나타낸 ‘-고’이다. 물론 ‘-고’의 모든 용법을 교재에서 다 기술할 수 없지만 단지 ‘계기’와 ‘나열’ 두 가지만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예쁘고 예쁘다’, ‘밥 안 먹고 어찌 삽니까?’ 등 같은 용법은 일상생활에 학습자가 많이 접하는 용법이고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 ‘가방을 매고 가다’와 같은 문장은 ‘계기’의 용법에서 소개하였는데 ‘가방을 매고 가다’를 단지 ‘가방을 맨 후에 가다’로 해석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노민경(2008: 20~24)에서 한국어 교육학의 시각으로 ‘-고’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나누었다.

(ㄱ) 공간나열

동작동사, 상태동사, 이다동사에 두루 쓰이고 사실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선행과 후행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ㄴ) 순차나열

a.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동작이 선행절이 되고 나중에 일어난 동작이 후행절이 되는 경우 (때로는 이유)

b. 선행동작의 상태나 결과가 유지되면서 후행동작이 진행되는 경우(수단이나 방식)

c. 선행동작을 보면 반드시 후행절과 같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의문형이 많음)

d. 후행절을 함축적으로 생략하고 의문문으로 말하는 경우

(ㄷ)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하여 뜻을 더하는 경우

a. 이다동사와 결합하여 선행명사가 나타내는 종류의 사물은 가리지 않고의 뜻임

b. 서로 상반되는 사실을 나열하되 상반되는 의미의 짝이 있는 일부 동작동사와 상태 동사에만 쓸 수 있다.

노민경(2008: 20)에서 ‘-고’의 계기 의미 부분을 조심스럽게 ‘때로는 이유’

라고 하였지만 필자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본다. 논의에 나온 예문 ‘이사하고 며칠 동안 앓았어요.’와 ‘취직시험에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었나 봐요.’가 ‘이사한 후에 며칠 동안 앓았어요.’와 ‘취직시험에 떨어진 후에 자신감을 잃었나 봐요.’처럼 ‘-은 후에’로 바뀌서 연결시켜도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안 끼친다. 만약에 ‘-고’는 ‘원인’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그럼 ‘-은 후에’도 ‘원인’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은 후에’를 원인을 나타낸 표현으로 인정할 수 없듯이 ‘-고’도 단지 선행절과 후행절의 선후관계를 나타낸 어미로 봐야 한다. 또 (ㄴ-d)와 (ㄷ)도 연결어미인 ‘-고’의 의미로 봐야 하는가 문제가 된다.

위와 같은 논의밖에도 진희(2014: 23~25)에서 ‘-고’의 의미를 ‘병렬’, ‘선행’, ‘원인’, ‘방법’, ‘양태’로 나누었고, 장기복(2014: 18~20)에서 ‘-고’의 의미를 ‘대등적 나열’, ‘순차적 나열’, ‘동시 진행’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본고는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의 의미가 ‘계기’, ‘방법이나 동시’, ‘병렬’, ‘첨가’, ‘조건’, 등 여섯 가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고에서 ‘-고’가 사용될 때 받는 제약을 ‘주어 동일 제약’, ‘술어 제약’, ‘시상어미 제약’, ‘종결법 제약’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보겠다고 하였다. 그럼 각각의 의미로 쓰이는 ‘-고’가 각각 어떤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가?

첫째, ‘계기’의 ‘-고’의 통사적인 특징이다. 장기복(2014: 20~24)에서 ‘계기’ 관계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는 같아야 하고 만약 다르다면 아래(15)와 같이 ‘나열(병렬)’관계 문장이 된다고 하였다.

(12) 나는 축구를 하고 집에 갔다.(계기) (장기복 2014: 23)

(13) 나는 축구를 하고 보라는 집에 갔다. (병렬) (장기복 2014: 23)

남기심(1994: 40~43)에서 네 가지의 용법의 ‘-고’에 관한 예문을 들고 그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그 예들도 모든 종류의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남기심(1994: 40~43)은 ‘-고’의 용법은 주어 동일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서정수(1982: 63)과 윤평현(2005: 243~251)에서 ‘계기’ 용법의 ‘-고’가 아래 예문과 같이 주어 동일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4) 형은 공을 던지고 동생은 받는다. (서정수 1982: 63)

(15) 해가 지고 달이 떴다.

(16) 연희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이어서 술어 제약을 보겠다.

윤평현(2005)에서 계기의 ‘-고’는 술어가 동사이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형용사나 ‘명사+이다’일 때는 단순한 나열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서정수(1982: 56)은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하여 선행절의 서술어는 반드시 동사이어야 하지만 후행절에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17) 나는 신문을 읽고 밥을 먹었다.

(18) 나는 신문을 읽고 기분이 나빴다.

(17)과 (18)은 순차성을 보이는데 (17)의 후행절 서술어는 동사이고 (18)의 후행절 서술어는 형용사이다.

하지만, (18)의 ‘나는 신문을 읽고 기분이 나빴다’의 ‘나쁘다’는 형용사이지만 ‘나빠지다’의 의미를 나타냈다. 신문을 읽기 전이 기분이 괜찮았지만 신문을 읽은 후에 기분이 괜찮은 상태에서 ‘나쁘다’로 바꾸는 변화를 나타냈

다. 즉 나는 신문을 읽고 기분이 나빠졌다. 따라서 ‘나쁘다’는 형용사이지만 여기서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을 통하여 동사의 특성을 다소 가지게 되었다. 만약 ‘나쁘다’를 단순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보고 즉 신문을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기분의 상태는 ‘나쁘다’라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서정수(1982)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선행절의 술어가 반드시 동사이어야 한다. 이는 만약 선행절에 형용사가 쓰이면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 ‘계기’의 의미로 쓰이는 ‘-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술어가 동사이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데 가끔 후행절에 형용사도 쓰일 수 있지만만 그 형용사가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

윤평현(2005)는 아래(19)¹⁰와 같은 예문을 통하여 ‘계기’의 ‘-고’는 종결법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입증하였다.

(19-1) 차 한 잔 마시고 갑니다.

(19-2) 차 한 잔 마시고 갔습니까?

(19-3) 차 한 잔 마시고 가십시오.

(19-4) 차 한 잔 마시고 갑시다.

둘째, ‘방법이나 동시’의 ‘-고’의 통사적인 특징이다. 선행연구에서 ‘방법이나 동시’로 쓰이는 ‘-고’의 통사적인 특성은 거의 의견이 동일하다. 남기심(1994: 40~43), 윤평현(2005: 246~273), 장기복(2014)에서 ‘-고’는 주어 동일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윤평현(2005: 249~255)에서 ‘동시(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로 쓰이는 ‘-고’로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반드시 동사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래 (20)을 통하여 ‘방법’의 의미로 쓰이는 ‘-고’는 종결법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윤평현(2005)에는 ‘차 한 잔 들고...’로 되어 있지만 본고는 이중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차 한 잔 마시고...’로 고쳐 쓰겠다.

- (20-1) 군인들은 비를 맞고 행군한다.
- (20-2) 군인들은 비를 맞고 행군했느냐?
- (20-3) 비를 맞고 행군하지 마세요.
- (20-4) 우리 비를 맞고 행군하지 맙시다.

셋째, ‘병렬’의 ‘-고’의 통사적인 특징이다. 윤평현(2005: 5~16)에서 ‘병렬’의 의미를 포함한 ‘나열’관계 접속 어미는 동일 주어 또는 비동일 주어에 대한 제약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 (21-1) 강이 넓고 깊다.
- (21-2) 어머니는 가출을 하였고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있다.

술어 제약에 대해서 남기심(1994: 40~43)에서 선·후행절에 동일한 품사의 서술어가 와야 한다고 하였다. 윤평현(2005: 5~16)에서 제약이 없다고 하였지만 예문을 보면 역시 선·후행절의 술어의 품사가 같다.

하지만 박종갑(1987: 6)에서 (23)과 같은 예문을 통하여 절과 후행절의 품사가 달라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 (23) 영애가 얼굴이 예쁘고, 칠성이가 영애한테 자주 갔다. (박종갑 1987: 6)
- (24) 영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다.
- (25) 나는 위험한 등산이 좋고 언니는 얌전하고 소극적인 학생이다.

박종갑(1987: 6)에서의 (23)밖에 (24), (25)와 같은 문장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23)의 후행절의 ‘자주 갔다’나 (24)의 ‘공부를 열심히 하다’, (25)의 ‘얌전하고 소극적인 학생’은 평가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23)과 (24)의 ‘자주 갔다’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런 평적 특징 때문에 동작성

이 많이 희소되었다. (25)의 ‘얌전하고 소극적인 학생이다’는 평가의 특징 때문에 형용사와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아래와 같이 ‘자주 갔다’를 ‘갔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그리고 ‘얌전하고 소극적인 학생이다’를 ‘갔다’, ‘공부를 하다’, ‘학생이다’로 바꾸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23-1) *영애가 얼굴이 예쁘고, 칠성이가 영애한테 갔다.

(24-1) *영애가 공부를 하고 착하다.

(25-1) *나는 위험한 등산이 좋고 언니는 학생이다.

(23-1)과 (24-1)의 ‘갔다’와 ‘공부 하다’는 순수한 동사적 특징만 나타내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25-1)의 ‘학생이다’는 순수한 명사적 특징만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비문이 된다. 따라서 ‘병렬’의 ‘-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동일한 품사의 서술어가 와야 한다. 하지만 형용사나 ‘명사+이다’가 술어가 된 절이 평가적인 의미를 가질 때 형용사의 특징을 갖게 돼, 형용사와 같은 성질을 띠는 절이나 술어가 형용사인 절과 병렬해서 ‘-고’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종결법 제약에 대해서 윤평현(2005: 10~12)에서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하여 ‘-고’가 종결법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26-1) 형은 야구 장갑을 사고, 동생은 야구방망이를 산다.

(26-2) 형은 야구 장갑을 사고, 동생은 야구방망이를 사느냐?

(26-3) 형은 야구 장갑을 사고, 동생은 야구방망이를 사라.

(26-4) 형은 야구 장갑을 사고, 동생은 야구방망이를 사자.

‘첨가’, ‘조건’의 ‘-고’의 대해 어떤 통사적 제약을 받는지 이상의 논의에서 기술이 많지 않지만 ‘첨가’의 경우는 이전 논의한 바와 같이 술어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하늘이 푸르고 산도 푸르다’와 같이 주어와 주어의 차이가 다른 ‘첨가’가

아닌 ‘병렬’의 문장이 되니 주어가 동일한 제약을 받는다. 술어가 형용사이
라 청유문과 명령문에 쓰일 수가 없다. 의문문의 경우 아래 (27)과 같이 수
사의문문에만 쓰인다.

(27-1) 이 화면이 참 예쁘고 예쁘지 않아?

(27-2) *이 화면이 예쁘고 예뻐?

또 ‘조건’의 ‘-고’는 아래 (28)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면
비문이 된다.

(28-1)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어찌 낮 들고 살아가겠소. 『연세』

(28-2) *아들이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어미가 어찌 낮 들고 살아가겠소.

(28-1)의 문장이 (28-2)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에 다른 주어를 부여하면 비
문이 된다. 따라서 ‘조건’의 ‘-고’는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아래 (29)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는 반드시 동사이어야 한다.

(29-1)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어찌 당당하겠소.

(29-2) *그렇게 춥고 어찌 손을 내밀 수 있겠소.

(28-1)의 후행절의 술어를 형용사로 바꾸니 비문이 되었다. (29-2)는 선행
절의 술어가 형용사이어서 역시 비문이다. 그래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
는 반드시 동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려』와 『연세』에서 밝힌 것처럼
‘조건’의 ‘-고’는 수사의문문에만 쓰일 수 있다.

(30-1)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낮 들고 살 수 있겠소?

(30-2)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낮 들고 살 수 없겠다.

(30-3)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낮 들고 살 수 없어요? 왜요?

(30-4)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낮 들고 살지 말자.

(30-5)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낮 들고 살지 마.

(30-1)은 수사의문문으로 문장을 종결을 냈는데 올바른 문장이다. 하지만 (30-2)의 평서문, (30-3)의 일반의문문, (30-4)의 청유문, (30-5)의 명령문은 모두 조건의 '-고'와 어울리지 않다. 따라서 조건의 '-고'는 수사의문문에서 문 쓰이는 제약을 받는다.

'-고'는 '병렬'의 의미로 쓰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의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본고에서 '-고'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아래 <표 1>과 같이 본다.

<표 1> '-고'의 통사적 특징

의미	주어	술어	종결법	시상어미
계기	제약없음	선행절이 동사 이어야 하며 후행절은 동사 혹은 형용사이 어야 함	제약없음	x
방법이나 동시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제약없음	x
병렬	제약없음	제약없음	제약없음	○
첨가	동일 주어 제약	같은 형용사의 반복	평서문만 가능	x
조건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수사의문문만 가능	x

2. 보조사에 대한 기존 논의

보조사에 대한 기존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용어, 범위 등 형태론적 측면에서의 논의이고, 또 하나는 의미론적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홍사만(1983: 12~14)에 따르면 보조사는 그 용어에 있어 도움토씨, 후치사, 한정조사 등 여러 가지로 불려 왔는데 현재 주로 특수조사와 보조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움 토씨’에 대해서 최현배(1975: 636)은 ‘월의 조각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요, 다만 그 뜻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월의 임자말에도 붙을 수가 있고, 부림말에도 붙을 수가 있고, 매김말에도 붙을 수가 있으며, 또 어찌말 뒤에도 붙느니라.’하고 정의하였다. 채완(1990: 264)에 따르면 후치사(postposition)이라는 용어는 Ramstedt를 비롯한 초기의 연구자들 이후 일찍부터 쓰여 왔는데 이는 印歐語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후치사의 개념에 대해서 김영희(1974: 301)에 따르면 ‘문법기능어가 아닌 선행 어귀의 의미한정어’라고 하였다. 최현배(1975: 636)의 ‘뜻만을 돕는 것’의 정의와 별 다름이 없으나 생성문법에 바탕을 둔 학자들이 접근 방식의 차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식에서 ‘후치사’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특수조사라는 용어는 이희승(1949)에서 쓰여졌다. 이희승(1949: 51~52)에서 특수조사에 대해서 ‘조사 중에는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한 가지 격만을 가지게 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주격, 호격, 목적격, 여격 등에 두루 쓰이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격에 두루 쓰이는 조사를 특수조사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인이는 특수조사가 여러 격 기능을 겸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채완(1990: 264)에 따르면 뒤에 여러 연구들에 의해 특수조사는 격기능과는 무관하며, 특수조사가 체언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도 특수조사 앞에서 격조사가 생략된 것이거나 또는 불정격(不定格)에 특수조사가 연결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학교문법에서 ‘보조사’라는 용어를 쓰

는데 이관규(2012: 138)에 따르면 ‘보조사는 체언 등의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지는 않고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주는 조사’이다. 본고는 학교 문법에 따라 보조사라는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겠다.

보조사의 목록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현배(1975: 638~647)에 따르면 보조사는 ‘은/는, 도, 만, 뿐, 마다, 씩, 부터, 까지, 야/이야, 야말로/이야말로, 니들/인들, 라도/이라도, 나/이나, 든지/이든지, 조차, 마저, нама/이나마, 커녕, 서견’ 등 19개가 있다. 성광수(1979)에 따르면 보조사는 13 개가 있고 그 목록은 ‘야, 라도, 는, 도, 만, 조차, 마저, нама, 부터, 까지, 다가, 씨, 서’이다. 홍사만(1983)은 보조사의 목록은 ‘는, 도, 만, 뿐, 조차, 까지, 마저, 야, 나, 든지, 라도, нама, 부터, 밖에, 마다, 인들’ 등 16 개가 있다고 하였다. 보조사의 목록에 관한 논의는 본고의 논의 주제와 큰 상관이 없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립대사전』에서 인정하는 보조사는 모두 그 목록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최현배(1975: 638~647)에서 보조사 나타내는 뜻의 다름을 따라 보조사를 크게 15가지로 나누었다. 각각 다름을 나타내는 ‘은/는’, 한가지를 나타내는 ‘도’, 홀로 나타내는 ‘만, 뿐’, 한결을 나타내는 ‘마다, 씩’, 비로함을 나타내는 ‘부터’, 마침을 나타내는 ‘까지’, 특별함을 나타내는 ‘야/이야, 야말로/이야말로’,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니들/인들, 라도/이라도’, 가림을 나타내는 ‘나/이나, 든지/이든지’, 어림을 나타내는 ‘나/이나’, 더함을 나타내는 ‘조차’, 끝남을 나타내는 ‘마저’, 덜참을 나타내는 ‘나마/이나마’, 그만두기를 나타내는 ‘커녕’, 쉬음을 나타내는 ‘서견’이다. 채완(1977)에서는 보조사 ‘는, 도, 만, 야, 나, нама, 까지, 조차, 마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채완(1977)에 따르면 ‘는, 도, 만’은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 어떤 가치를 주는가에 따라 서로 구별된다. ‘는’은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도’는 같은 가치를, ‘만’은 반대의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는’은 또한 화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야’는 ‘는’이 가진 ‘대조’의 의미를, ‘나, 나마’는 ‘만’이 가진 ‘단독’의 의미를, ‘까지, 조차, 마저’는 ‘도’가 가진 ‘역시’의 의미를 공유한다.

Ⅲ. ‘-고X’의 의미·통사적 특징

같은 형태를 가진 ‘-고X’라도 이미 어미화된 ‘-고X¹’, 그리고 ‘-고’와 조사 ‘X’의 결합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X²’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교재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아주 혼란스럽다. 아래는 교재에서 ‘-고는’에 대한 설명과 예문이다.

「요녕」 제3권

설명: 연결어미 ‘-고’와 조사 ‘는’이 결합된 연결어미이다. 어미 ‘-고’가 나타낸 선후관계, 원인 등 내용을 강조한다.

예문: 일을 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다.

영희가 아침을 먹고는 학교로 간다.

「연세」 제3권

설명: 앞의 동작이나 행위를 완성한 후에 뒤의 동작이나 행위를 진행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 단어를 배우지 않고는 말을 배울 수가 없다.

내 말을 듣고는 그냥 나가 버렸어요.

예로 제시된 교재 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와 ‘는’의 결합으로 볼 수 없는 ‘-고는’을 ‘-고’와 ‘는’의 결합이라 설명하였다. ‘일을 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다.’의 경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는’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며 어미화된 ‘-고는’의 용법이다. 하지만 「요녕」 제3권에는 ‘-고’와 ‘는’의 결합형이며 계기나 원인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둘째, 용법이 다른 ‘-고는’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였다. ‘단어를 배우지 않

고는 말을 배울 수가 없다.’와 ‘내 말을 듣고는 그냥 나가 버렸어요.’의 ‘-고는’의 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세」 제3권에 ‘선후관계’의 의미로 하나로 묶어 설명하였다.

3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2절에 어미화가 되었는지에 따라 ‘-고_x’에 대해 분류하는 것을 시도하겠다. 그 다음에 3, 4절에 각 부류의 ‘-고_x’의 의미·통사적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고_x¹’의 판별 기준과 결과

1) ‘-고_x¹’의 판별 기준

조사와 결합하여 어미화된 연결어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상태(1988), 서태룡(1988), 백낙천(2003) 등이 있고, 사전 표제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와 연결어미의 결합형을 분류한 논의는 고영근(1975), 이희자(1996), 임동훈(1998), 김종록(2008)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어미화되었는지의 판단 기준은 주로 어미활용상의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라는 체계에서 검토되었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어미화된 ‘-고_x¹’의 판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세우겠다.

첫째, ‘-고_x¹’은 ‘-고’와 비교할 때 의미·통사 기능의 변화가 생겼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고_x’로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고’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통사적인 특징이 변화가 일어날 때 ‘-고_x’는 어미화된 연결어미이다.

‘-고도’를 의미 기능 변화의 예로 설명하겠다.

- (1) 밥을 **먹고도**¹ 배고프다. 밥을 **먹어도** 배고프다.
- (2) (‘-고도¹’과 같은 의미를 가진 ‘-고’의 예문이 없다)
- (3) **예쁘고도**² 신기하다. **예쁘며** 신기하다.

(4) 크고 무게가 있다. 크며 무게가 있다.

(1)의 ‘-고도¹’은 ‘-어도’와 바꿀 수 있으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양보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고’의 경우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도¹’은 어미화된 ‘-고_x¹’이다.

(3)의 ‘-고도²’는 ‘-며’로 바꿀 수 있으며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4)의 ‘-고’는 (3)의 ‘-고도²’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고도²’는 ‘-고’에 비해 의미와 통사적인 특징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고’와 ‘x’가 결합한 연결어미이다.

이어서 통사적인 특징의 변화로 어미화되었는지를 판별하는 예시를 설명하겠다.

(5) 잠을 자지 **않고**는¹ 살 수가 없다./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6) 밥 안 **먹고** 어찌 삽니까?/ 밥 안 **먹으면** 어찌 삽니까?

(5)의 ‘-고는¹’은 ‘-면’으로 바꿀 수 있으며 선행절이 후행절의 조건이 되게끔 문장을 이어준다. (6)의 ‘-고’도 ‘-면’을 바꿀 수 있어 조건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6)의 ‘-고’는 수사의문문에만 사용된다는 제약을 받는다. 아래 (7)과 같이 평서문에 조건의 ‘-고’를 쓴다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그와 달리 ‘-고는¹’은 (8~11)과 같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두루 쓰일 수 있다.

(7) *밥 안 **먹고** 살 수 없다.

(8) 약을 먹지 **않고는**¹ 안 된다.

(9) 약을 먹지 **않고는**¹ 안 되나?

(10) 눈으로 보지 **않고는**¹ 믿지 마라.

(11) 눈으로 보지 **않고는**¹ 믿지 말자.

이렇게 통사적인 특징의 차이가 있으므로 ‘-고는¹’은 어미화된 연결어미이다.

(12) 밥을 먹고는² 나가 버렸다./ 밥을 먹은 후에 나가 버렸다.

(13) 숙제하고 갔다./ 숙제한 후에 갔다.

(12)의 ‘-고는²’는 ‘-ㄴ 후에’로 바꿀 수 있어 ‘계기’의 의미를 나타낸다.

(13)의 ‘-고’도 마찬가지로 ‘-ㄴ 후에’로 바꿀 수 있어 ‘계기’의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고는²’는 ‘계기’의 ‘-고’와 같은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다.

(14-1) 철수가 밥을 먹고는²/ 먹고 나가 버렸다.

(14-2) *철수가 밥을 먹고는²/ 먹고 연희가 나가 버렸다.

(14)의 ‘-고는²’는 ‘-고’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문장이 성립된다.

(15-1) 연희가 예뻐지고는²/ 예뻐지고 남자 친구가 생겼다.

(15-2) *연희가 예쁘고는²/ 예쁘고 남자 친구가 생겼다.

(15)를 통하여 ‘-고는²’는 ‘-고’와 같이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1) 철수가 밥을 먹고는²/ 먹고 나가 버렸다.

(16-2) *철수가 밥을 먹었고는²/ 먹었고 나가 버렸다.

(16)을 통하여 ‘-고는²’와 ‘-고’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1) 철수가 밥을 먹고는²/ 먹고 나가 버렸다.

(17-2) 철수는 밥을 먹고는²/ 먹고 어디 갔어?

(17-3) 밥을 먹고는²/ 먹고 나와라.

(17-4) 밥을 먹고는²/ 먹고 나가자.

(17)은 종결법에 관한 예문들인데 ‘-고는²’와 ‘-고’는 종결법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위와 같이 ‘-고는²’와 ‘-고’는 의미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특징도 같다. 따라서 ‘-고는²’는 ‘-고’와 ‘는’의 결합형이다.

둘째, 보조사가 탈락해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변함이 없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기준이라기보다 첫째 기준으로 판별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18) 마음 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무너지고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18)처럼 ‘-고야’로 연결된 문장을 ‘-고’로 연결하면 비문이 된다. ‘-고야’는 ‘-고’가 가지지 않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야’가 (18)처럼 쓰일 때 어미화된 ‘-고_x¹’로 간주해야 한다.

2) ‘-고_x¹’의 판별 결과

위와 같은 판별 기준에 따라 ‘-고_x’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미화된 ‘-고_x¹’>:

a. 조건의 ‘-고_x¹’: -고는/-곤, -고야, -고라야

b. 양보의 ‘-고_x¹’: -고도, -고라도

<조사 결합형 ‘-고_x²’>:

- a. 계기의 ‘-고_x²’: -고는/곤,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 b. 방법이나 동시의 ‘-고_x²’: -고도, -고라도,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 c. 병렬의 ‘-고_x²’: -고도
- d. 첨가의 ‘-고_x²’: -고도
- e. 조건의 ‘-고_x²’: -고야

관별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은 2절과 3절에서 개별 ‘-고_x’의 의미와 통사적인 특징에 대해 기술할 때 자세하게 논의하겠다.

2. 어미화된 ‘-고_x¹’

1) 조건의 ‘-고_x¹’

조건의 의미를 가진 ‘-고_x¹’은 ‘-고는/-곤’, ‘-고야’, ‘-고라야’ 등 3가지가 있다.

① -고는/-곤

‘-고는’이 『국립』, 『고려』, 『연세』 등 사전에 표제어로 등록 여부는 다르게 나왔다. 『국립』, 『고려』에서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는 반면에 『연세』에서는 ‘-고는’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결합형의 표제어 선정기준에 대하여 각 사전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하지만 다른 결합형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국립』의 경우는 표제어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일러두기에서 분명히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전에 비하면 공시적인 시각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결합형들을 뜻풀이 부분에 밝혀 준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고야’의 경우는 ‘동작이나 행위가 계속되거나 끝났음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 연결 어미 ‘-고’에 보조사 ‘야’가 붙은 말.’로, ‘-니까는’의 경우는

‘-니까’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니까’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말이다.’로, ‘-느니만’의 경우는 ‘비교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미 ‘-느니⁰¹’에 보조사 ‘만¹⁴’이 결합한 말이다.’로 설명하였다. 이것을 근거하여 뜻풀이 부분에 위와 같은 설명이 없으면 공시적인 시각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는’의 경우는 『국립』에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는데 설명부분에 연결어미 ‘-고’와 조사 ‘-는’의 결합하였다는 설명이 없다. 『국립』은 ‘-고는’이 공시적인 시각으로 형태소 분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려』는 다른 사전에 비하면 실제 사용 빈도에 따른 표제어 선정, 그리고 형태 정보 부분에서는 한국어 형태론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복합어에 대하여 형태소 단위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특징이 있다.¹¹⁾ 연결어미와 조사의 결합형의 경우도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면 형태분석 내용이 적혀 있다. ‘-고는’의 경우는 형태소 분석에 [-고+는]으로 나타났다. 『고려』는 ‘-고는’를 ‘-고’와 ‘는’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연세』는 한국어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며, 이에서 각 낱말의 빈도(사용 회수)에 따라 2,000여 쪽의 사전에 올릴 낱말들의 목록을 작성한 결과, 사용 빈도 14이상인 되는 약 5만의 낱말들을 선정하게 되었다.¹²⁾ 이런 설명으로 표제어 선정의 기준을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애초에 어떤 낱말들을 빈도수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선발의 대상이 되어야 다른 낱말들과 경쟁하여 출현 빈도수가 더 높으면 표제어로 등록되거나 아니면 낙선되겠지만, 애초 선발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했으면 빈도수와 무관하여 낙선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고려』에도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는’이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고는’의 출현 빈도가 반드시 낮다고 할 수가 없고

1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대한 소개 참조.

1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 『연세한국어사전』에 대한 소개 참조.

애초에 다른 낱말과 출현 빈도의 비교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고는’이 표제어로 선정된 『국립』과 『고려』의 기술 내용을 보겠다.¹³⁾

『국립』:

-고는: 「어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흔히 뒤에는 부정 형식이 온다.

<예문>:

그는 남에게 빗지고는 못 배기는 성미였다.

돌보기가 아니고는 글을 못 보시는 모양이셨다. 《김구, 백범일지》

천주쟁이를 혹독하게 다스린다 해서 비난하는 백성은 그놈의 무리를 빼놓고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서기원, 조선백자 마리아상》

막걸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마음대로 크게 웃을 권리도 없고…. 《김동인, 운현궁의 봄》

『고려』:

-고는: 「연결 어미」 ((형태분석: [-고+는]))

용언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에 대한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말. 주로 뒤에는 부정 형식이 온다.

<예문>:

그녀는 지고는 못 배기는 성미이다.

김 영감은 모자를 쓰지 않고는 집밖에 나가지를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전의 기술을 통하여 『국립』은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는’이 공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형태소 분석 불가능한 결합형이라는 입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고는/곤 하다’의 경우는 반복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라 논외로 하겠다.

『고려』는 『국립』과 달리 같은 의미를 가지는 ‘-고는’이 ‘-고’와 ‘는’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가진다.

김종록(2008: 73~75)는 보조사 ‘는’의 결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를 분석하며 ‘-고는/-곤’은 ‘계기’, ‘습관적 반복’, ‘조건’ 등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계기’의 의미를 나타낼 때 단순 ‘-고’와 ‘는’의 결합으로 보며 ‘습관적 반복’,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 문법화가 완료된 단일 접속어미로 보았다.

(19) 영수는 밀린 일을 모두 끝내-**{곤, 고는}** 집으로 향했다. (김종록 2008: 74)

(20) 막걸리의 힘을 빌지 않-**{곤, 고는, 으면}** 마음대로 크게 웃을 권리도 없다.
(『국립』)

(21) 돌보기가 아니-**{곤, 고는, 으면}** 글을 못 보시는 모양이셨다. (『국립』)

김종록(2008: 73~75)에 따르면 (19)의 ‘-곤’은 ‘-고는’의 축약형이며, ‘계기’ 관계 접속어미 ‘-고’에 ‘차이’ 보조사 ‘는’이 단순히 통합되어 쓰인 것으로써, 보조사 ‘는’을 생략해도 문장의 문법성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19)의 ‘곤’은 단순 통합형일 뿐, 문법화가 완료된 단일어미라고 할 수 없다. (20, 21)의 ‘-곤’은 ‘조건’ 관계 접속어미 ‘으면’과 교체되어 쓰일 수 있어 선행절이 후행절의 ‘조건’이 됨을 나타낸다. 또한, 후행절에 흔히 ‘못하다, 않다, 없다’ 등 부정의미를 가진 표현이 쓰인다. 이렇게 ‘-고’와 다른 의미·통사적 특징을 가지는 것을 봐서 ‘-곤’은 단일 접속어미로 봐야 한다.

따라서 ‘-고는’은 ‘계기’와 ‘조건’의 의미를 가지며, ‘계기’의 의미로 쓰일 때 ‘-고는’은 ‘-고’와 ‘는’의 결합이고, ‘조건’의 의미로 쓰일 때 어미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곤’은 ‘-고는’의 축약 형식으로써, 용법이 ‘-고는’과 동일하다.

② -고야

‘-고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야’로 바꿀 수 있는 경우, 하나는 ‘-면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이다. ‘-면야’로 바꿀 수 있을 때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 ‘-고’와 조사 ‘야’의 결합형이라 4절에서 논의하겠다. 이 부분에는 ‘-어야’로 바꿀 수 있는 ‘-고야’를 중심으로 하고 논의하겠다.

(22) 내 삶이 편하고 **풍족하고야/풍족해야** 성현의 말씀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23) 한국이 **있고야/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있어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4)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무너지야**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22-1) *내 삶이 편하고 **풍족하고** 성현의 말씀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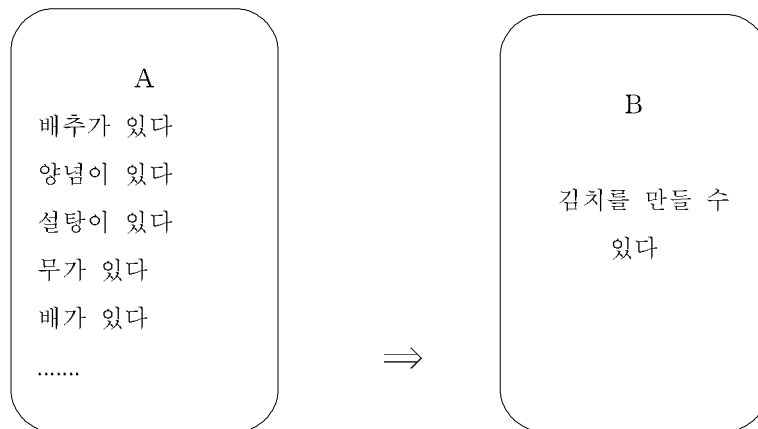
(23-1) *한국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4-1)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22~24)처럼 ‘-고야’는 ‘-어야’로 바뀌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는 내 삶이 편하고 풍족해야 성현의 말씀도 의의가 있다는 것, (23)은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어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다는 것, (24)는 마음 속에 38선이 무너지야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내 삶이 편하고 풍족하지 않으면 성현의 말씀은 의의가 없게 되고, 한국이 없으면 한국 사람이 없고, 한국 사람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24)도 마찬가지로 마음 속에 38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선행절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후행절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조사 ‘야’가 없이 ‘-고’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22-1~24-1)은 ‘마음 속에 38선이 무너진 후에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처럼 계기로 해석할 수 있는 (24-1)을 제외하고는 (22-1, 23-1)이 모두 비문이다. 위와 같은 예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는 ‘-고’가 보유하는 어느 의미로도 해석할 수 없다. 즉, ‘-어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고야’는 어미화된 어미이다.

하지만, 선행절의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후행절이 이루어질 것인가? ‘배추가 있고야 김치를 만들 수 있다’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 2> 필수 조건

<그림 2>처럼 B칸의 ‘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명제가 성립시키려면 A칸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자. <그림 2>에 따르면 ‘배추가 있고야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알맞은 문장이다. ‘-고야’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③ -고라야

이어서 말뭉치에서 검색된 ‘-고라야’에 관한 예문을 통하여 ‘-고라야’의 의미를 검토하겠다.

- (25) 어떻게 해서라도 시원스러운 해석을 **내리고라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26) 으레전 매도 계약까지 첨부한 부동산을 저당 **잡고라야** 돈을 주지만,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대개 수형을 받고서 거래를 합니다.
 (25-1) *어떻게 해서라도 시원스러운 해석을 **내리고** 마음이 놓일 것 같다.
 (26-1) *으레전 매도 계약까지 첨부한 부동산을 저당 **잡고** 돈을 주지만,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대개 수형을 받고서 거래를 합니다.

말뭉치의 검색 결과를 보면 ‘-고라야’는 (25, 26)과 같은 두 문장에서만 나타났다. (25, 26)의 ‘-고라야’를 ‘-고’로 바꾼 후에 (25-1, 26-1)처럼 비문이 되기 때문에 ‘-고라야’는 어미화된 어미이다. ‘-고라야’는 후행절 행위를 이루려면 선행절 같은 행위가 꼭 실행되어야 한다는 필수적인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 (25-2, 26-2)처럼 ‘-고라야’를 ‘-고야’나 ‘-어야’로 바꿔도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5-2) 어떻게 해서라도 시원스러운 해석을 **내리고라야/내려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26-2) 으레전 매도 계약까지 첨부한 부동산을 저당 **잡고라야/잡아야** 돈을 주지만,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대개 수형을 받고서 거래를 합니다.

④ 조건의 ‘-고^{x1}’의 통사적인 특징

i. -고는/-곤

우선 (27, 28)을 통하여 ‘-고는/-곤’이 주어 동일 제약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7) 막걸리의 힘을 빌지 **않고는/곤** 마음대로 크게 웃을 권리도 없다. (『국립』)
 (28) 돌보기가 **아니고는/곤** 글을 못 보시는 모양이셨다. (『국립』)

(27, 28)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 ‘-고는’이다. (27)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예문이고 (28)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른 예문이다. (27, 28)을 통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이 주어 동일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29)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다.
- (30) 준비하지 **않고**는 합격이 불가능하다.
- (31) 모질고 독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 (32) 훌륭하지 **않고**는 합격이 불가능하다.
- (33) 돌보기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29)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모두 동사이다. (30)의 선행절이 동사이고 후행절은 형용사이다. (31)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모두 형용사이다. (32)의 선행절이 형용사이고 후행절이 동사이다. 이렇게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동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다. ‘명사+이다’가 ‘-고는’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33)에서 보이듯이 술어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기보다 ‘-고는’은 부정표현과만 어울리는 제약을 받아서 ‘명사+이다’가 술어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34) 술 마시지 **않고**는 못 살겠다.
- (35) 술 마시지 **않고**는 못 살겠어?
- (36) 재수하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 (37)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말자.

말뭉치의 결과에 따르면 ‘-고는/-곤’은 평서문으로 끝내는 문장과 잘 어울리지만, (34~37)처럼 의문문이나 명령문, 그리고 청유문에도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추측의문문에서는 ‘-고는’이 잘 쓰이지 않는다.

(38) *이 책을 보지 **않고**는 시험에 떨어질까?

그밖에 ‘-고는’에 의해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는 아래 (39~41)처럼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어야 한다.

(39) *열심히 **하**고는 실패할 리가 없다.

(40) *그렇게 성격이 나쁘지 **않고**는 그녀와 사귄 수 있다.

(41) *비가 **오**고는 허리가 아프다.

‘-고는’은 조건의 의미로 쓰일 때 아래 (42-1, 42-2)와 같이 앞에 시상어미가 쓰일 수 없다.

(42-1) *술 마시지 **않겠**고는 못 살겠다.

(42-2) *술 마시지 **않았**고는 못 살겠다.

ii. -고야

(43~45)를 통하여 ‘-고야’가 주어 동일 제약을 받는지를 보겠다.

(43) 내 삶이 편하고 **풍족하**고야 성현의 말씀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44) 마음 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45) 그래서 인생관이 **서**고야 제 것 삶이고, 연애 아닌 결혼관이 서지 **않**고는 흉내내길 싫어했던가 보다.

(43~45)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 ‘-고야’에 관한 예문이다. 세종 말뭉치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조건’의 용법으로 쓰인 ‘-고야’로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가 없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주어가 같으면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6) *공부를 열심히 **하**고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47) *얼굴이 하얗고야 예쁘다.

(46, 47)의 경우는 ‘-고야’를 쓰는 것보다 ‘-아/어야’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고야’는 주어가 달라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서술어의 유형은 (43)의 경우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형용사이며, (44)의 경우는 선행절과 후행절은 모두 동사이다. (45)의 경우는 선행절이 동사이고 후행절이 ‘명사+이다’이다. 그 외에도 아래 (48, 49)처럼 선행절이 형용사이고 후행절이 동사인 경우가 있다.

(48) 내 삶이 편하고 풍족하고야 우리 부모님이 안심하신다.

(49) 부모님이 건강하시고야 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따라서 예문에서 확인하였듯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 ‘-고야’는 서술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고는/-곤’은 보통 평서문으로 끝나지만 아래와 같이 수사의문문과도 어울려서 쓸 수 있다. 선행절과 같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쓰여서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어울리지 못한다.

(50) 마음 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지 않은가?

말뭉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고야’ 앞에는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iii. -고라야

마지막으로 ‘-고라야’의 통사적 특징을 보겠다. ‘-고라야’는 세종 말뭉치에서 두 개의 예문밖에 검색되지 않았다. 평소에 많이 쓰이지 않은 연결어미이고 아래와 같이 ‘-어야’로 바뀌도 의미 관계에 영향이 없다.

- (51) 어떻게 해석라도 시원스러운 해석을 내리고라야/내리고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52) 으레건 때도 계약까지 첩부한 부동산을 저당 잡고라야/잡고야 돈을 주지만,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대개 수형을 받고서 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고라야’의 통사적인 특징도 ‘-어야’와 같을 것이라고 보며 평소에 ‘-고라야’보다 ‘-어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고는’, ‘-고야’, ‘-고라야’의 의미·통사적인 특징을 표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2> 조건 의미인 ‘-고x1’의 의미·통사적인 특징

목록	의미	통사적인 제약				
	비슷한 연결어미	주어	술어	종결법	시상어미	기타
-고는	-면	계약 없음	계약 없음	추측의문문은 계약 받음	x	선·후 행 질 술어: 부정의미
-고야	-어야	주어가 달라야 함	계약 없음	평서문, 수사의문문만 가능	x	없음
-고라야		계약 없음				

⑤ 조건 연결어미의 차이

i. ‘-고는’과 ‘-고야’, ‘-고라야’의 차이

<표 2>에서 보았듯이 조건 의미인 ‘-고x1’은 ‘-면’으로 바꿀 수 있는 ‘-고

는'과 '-어야'로 바꿀 수 있는 '-고야', '-고라야'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갈래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래의 예문 (53)과 같이 '-고야'와 '-면'은 서로 대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53) A: 둘이 같이 사니까 유부녀가 됐네.

B: (ㄱ) 유부녀는 무슨. 결혼을 하고야 유부녀이지.

(ㄴ) *.....결혼을 하면 유부녀이지.

'-고야'를 쓰는 (ㄱ)은 올바른 문장이지만 '-면'을 쓰는 (ㄴ)은 비문이다. '-고야'는 이미 논의하였는데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ㄴ)이 비문이 된 이유가 (ㄴ)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라 비문이 된 것이 아니라 언어 환경에 맞지 않아서 비문이 되었다. 만약 (53)과 같은 대화 아닌 다른 대화, 혹은 단독적 쓰이면 올바른 문장이 될 수도 있다.

(53-1) 결혼을 하면 유부녀이다.

(53-1)은 올바른 문장이다. '-면'은 조건을 나타내는데 '가정'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53-1)의 문장은 유부녀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결혼을 하면 그럼 유부녀가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어야'와 '-면'은 모두 '조건'을 나타내는데 '-어야'는 필수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면'은 '가정'의 의미를 보다 더 많이 가진다.

ii. '-고는'과 '-면'의 차이

‘-고는’에 의해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검토한 내용이다. ‘-고는’과 ‘-면’의 이런 통사적인 차이는 둘의 의미적인 차이도 생기게 하였다.

(54)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54)처럼 ‘-고는’은 두 번의 부정으로 ‘꼭 자야 하다’는 의미를 더 강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고는’은 미지 사건에 대한 화자의 확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추측의문문과 어울려서 쓰이지 못한다. 그와 달리 ‘-면’은 그런 제한이 없다.

(55) 이 책을 보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

(56)* 이 책을 보지 **않고**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

(55)와 (56)처럼 미지 사건에 대한 화자의 확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때 ‘-면’만 가능하다. 그래서 ‘-고는’과 ‘-면’의 차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고는’과 ‘-면’의 차이

어미	-고는	-면
의미	‘-고는’은 ‘-면’보다 단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통사	a.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어야 한다. b. 추측의문문에 쓰이지 못한다	a. 술어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 b. 종결법에 제한이 없다

iii. ‘-고야’, ‘-고라야’와 ‘-어야’의 차이

‘-고야’, ‘-고라야’가 주로 문어적인 표현에 더 많이 쓰인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야’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

2) 양보의 ‘-고_x’

양보 의미를 가진 ‘-고_x’은 ‘-고도’와 ‘-고라도’ 두 가지이다.

① -고도

i. ‘-고도’에 대한 기존 연구

‘-고도’가 『국립』, 『고려』, 『연세』 등 사전에서 표제어로 등록 여부는 다르게 나왔다. 『국립』, 『고려』에서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는 반면에 『연세』에서는 ‘-고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는’ 부분에서 논의하였듯이 『국립』의 경우는 표제어로 선정된 결합형의 뜻풀이 부분에 만약 “어미 ‘xx’에 보조사 ‘xx’이 결합한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공시적인 시각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고도’의 경우는 『국립』에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만 설명부분에 연결어미 ‘-고’와 조사 ‘-도’가 결합하였다는 설명이 없다. 이것으로 보면 ‘-고도’를 이미 공시적인 시각에서 형태소를 분리할 수 없는 결합형으로 본 것이다.

『고려』는 형태소 분석 가능한 결합형들에 대해 형태분석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고는’ 부분에 형태소 분석을 하였다. ‘-고도’의 경우는 형태소 분석에 [-고+도]로 나타났다.

이어서 ‘-고도’가 표제어로 선정된 『국립』과 『고려』의 기술 내용을 보겠다.

『국립』:

-고도: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나 ‘-으시-’ 뒤에 붙어))

어떠한 사실이나 느낌을 나타내면서, 뒤이어 이에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즐고도 즐지 않은 체하다

오시고도 연락을 안 하셨다니 섭섭합니다.

『고려』:

-고도: 「연결 어미」 ((형태분석: [-고+도]))

용언이나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어떠한 사실이나 느낌을 나타내면서 뒤이어 이에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동생은 몰래 내 빵을 먹고도 먹지 않은 체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느낌을 나타내면서 뒤이어 이에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고도’에 대해 『국립』은 형태소 분석 불가능하다는 입장, 그리고 『고려』는 ‘-고’와 ‘도’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립』과 『고려』의 예문을 보면 형용사와 동사의 용례를 모두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용사 부분에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똑같은 용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더 고심해야 하는 것은 서술어가 형용사일 경우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고도’는 ‘비슷한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고도’와 다른 의미를 가진 ‘-고도’인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와 ‘슬프고도 참담하다’의

‘-고도’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가?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고도’에 의해서 나타냈는가? 아니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에 의해서 나타냈는가? 더 나아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슬프고도 참담하다’의 ‘-고도’처럼 ‘-고’와 ‘도’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점은 이 절에 다룰 내용 중의 하나다.

‘-고도’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논저에서 논의해 왔다. ‘-고도’를 보조사 ‘-도’ 통합형 연결어미의 일원으로 다룬 논문은 김종록(2010)과 함병호(2013) 등이 있으며, 양보 연결어미나 대립 연결어미 중의 하나로 다룬 논문은 장요한(2009), 이선영(2011) 등이 있고, ‘-고도’를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논술하는 논문은 김찬화(2008) 등이 있다.

- (57) 멀-(고도¹, 고 또한, *ㄴ데도 불구하고) 먼 인생길을 걸어왔다. (김종록 2010: 171)
- (58) 길-(고도¹, 고 또한, *ㄴ데도 불구하고) 긴 다리를 겨우 건넜다. (김종록 2010: 171)
- (59) 슬프-(고도², *고 또한, ㄴ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국립』)
- (60) 그는 졸-(고도², *고 또한, 앓는데도 불구하고) 졸지 않은 채했다. (김종록 2010: 171)
- (61) 서울에 오-(고도², *고 또한, 썼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하셨다니 섭섭합니다. (『국립』)

김종록(2010: 171)에서, (57, 58)의 ‘-고도¹’은 ‘-고 또한’으로 교체될 수 있어, ‘선행어의 의미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첨가]’하는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고, 해당 구절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59~61)의 ‘-고도²’는 ‘-는데도 불구하고’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양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고도’의 용법을 ‘첨가’를 ‘강조’하는 ‘-고도¹’와 ‘양보’의 의미를 지니는 ‘-고도²’로 나누었다.

제시된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절과 후행절 같은 형용사를 쓰는 경우 ‘첨가+강조’의 의미로 다루고 반대된 의미일 때는 ‘양보’의 의미로 다루었다. 비슷한 의미일 경우는 예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후술된 ‘-고서도’와 ‘-고도’의 비교 부분의 예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어께 번호 ‘1’을 표기하고 전술된 ‘-고도’와 같은 ‘첨가+강조’ 의미로 간주하였다.

- (62) 이 옷은 예쁘-(*고서도¹, 고도¹) 실용적이다.
- (63) KTX는 빠르-(*고서도¹, 고도¹) 안전하다.
- (64) 이 책은 재미있-(*고서도¹, 고도¹) 유익하다.

정리하자면 서술어가 형용사일 경우 김종록(2010: 171~174)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진다.

- 같은 형용사의 반복: 첨가+강조
-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 첨가+강조
- 반대된 의미를 가진 형용사: 양보

그럼 여기서 제기할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술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일 경우는 ‘-고도’가 ‘첨가’의 의미를 가지는가? 아니면 병렬의 의미를 가지는가? ‘예쁘고도 실용적이다’와 ‘실용적이고도 예쁘다’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 순서가 바뀌면 의미에 영향을 어떻게 끼쳤는지에 따라 ‘-고도’의 의미가 결정된다. 본고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일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다고 본다. 즉, 술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일 경우 ‘-고도’는 ‘첨가’가 아닌 ‘병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둘째, 술어가 반대된 의미를 가진 형용사일 경우 ‘양보’의 의미를 과연 가지는가? 필자는 ‘슬프고도 아름답다’와 ‘슬프고도 참

담하다'의 '-고도'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술된 내용에서 이 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다.

함병호(2013: 107~143)에서 먼저 『표준』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고도', '-더라도', '-라도', '-을지라도', '-음에도', '-아/어도' 등 접속어미가 모두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위와 같은 접속어미에서 단일 보조사 '도'를 분석하고, 위와 같은 어미들이 '양보'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은 '도'때문이라고 하였다. '도'의 기본의미가 '추가'이고 아래 (65)처럼 '대안 집합 상징 -> 선택 -> 추가'의 과정에서 극단(extremity)의 항목을 '추가'하므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65) (초롱이는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초롱이는 대통령도 당선될 사람이다. (함병호 2013: 128)

(65)는 '학생회장<.....<국무총리<대통령'과 같은 집합에서 극단적인 '대통령'이 추가되므로 양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함병호(2013: 129)의 각주에서도 말했듯이 척도성이 없고 '대안 집합'의 항목이 적더라도 후행절이 선행절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면 아래 (66)과 같이 '양보'의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 양보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검토 대상으로 된다.

(66) 우리 일행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함병호 2013: 133)

장요한(2009)와 이선영(2011)에서 '-고도'를 양보와 대립 범주의 한 연결어미로 삼아, 다른 연결어미와 비교하였다. 장요한(2009: 492~498)에서 '-고도'는 선행절이 사실적 사태일 때만 사용된다는 특징으로 다른 양보 연결어미와 구별하며, 이선영(2011: 82~84)에서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시간상으로 먼

저 이루어져야 하며, 대립의 의미를 지닌 ‘-도’를 통해 선행절의 사실 또는 행동과 후행절의 내용이 관련성은 있지만 후행절의 내용이 예상과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상된 결과가 아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나 좋지 않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후행절에는 ‘-지 않다’나 ‘-지 못하다’, ‘모르다’와 같은 부정적 표현이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내용보다 일회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쓰일 때 자연스럽다고 덧붙이었다.

장요한(2009: 496)에서 ‘사실적 사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실성 (factuality)’, ‘비사실성(non-factuality)’, ‘반사실성(counter-factuality)’의 개념을 밝혔다. 비사실적 해석(비사실성)은 사건에 대해 참과 거짓이 부여되지 않은 의미 특성이고, 반사실적 해석(반사실성)은 사건에 대해 거짓이 부여된 의미적 특성이다.

(67) 비가 **와도** 우리는 출항할 것이다. (장요한 2009: 497)

(68) 영이가 **붙잡아도** 철수는 밖으로 나갔다. (장요한 2009: 497)

(69) 눈이 **왔어도** 산에 갔었을 것이다. (장요한 2009: 497)

(67)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비사실적 사건으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68)은 사실적 사건으로, (69)는 반사실적 사건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아도’의 경우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사실적, 비사실적, 반사실적 사건이 모두 가능한 표현이다. 그러나 아래 (70)처럼 ‘-고도’가 이끄는 접속문은 사실적 사건만 가능한 표현으로 보인다.

(70) 장군은 어깨에 총을 **맞고도** 전선에 뛰어 들었다. (장요한 2009: 497)

장요한(2009: 497~498)에서는 위와 같은 예를 근거로 하여 ‘-고도’가 선행

절이 사실적 사태일 때만 사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문을 보면 비사실적 사건일 때도 ‘-고도’가 활발히 사용되어 있다.

(71) 창고 속에 수만 금을 쌓아 놓고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권좌 위에 높이 앉아서도 영혼이 화평을 못 얻고 있다면 그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72) 복부자와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의 3년의 차이는 평생을 두고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71)은 ‘-다면’이 가정을 나타내고, 가정의 내용은 ‘창고 속에 수만 금을 쌓아 놓고도 마음이 불편하다’ 전체이다. 그럼 ‘창고 속에 수만 금을 쌓아 놓다’는 것도 당연히 사실일 수 없다. 특히 (72)의 경우 ‘평생을 두고도’를 통하여 극한 가정을 표현하였다. 이런 예문을 통하여 ‘-고도’가 사실적 사건에만 쓰이지 않고 비사실적 사건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고도’가 양보의 의미로 쓰일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도 이어서 검토할 내용이다.

이선영(2011)에서 ‘-도’가 대립의 의미를 지닌다는 관점이 마땅하냐의 문제를 간과하더라도 우선 ‘-고도’의 의미가 양보인가 대립인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고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내용과 쓰일 때도 자연스럽다.

(73) 물 속에 발을 담그고도 즐다니.

(74) 물증 갖고도 내사 중단

김찬화(2008)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중국 현지에서 발표하는 논문으로써 한국어 교육에 입각하여 ‘-고도’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중국 학생들이 ‘-고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사용할 때 오

류가 생긴 것과 중국 교육 현장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교사의 모습을 논문을 통하여 선보이고 논문에서 중국학생들이 ‘-고도’ 사용시의 오류 현상을 검토한 후 ‘-고도’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두 가지 이상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 ‘그리고/아주 그렇다’의 뜻을 가진다. 이때 ‘-고도’가 나타내는 의미는 연결어미 ‘-고’의 의미와 비슷하며 ‘-도’의 붙음으로 강조의 뜻을 더한다. 둘째, 선행절은 후행절의 전제조건인 것을 나타낸다. 이때 ‘-고도’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와 같은 자격을 가지는데 ‘-도’의 붙음으로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이 선행절이 나타내는 의미만으로도 후행절의 실현이 가능성을 강조한다. 셋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알다-모르다’, ‘먹다-안 먹다’, ‘말을 하다-말을 안 하다’ 등과 같이 아주 선명한 대립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의 의미와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예문을 각각 두 개씩 제시하였다.

- (75) 즐겁고도 보람있는 주말을 보냈다(김찬화 2008: 6).
- (76) 예쁘고도 예쁜 애들이다(김찬화 2008: 6).
- (77) 남들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혼자서 할 수 있다(김찬화 2008: 6).
- (78) 경기전반전만 보고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김찬화 2008: 6).
- (79) 알고도 모를 일이다(김찬화 2008: 6).
- (80) 먹고도 안 먹은 채하다(김찬화 2008: 6).

위와 같은 분류가 다른 논저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은 양보나 대립으로 본 분류를 전제조건과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단지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반의어이기 때문에 연결어미에 새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더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75)와 (76)에서 볼 수 있듯이 ‘ 즐겁고도 보람있다’와 ‘예쁘고도 예쁘다’

의 ‘-고’를 같은 의미로 보았다. 논문에서 ‘즐겁고도 보람있다’의 ‘-고’를 ‘그리고’로 해석한 것을 보면 ‘-고’를 선행절과 후행절을 나란하게 연결하는 어미로 본 것이다. 하지만 ‘예쁘고도 예쁘다’의 ‘-고’로 연결하는 두 ‘예쁘다’가 문장에 같은 비중을 가지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금까지 사전과 연구논저에서 ‘-고도’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제기한 의문점을 풀도록 세종 말뭉치에서 검색된 ‘-고도’ 예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검토하겠다.

ii. 양보 의미인 ‘-고도’

아래 (81, 82)는 세종 말뭉치에서 검색된 ‘-고도’에 관한 예문이다.

(81) 그런 곳에까지 현수막을 **내걸고도** 서울시민은 태연해 한다.

(82) 난 이 꼴이 **되고도** 왜 이 꼴이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소.

(81, 82)의 선행절의 행위가 후행절보다 앞선다. 그럼 ‘-고도’를 계기인 ‘-고’와 ‘역시’인 ‘도’의 결합형으로 볼 수 없는가?

(81-1) *그런 곳에까지 현수막을 **내건 후에** 서울시민은 태연해 한다.

(82-1) *난 이 꼴이 **된 후에** 왜 이 꼴이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소.

(81, 82)의 ‘-고도’를 (81-1, 82-1)처럼 ‘-은 후에’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고도’는 단순한 ‘계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81)은 그런 곳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으면 서울 시민이 당황해 할 것을 예상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서울시민은 태연해 한다는 것이다. (82)는 이 꼴이 되었으면 왜 이꼴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았어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즉, (81, 82)는 단순한 ‘계기’ 의미가 아니라 ‘예상 반대’라는 의미를 지닌

다.

이런 검토를 통해서 ‘-고도’에 의해서 연결된 문장은 계기 관계를 가지더라도 ‘-고도’를 단순히 ‘-고’와 ‘도’의 결합으로 볼 수 없으며 어미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고도’라는 연결어미의 의미가 양보 혹은 대립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검토에서 드러났듯이 ‘-고도’를 양보 연결어미의 범주에서 다루는가 하면, 대립 연결어미의 범주에서 다루기도 한다. 또한 ‘대립’과 ‘양보’가 ‘기대부정’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대립’과 ‘양보’를 통합해서 보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보느냐는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오기도 하였다. 통합해서 보는 입장의 대표는 주시경(1910), 최현배(1971), 허웅(1975), 이기동(1977), 서태룡(1979), 남기심·고영근(1993) 등이 있으며, 분리해서 보는 입장의 대표는 이익섭·임홍빈(1983), 윤희현(1989), 전해영(1988), 이은경(2000) 등이 있다.

최근에 들어 분리해서 보는 경향을 보인다. 본고도 역시 분리해서 보는 입장이다. 상술한 분리해서 보는 입장 중에 ‘-고도’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최근의 연구에도 ‘-고도’를 ‘대립’ 연결어미의 일원으로 다루기도 하고 ‘양보’ 연결어미의 일원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본고는 ‘-고도’의 예문을 검토하면서 양보와 대립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왜 ‘-고도’는 대립이 아니라 양보어미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대립과 양보를 구별해서 봐야 하는 견해 중에 선행절 내용이 사실 여부인지를 구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선행절이 사실일 때는 대립절이고, 비사실적인 상황일 때는 양보절이라고 판단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아래 (83)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절이 사실일 때에도 양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83) 엄마는 우리 8공주를 낳고도 튼튼하시다.

양보와 대립의 차이를 찾기 위해 (83)과 아래 (84)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겠다.

(84) 엄마는 우리 8공주를 낳았지만 튼튼하시다.

(83, 84)의 선행절은 모두 사실이다. 또한 엄마는 우리 8 공주를 낳은 후에 튼튼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83)과 (84)는 모두 그 기대와 어긋나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두 문장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84) 엄마는 우리 8공주를 낳았지만 튼튼하시다.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심리:

엄마는 8공주를 낳았으면 튼튼하지 않을 것이다.

7공주를 낳았으면 화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다.

(85) 엄마는 우리 8공주를 낳고도 튼튼하시다.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심리:

(적어도) 엄마는 7공주를 낳았을 때 튼튼하지 않은 것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사실 상황은 그보다 더 많은 딸을 낳았어도 튼튼하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84)는 단지 딸아이 8명을 낳았으면 몸이 튼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83)은 ‘1공주<2공주<3공주...7공주<8공주’와 같은 위계의 집합에 엄마가 딸아이 8명 낳기 이전에 (7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고....한 명일 수도 있다) 튼튼하지 않겠다는 예상을 가진다. 하지만 그 예상을 초과한 아이를 낳았어도 튼튼하다. 함명호(2013: 127~128)에 이것을 척도성이라고 하였다.

(85) (초롱이는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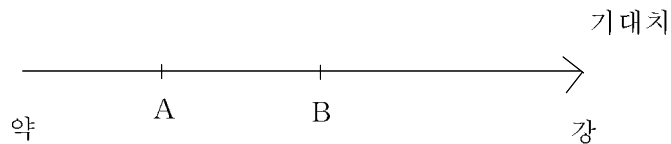
초롱이는 대통령도 당선될 사람이다. (함병호 2013: 128)

함병호(2013: 128)에 따르면 (85)는 ‘학생회장<.....<국무총리<대통령’과 같이 다양한 위계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척도적이다. 임동훈 (2007: 7)에서 이렇게 ‘도’가 척도적일 때에는 ‘모두 포함’이나 ‘심지어 ...까지’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척도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함병호 (2013: 129)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아래 (86)처럼 척도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문장도 있다.

(86) 우리 일행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함병호 2013: 133)

함병호(2013: 133)에 따르면 이때는 선행절 이외의 다른 상황이 설정될 수 없고, 오직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만 부각된다. 그럼 척도성 말고 다른 설명 방법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필자가 ‘기대치’의 시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A: 도망가겠다는 기대가 생기는 점

B: 선행절 사건(우리 일행을 보는 것)이 발생할 때의 기대치

A와 B의 간격: 화자가 심리적으로 도망가겠다고 하는 기대치의 여유

<그림 3> 기대치로 해석한 양보의 의미

(86)의 기대는 ‘도망갔다’이다. 이 기대가 생기는 점이 A점이라면 선행절 사건 때문에 생긴 기대치가 B점에 있다. 당연히 도망가야 한다는 기대치의 여유가 A와 B의 간격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일행을 보는 것까지 아니어도 도망가야 한다고 화자가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행을 직접 눈으로 봐도, 충분히 더 도망가야 한다는 상황이 생겼어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은경(2000: 242~249)에서 양보를 화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두드러지는 의미 범주로 보았으며, ‘도’의 쓰임으로 화자가 기대의 어긋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했다. 이런 적극적인 주관적 개입은 바로 A와 B의 간격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검토로 ‘-고도’가 양보의 의미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고도’가 ‘양보’의 용법 외에 간혹 허락, 예시의 의미로도 쓰인다.

② -고라도

아래 (89, 90)은 세종 말뭉치에서 검색된 ‘-고라도’에 관한 예문이다.

(89) 미국으로 하여금 체제를 인정하고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상책이라 알게 하려는 게 오키나와 전투의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90) 바지나 넥타이가 아니더라도, 또는 육체적인 상징을 감추고라도, 남성을 남성답게 보이게 하는 마지막 늪름함까지 양보하며 살지는 말았으면 싶다.

(89, 90)의 ‘-고라도’로 연결된 문장은 ‘-고’로 대치하면 비문이 되지만 ‘양보’의 의미를 가진 ‘아/어도’로 바꾸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문법 관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89-1) 미국으로 하여금 체제를 인정하여도/*인정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상책

이라 알게 하려는 데 오키나와 전투의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90-1) 바지나 넥타이가 아니더라도, 또는 육체적인 상징을 **감춰도/*감추고**, 남성을 남성답게 보이게 하는 마지막 늠름함까지 양보하며 살지는 말았으면 싶다.

특히 (90)은 ‘바지나 넥타이가 아니더라도, 또는 육체적인 상징을 감추고 라도’의 형식으로 ‘또는’으로 두 절을 대등하게 연결했다. 연결된 앞 절은 ‘-더라도’로 끝내고, 뒤 절은 ‘-고라도’로 끝내는 것을 봐서도 ‘-고라도’는 ‘-더라도’와 같이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양보의 ‘-고x¹’의 통사적인 특징

i. ‘-고도’의 통사적인 특징

이어서 (91~93)을 통하여 ‘양보’인 ‘-고도’의 통사적 특징을 보겠다.

(91) 그 교수의 아들이 순탄하게 대학에 **들어가고도** 애써 사서 고생을 한다.

(92) 어떻게 세금은 고작 몇 푼만 **내고도** 무사할 수 있었나요?

(93) 그동안 페더리는 큰 대회 우승실력을 충분히 **지니고도** 2001년 프랑스오픈과 워블던 8강이 고작이었다.

세종 말뭉치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91~93)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 제약은 받는다.

말뭉치 검색결과와 술어 유형을 살펴보면 선행절이 반드시 동사이어야 하고 후행절이 (91)의 경우는 동사, (92)는 형용사, (93)은 ‘명사+이다’이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종결법을 보면 (91, 93)은 평서문, (92)는 의문문이다. 평서문이나 의문문은 일반적이지만 아래와 같은 명령문이나 청유문도 가능하다.

(94) 보고도 못 본 척해라.

(95) 우리가 철수를 보고도 못 본 척하자.

(94)는 명령문, (95)는 청유문이다. 이와 같이 종결법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고도'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가 없다.

ii. '-고라도'의 통사적인 특징

이어서 세종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을 통하여 '-고라도'의 통사적 특징을 보겠다.

(95) 마주 보고라도 인사 안 했다.

말뭉치의 검색결과에 따르면 '-고라도'에 의해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95)처럼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96) 민족적 감정을 배제하고라도 이 일은 특별한 경우다.

(97) 민족적 감정을 배제하고라도 이 일은 특별하다.

(98) 마주 보고라도 인사 안 했다.

(99) *바쁘지 않고라도 도와 주지 않겠다.

(96~99)를 통하여 '-고라도'의 술어 제약을 알 수 있다. (96~98)의 선행절은 동사이고, 후행절은 각각 '명사+이다', 동사, 형용사이다. (99)는 선행절의 술어가 형용사이므로 비문이 된다. 따라서 '-고라도'는 '-고도'와 비슷하게 선행절의 술어가 반드시 동사이어야 하고 후행절의 술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100-1) 나를 **보고라도** 인사 안 했다.
- (100-2) 너를 **보고라도** 인사 안 했어?
- (100-3) 철수를 **보고라도** 못 본 척해라.
- (100-4) 우리는 철수를 **보고라도** 못 본 척하자.

예문 (100)처럼 ‘-고라도’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두루 쓰일 수 있다.

모든 ‘-고x’와 같이 ‘-고라도’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가 없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양보 의미인 ‘-고x1’의 의미·통사적인 특징

목록	의미	통사적인 제약			
	비슷한 연결어미	주어	술어	종결법	시상어미
-고도	-어도	동일 주어 제약	선행절 술어: 반드시 동사이어야 함	제약 없음	x
-고라도					

<표 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도’와 ‘-고라도’의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은 비슷하다. 하지만 ‘-고라도’보다 ‘-고도’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

④ ‘-고도’와 ‘-어도’의 차이

‘-고도’는 ‘-어도’의 용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두 어미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통사적인 특징을 보면 ‘-어도’의 선행절은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이다’는 다 가능하지만 ‘-고도’는 (101)처럼 선행절이 반드시 동

사이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또한 (102)처럼 ‘-고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는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어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든지 다르든지 상관없이 자연스럽다.

(101-1) **바빠**도 전화 해줄게요.

(101-2) ***바쁘**고도 전화해 줄게요.

(102-1) 비가 **와**도 축구해요.

(102-2) *비가 **오**고도 축구해요.

3. 조사 결합형 ‘-고_x²’

조사 결합형 ‘-고_x²’는 ‘-고’의 의미에 따라 ‘계기’, ‘방법이나 동시’, ‘원인’, ‘조건’, ‘병렬’ 등 다섯 가지가 있다.

1) 계기의 ‘-고_x²’

‘-고’에 조사 ‘x’를 붙는 결합형 ‘-고_x²’ 중에 ‘-고’가 ‘계기’의 의미를 가진 어미는 ‘-고는/-곤’,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등 여섯 개가 있다.

① -고는/-곤

2절에서 ‘-고는/-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고는/-곤’이 ‘계기’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예문을 들어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03) 철수는 일을 **끝내고**는/끝내고/끝낸 후에 집으로 향했다.

(103)에서 볼 수 있듯이 ‘-고는’으로 연결된 문장은 ‘-고’로 연결되어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에 영향이 없다. ‘끝낸 후에’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보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계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는’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고부터

아래 (104~109)를 통하여 ‘-고부터’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 (104) 항공기가 **실종되고부터** 주민들에 의한 신고가 있기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도 사고에 대비한 평소의 관심 내지 훈련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105) 도대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부터** 나중에 진료확인서를 받기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는 뭘까?
- (106) 봄이 기울어 여름에 **들고부터** 그 수탉은 거의 매일같이 용마루에 올라 북악을 향해 늘어지게 울음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었다.
- (107) 내가 **태어나고부터** 단 하루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다.
- (108) 제대를 두어 달 가량 **앞두고부터**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 (109) 노인은 아이들하고 **살고부터** 딸에게 용돈을 달라고 졸랐다.

(104~109)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모두 계기관계이다. 조사 ‘부터’가 쓰이기 때문에 선행절의 상태나 행위가 완성될 때부터 후행절의 상태나 행위가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진행된다는 뜻이 부가되었다. 조사 ‘부터’ 없이 ‘-고’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접속하고 ‘계기’만 나타내는 문장과 비교하면 ‘-고부터’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접속하는 문장은 후행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적인 것이 특징이다. (104, 105)는 ‘~부터.....~까지’의 형식으로 분명하게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106, 107)은 ‘매일같이’, ‘-고 있다’, ‘단 하루도보지 않은 날이 없다’ 등 통해서도 이런 특징을 나타냈다. (108)의 ‘시작하다’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동작이지만, 여기서 조사 ‘부터’의 관계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에 계속 편지를 쓰는 의

미가 함축되어 있다. (109)도 마찬가지로 ‘부터’가 붙이기 때문에 노인은 아이들하고 같이 산 후에 딸에게 용돈을 달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가 된다. 아래 ‘-고’로 연결된 문장과 ‘-고부터’로 연결된 문장을 비교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10) 오빠가 나한테 눈치주고 나가 버렸다.

(111) *오빠가 나한테 눈치주고**부터** 나가 버렸다.

(110, 111)의 후행절은 지속성을 지니거나 반복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라서 (110)처럼 ‘-고’로 연결할 수 있지만, (111)처럼 ‘-고부터’로 연결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고부터’의 ‘고’는 ‘계기’관계를 나타내고 ‘부터’는 어떤 일이나 동작 따위가 처음 시작되는 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부터’는 선행절의 상태나 행위가 완성될 때부터 후행절의 상태나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진행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③ -고야

아래 (112~115)를 통하여 ‘-고야’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112) 병든 다음이라야 건강이 보배인 줄 알며 난세에 **쳐하^고야** 비로소 태평 시절이 복인 줄 안다.

(113)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망을 한 번 **휘돌아^고야** 그제서 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114) 안 갈 테야? 이럴 테야? 난장을 **맞^고야** 일어날 테야!

(115) 우리가 입학한 지도 거의 8달이나 되었어. 나도 지금 막 세어 **보^고야** 알았어.

(112~115)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는 ‘계기’이다. (112)는 난세에 처한

후에야 비로소 태평 시절이 복인 줄 알고, (113)은 사방을 한 번 휘돌아본 후에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안다. (114, 115)도 마찬가지다. 그럼, ‘-고’가 ‘계기’의 의미로 쓰인다면 보조사 ‘야’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

위의 예문에 조사 ‘야’가 쓰일 때와 안 쓰일 때를 비교해 보면 ‘야’가 ‘그때에 이르러 비로소’의 의미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12)에 쓰인 ‘비로소’, (113)에 쓰인 ‘그제서’ 등 부사가 더 분명하게 그것을 나타냈다. (114, 115)에는 그런 부사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114)는 난장을 맞은 후에야 비로소 일어날 것이냐고 야단치고, (115)는 세어본 후에야 비로소 입학한 지 거의 8달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고’가 계기로 쓰일 때 ‘야’는 ‘그때에 이르러 비로소’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고야’는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야’의 결합형으로 선행절의 행동이 끝날 때에 이르러 후행절의 행동이 비로소 일어남을 강조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고만

아래 (116, 117)을 통하여 ‘-고만’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116) 잠시 **뵈고만** 가겠노라고 한참을 때를 쓰다시피 했다.

(117) 옛 고구려 땅이 지금 우리 땅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 민족의 가능성, 기상을 **확인하고만** 돌아와도 좋다.

(116, 117)의 ‘-고만’은 계기 관계를 나타내면서 화자의 최소 기대를 나타낸다. ‘화자의 최소 기대’의 의미는 ‘만’에 의해서 나타난다.

(118) 배고픈데 밥 한 **손가락만** 줘도 감사하겠다.

(118)의 화자는 밥 한 숟가락만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화자가 바라는 최소한을 드러내는 것이다.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적어도 밥 한 숟가락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116)은 ‘잠시 뵈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때를 쓰는 사람이 바라는 일의 최소한이 ‘잠시 뵈는 것’이다. 뵈고 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117)은 화자가 가는 사람이 다른 것을 더 느끼고 더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가능성과 기상을 확인하기만 해도 좋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119) 그렇게 보관된 명함 가운데 그저 한순간 ‘받고만 그친’ 명함은 없는가?

(120) 비록 소금을 뿌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웃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손을 잡아 일으켜줄 만한 행인들의 그 온정조차 없단 말인가?

(119, 120)의 ‘-고만’은 오직 그 행위만 하고 나서 다른 행동으로 바꾼다는 것을 나타낸다. (119)는 받기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하고 바로 그치는 뜻이고, (120)은 웃기만 하고 관심이나 다른 것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뜻을 나타낸다.

‘-고만’은 ‘계기’ 관계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시킬 때 ‘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선’이고 하나는 ‘한정’이다.

⑤ -고나

아래 (121, 122)을 통하여 ‘-고나’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121) 죽더라도 **먹고나** 죽어라.

(122) 전에 졸업한 사람일걸요. 발성은 좋고 발음도 정확하고 리액션도 평균은 되는 것 같지만 기본이 엉망이에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제대로 **읽고나** 온 건지

의심스러워요.

(129, 130)의 조사 ‘나’는 아래 (131)과 같이 ‘그것이 허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의 용법이다.

(131) 힘이 센 **사람이나** 들 수 있는 거로군. (『연세』)

이것과 같이 (129, 130)에서도 말하는 자가 죽더라도 먹은 후에야 죽을 수 있고, 오려면 기본적으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읽은 후에야 올 자격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고나’는 ‘계기’ 관계인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할 때 ‘나’는 그것이 허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⑥ -고들

아래 (124~126)을 통하여 ‘-고나’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124) 어떻게 그렇게 **알고들** 찾아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게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다.

(125) 오늘은 이만들 하십시오. 오늘 못다한 논의는 내일 다시 하면 되지 않겠소. 오늘은 내 간소한 주연을 준비했으니 **들고들** 가지지요.

(126) 정은 또 왜 **남기고들** 가는가?

(124, 125)에는 주어가 복수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24)의 ‘많은 사람들’, (125)의 ‘이만들’, 이렇게 주어가 복수인 것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 하지만 꼭 문장에 확인할 수 있어야 조사 ‘들’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26)처럼 문장의 다른 부분은 주어가 복수인 것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연결어미 ‘-고’ 뒤에 조사 ‘들’을 썼다. 조사 ‘들’을 통하

여 주체가 복수인 것을 나타낸다.

⑦ 계기의 ‘-고_x²’의 통사적인 특징

‘-고’에 조사 ‘x’를 붙이는 결합형 ‘-고_x²’ 중에 ‘-고’가 ‘계기’의 의미를 가진 어미는 ‘-고는/-곤’,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등 6 개가 있다.

(127) 영수는 밀린 일을 모두 **끝내고**는/곤 집으로 향했다. (김종록 2008: 74)

(128) 노인은 아이들하고 **살고**부터 딸에게 용돈을 달라고 졸랐다.

(129) 우리가 입학한 지도 거의 8달이나 되었어. 나도 지금 막 세어 **보고**야 알았어.

(130) 그렇게 보관된 명함 가운데 그저 한순간 ‘**받고**만 그친’ 명함은 없는가?

(131) **알고**나 지나가자.

(132) 오늘은 내 간소한 주연을 준비했으니 **들고**들 가십시오.

(127~132)에서 보듯이 ‘계기’의 의미로 쓰인 ‘-고’와 조사 ‘x’의 결합형 어미는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다. 하지만 그중의 몇몇 어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도 문장 성립이 된다.

(133) 형이 공을 **던지고**는/던지곤 동생이 공을 받았다.

(134) 해가 **지고**부터 달이 떴다.

(135) 해가 **지고**야 달이 떴다.

(136) *형이 이야기를 **하고**만 동생이 갔다.

(137) *엄마가 **허락하고**나 가니?

(138) 손님이 **나가고**들 우리가 퇴근했다.

(133~138) 중에 (136, 137)의 ‘-고만’과 ‘-고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른 문장들이다. (136)은 형이 이야기를 하기만 하고 동생이 갔다는 것은 ‘-고만’의 ‘계기+한정’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통

사적인 제약에 어긋나서 비문이 되었다. (137)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허락은 ‘간다’의 조건이라는 의미는 ‘-고나’의 ‘계기+그것이 허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통사적인 제약을 받으므로 비문이 된다. 그래서 ‘계기’인 ‘-고x²’들은 ‘-고나’와 ‘-고만’이 주어 동일 제약을 받고 나머지는 주어 동일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 유형은 (127~132)에서 보듯이 동사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후행절은 형용사일 수도 있다.

- (139) 신문을 읽고는 기분이 나빴다.
- (140) 신문을 읽고부터 기분이 나빴다.
- (141) 남자 친구를 만나고야 기분이 좋았다.
- (142) *신문을 읽고만 기분이 나빴다.
- (143) *떡고나 배부르다.
- (144) 우리는 신문을 읽고들 기분이 나빴다.

(139~144)에서 볼 수 있듯이 (142)의 ‘-고만’과 (143)의 ‘-고나’만 제외하고는 모두 후행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139, 140, 114)의 ‘나쁘다’는 형용사이지만 ‘나빠지다’의 의미를 나타냈다. 신문을 읽기 전이 기분이 괜찮았지만 신문을 읽은 후에 기분이 괜찮은 상태에서 ‘나쁘다’로 바꾸는 변화를 나타냈다. 즉 신문을 읽고 기분이 나빠졌다. 따라서 ‘나쁘다’는 형용사이지만 여기서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을 통하여 동사의 특성을 다소 가지게 되었다. 만약 ‘나쁘다’를 단순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보고 즉 신문을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기분의 상태는 ‘나쁘다’라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141)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2장에서 논술하는 ‘계기’인 ‘-고’의 통사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기’의 ‘-고x²’는 일반적인 경우에 술어가 동사이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데 가끔 후행절에 형용사도 쓰

일 수 있지만 그 형용사가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

종결법은 (127~129)는 평서문, (130)은 의문문, (131)은 청유문, (132)는 명령문이다. 예문을 통해서 종결법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기’의 의미를 나타낸 ‘-고’와 같이 계기의 ‘-고x2’ 앞에도 역시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 <표 6>과 같다.

<표 5> 계기 의미인 ‘-고x2’의 의미

목 록	의 미		예 문
-고는/-곤	계기 +	강조	일을 끝내고는 갔다.
-고부터		기점	내가 태어나고부터 단 하루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날이 없다.
-고야		비로소	난세에 처하고야 비로소 태평 시절이 복인 줄 안다.
-고만		최소 기대	잠시 뵈고만 갈게요.
		한정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웃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치절하게 손을 잡아 일으켜준다.
-고나		최소의 조건	사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야?
-고들		주체복수	오늘은 이만들 하십시오. 내 간소한 주연을 준비했으니 들고들 가지지요.

<표 6> 계기 의미인 ‘-고x2’의 통사적 특징

주 어	술 어	종결법	시상어미
대부분 주어 동일 제약을 받지 않지만 '-고나', '-고만'은 주어 동일 제약을 받음.	'-고나', '-고만'의 술어는 반드시 동사이어야 함. 기타 '-고x'는 후행절의 술어가 형용사이어도 되지만 그 형용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	제한 없음	x

2) 방법이나 동시의 '-고x²'

'-고'에 조사 'x'를 붙이는 결합형 '-고x²' 중에 '-고'가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를 가진 어미는 '-고도', '-고라도',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등 7개가 있다.

① -고도

아래 (145~147)을 통하여 '-고도'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 (145) 아버는 종종 그곳을 드나들며 밥과 술을 돈을 내고도 먹고, 외상으로도 먹고,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공짜로도 먹었다.
- (146) 눈을 크게 뜨고도 보고, 실눈을 뜨고도 본다.
- (147) 누가 슬퍼하면 우리는 목소리를 듣고도 알고, 노는 모습을 보고도 알고, 얼굴이나 눈을 보아도 알 수 있지요?

(145~147)의 특징은 병렬된 방법이 있다는 점이다. (145)는 밥과 술을 먹는 방법은 돈을 내는 것과, 외상으로 먹는 것과 공짜로 먹는 것이 있다. 그 중에 '외상으로도', '공짜로도'의 '로'는 앞의 내용이 방법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 그와 병렬된 '돈을 내고도'도 더 논할 것 없이 방법을 나

타낸다는 것이다. (146, 147)도 마찬가지로 방식을 표현하는 절 두 개 이상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의 '-고'는 '방법이나 동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도'는 '역시'의 의미를 가진다.

② -고라도

아래 (148~151)을 통하여 '-고라도'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148) 그런데 한 시경이 되어도 들것을 가지고라도 올 줄 알았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149) 운동을 잘 하고 또 수술을 받고 하는 동안에 점점 나아져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시지 않았니?

(150) 차가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나는 내려서 그놈의 택시를 잡아끌고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151) 최달식은 하늘을 두고라도 맹세할 수 있었다.

(148~151)은 연결어미 '-고'가 방법의 의미로 쓰인 예문들이다. 조사 '라도'가 없어도 선행절은 후행절 행위가 진행되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럼 보조사 '라도'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148, 149)를 먼저 보겠다. (148)은 화자가 사람이 들것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들것보다 좋은 구급차나 그 이상의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들것을 가지고 와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다. (149)는 화자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지팡이를 짚는 방식으로 해도 아쉬운 대로 받아들이는 심정이다.

(150)은 현실적으로 진짜 택시를 잡아끌고 달려갈 수 없을 만큼 택시를

잡아끌고 가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다. 빨리 가려고 하는 심정으로 잡아끌고 갈 수 있기만 하면 그것까지도 하겠다고 한다. (151)의 ‘라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겠다.

(152) 최달식은 하늘을 두고라도 맹세할 수 있었다.

(153) 최달식은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었다.

(153)은 단순 맹세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152)는 맹세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방식-아주 극단적인 방식까지 선택할 수 있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어미 ‘-고’가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로 쓰일 때 조사 ‘라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쉬운 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나타낸다. 또 하나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면서 그것까지도 선택함을 나타낸다.

③ -고야

아래 예문 통하여 ‘-고야’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154) 어서 일어나게. 해가 중낮이나 되었네. 아침은 못 먹는다더라도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 어느 한 끼는 먹어야지…… 긴긴 해에 이렇게 굶고야 사는 수가 있나? 허허, 참.

(154-1) 어서 일어나게. 해가 중낮이나 되었네. 아침은 못 먹는다더라도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 어느 한 끼는 먹어야지…… 긴긴 해에 이렇게 굶고 사는 수가 있나? 허허, 참.

조사 ‘야’가 안 쓰인 (154-1)을 통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가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야’가 쓰인 (154)가 (154-1)과 비교해 보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가 변함이 없고 단지 방법을 나타낸 선행절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결어미 ‘-고’가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로 쓰일 때 그에 붙이는 조사 ‘야’가 강조의 의미만으로 쓰이고 이럴 때는 ‘-고야’가 연결어미 ‘-고’와 조사 ‘야’의 결합형으로 볼 수 있다.

④ -고만

아래 (155~157)을 통하여 ‘-고만’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155) 저는 여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아저씨들을 따라가고 싶어요.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겠어요. **테리고만** 가주세요.

(156) 다 그런 경험 있겠지만 나도 옛날에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어 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 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다녔어

(157) 진정 **마음먹고만** 끈다면 하루만으로도 tv가 반드시 일용의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155)의 ‘테리고만 가주세요’의 이전 문맥을 보면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겠다’가 있다. 이 부분을 통하여 ‘테리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테리고 가는 것’은 화자가 바라는 최소의 한도이다. 다른 것 안 들어주어도 이 부탁을 제발 들어달라는 의미다.

(156)에 쓰인 조사 ‘만’이 한정 뜻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맥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156)은 사랑하는 여자한테 연애편지를 쓰고 그 여자한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주머니에 넣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157)의 조사 ‘만’은 강조로 보는 이유가 ‘만’이 있든 없든 의미에 큰 영향이 없다. (157)은 ‘마음 먹고만 끊다’는 끊는 것 말고 다른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한정이라는 의미가 없고, 단지 ‘마음 먹다’의 행위를 강조한

다.

그래서 ‘-고만’이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를 나타낼 때 ‘만’의 의미는 3가지가 있다. ‘화자의 최소 기대’, ‘한정’, 그리고 ‘강조’이다.

⑤ -고나

세종 말뭉치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고나’가 ‘-고’와 ‘나’의 결합형으로 쓰일 때 ‘방법이나 동시’를 나타내는 예문이 가장 많다. 조사 ‘나’의 의미를 보면 ‘차선’, 그리고 본래 조사 ‘나’ 체언 뒤에 쓰일 때 없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

(158) 이걸 조신이놈을 갖다 주어라. 이걸 보고 조신이 놈이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오거든 몸에 **지니고나** 댕기라고 일러라.

(159) 처음에 기찻간에서 이 여자를 만날 때에는 다소의 흥미도 가졌지마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다만 일시일시로 **테리고나** 놀 여자지, 오래 사귀어 놀 여자가 되지 못할 것을 곧 알았다.

(160) 사내 자식이 두들겨 **맞고나** 다니고.

(158)은 조신이 이것을 보고 나서 돌아오면 최고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차선으로 이것을 지니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다. (159)는 기찻간에서 만났던 여자는 오래 사귀어 놀 여자라면 최고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차선으로 단지 일시일시로 노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60)은 조사 ‘나’가 있든 없든 문장 의미에 큰 영향이 없고, 단지 다닐 때의 방식 ‘두들겨 맞는 것’을 강조하기만 한다.

⑥ -고들

아래 (161, 162)를 통하여 ‘-고들’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161) 가족끼리 **끌어안고**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다.

(162) 좀 덜 **탐내고**들 살아.

(161, 16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 ‘들’은 ‘-고’의 용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들’이 있든 없든 ‘-고’의 용법이 같다. ‘들’은 단지 주체가 복수인 것을 나타낸다.

⑦ -고까지

아래 예문을 통하여 ‘-고까지’의 용법을 검토하겠다.

(163) 아무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투자하는 신체적인 피해가 너무도 크다.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까지** 담배를 피워야만 할까?

(164) 시나브로 거리를 접어 가며 땀 걸음 사이를 **두고까지** 아무리 고쳐서 뜯어보아도 그는 비록 병에 얼굴은 꺼졌을망정, 그리고 몸은 반쪽이 되도록 신들었을망정 확실히 전일 제가 떼어버리려고 민줄대던 그 남편임에 틀림없고…….

(165) 어느 때는 리처드 3세와 같이 형도 조카도 **죽이고까지** 빼앗아야 되는 의자인가. 인간의 세계를 떠나서 동물의 세계에서나 용납할 수 있을까 싶은 추악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서까지 쟁탈하고야 마는 사물인가.

(166)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163~166)에 나타난 ‘고까지’는 모두 극단적인 방법의 뜻을 나타낸다. 여기서 (163, 164, 166)은 ‘까지’가 없어도 ‘-고’의 뜻은 ‘방법’이지만 (165)는 ‘까지’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나 ‘-고’는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계기’를 나타낸다.

(165-1) 어느 때는 리처드 3세와 같이 형도 조카도 **죽이고** 빼앗아야 되는 의자인가. 인간의 세계를 떠나서 동물의 세계에서나 용납할 수 있을까 싶은 추악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서까지 쟁탈하고야 마는 사물인가.

(165-1)의 ‘-고’는 ‘계기’의 의미이고 (166-1)의 ‘-고’는 ‘계기’ 혹은 ‘방법’의 의미이다. (165-1)에 보여준 것과 같이 ‘까지’가 없으면 ‘죽이고 빼앗다’는 ‘죽인 후에 빼앗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느니만큼 ‘-고’는 계기를 나타내지 방법이나 동시를 나타내지 않는다. ‘까지’와 결합해서 ‘빼앗는’ 행위가 아주 극단적인 방식 -‘형도 조카도 죽이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까지’는 ‘범위의 끝임’, ‘더해짐’, ‘극단적인 경우’ 3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앞의 2가지의 용법이 없고 단지 ‘극단적인 경우’의 뜻을 나타낸다.

⑧ 방법이나 동시 의미인 ‘-고_x’의 통사적인 특징

어미 ‘-고’에 조사 ‘x’를 붙이는 결합형 ‘-고_x’ 중에 ‘-고’가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를 가진 어미는 ‘-고도’, ‘-고라도’,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등 총 7 개가 있다.

(167) 발바닥을 모두 붙여 걸어 보고, 뒤통치를 들고도 걸어 봅시다.

(168) 떡살을 끌고라도 데리고 나오세요.

(169) 긴긴 해에 이렇게 굶고야 사는 수가 있나?

(170) 켈자의 대거리가 거기에 이르자 한동안 사태를 바라보고만 앉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171) 사내 자식이 두들겨 맞고나 다니고.

(172) 가족끼리 끌어안고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다.

(173)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까지 담배를 피웠다.

(167~173)에서 보듯이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로 쓰인 ‘-고’와 조사 ‘x’의 결합형 어미는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동일 주어 제약을 받는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 유형도 역시 (167~173)에서 보듯이 동사만 된다.

‘방법이나 동시’의 용법이란 선행절의 행위가 후행절의 방법이라서 형용사나 ‘명사+이다’가 술어가 될 수 없다.

(167)은 청유문, (168)은 명령문, (169)는 의문문, 나머지는 평서문이다. 종결법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상어미 제약은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를 나타낸 ‘-고’와 같이 ‘-고x2’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지금까지 ‘방법이나 동시’ 의미를 나타낸 ‘-고’와 조사 ‘x’의 결합형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정리하면 아래 <표 7>, <표 8>과 같다.

<표 7> 방법이나 동시 의미인 ‘-고x2’의 의미

목 록	의 미		예 문
-고도	수단 이나 방법 또는 방식	+	역시 눈을 크게 뜨고도 보고, 실눈을 뜨고도 본다.
-고라도			아쉬운 대로 받 아들임 들것을 가지고라도 올 줄 알았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극단 선택 하늘을 두고라도 맹세할 수 있었다.
-고야			강조 이렇게 굶고야 사는 수가 있나?
-고만			최소 기대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겠어요. 데리고만 가주세요.
	한정 연애 편지를 쓰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다녔어.		
	강조 진정 마음먹고만 끈다면 하루만으로도 tv가 반드시 일용의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고나		차선	이걸 보고 조신이 놈이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오거든 몸에 지니고나 댕기라고 일러라.
		강조	사내 자식이 두들겨 맞고나 다니고.
-고들		주체복수	좀 털 탐내고들 살아.
-고까지		극단적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까지 담배를 피워야만 할까?

<표 8> 방법이나 동시 의미인 ‘-고_x²’의 통사적 특징

주 어	술 어	종결법	시상어미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제한 없음	x

3) 병렬의 ‘-고_x²’

‘-고’에 조사 ‘x’를 붙이는 결합형 ‘-고_x²’ 중에 ‘-고’가 ‘병렬’의 의미를 가진 어미는 ‘-고도’ 하나만 있다.

① 의미

아래 예문을 통하여 ‘-고도’의 의미를 검토하겠다.

(174-1) 마지막 부분은 **아름답고(도)** 간결한 문어체 글이다.

(174-2) 마지막 부분은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문어체 글이다.

(175-1) 어떤 힘으로 그렇게 **정교하고(도)** 완벽한 기관을 만들어내는가?

(175-2) 어떤 힘으로 그렇게 **완벽하고도** 정교한 기관을 만들어내는가?

(176-1) 생각을 **넓고(도)** 깊게 하는 능력

(176-2) 생각을 **깊고도 넓게** 하는 능력

(177-1) 아버지의 모습을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했다.

(177-2) 아버지의 모습을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했다.

(178-1) 이러한 생래적 체질이 환경을 조화, 극복하여 멧돼지 모양 **거칠고(도)** 튼튼해질 수 있을까.

(178-2) 이러한 생래적 체질이 환경을 조화, 극복하여 멧돼지 모양 **튼튼하고도 거칠어**질 수 있을까.

(179-1) **크고(도)** 시원해 보이는 눈

(179-2) **시원하고도** 커 보이는 눈

(180-1)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도)** 자유롭다.

(180-2)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고도** 가난하다.

(181-1) 도박의 유혹은 **강하고(도)** 질기다.

(181-2) 도박의 유혹은 **질기고도** 강하다.

(174-1~181-1)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로 연결된 두개의 형용사는 ‘-고’로 바꿔 연결시켜도 의미 관계에 변함이 없다. ‘-고도’는 단지 ‘-고’보다 강조의 의미가 있다. (174-2~181-2)는 (174-1~181-1)의 ‘-고도’에 의해서 연결된 두 형용사의 순서를 바꾼 문장들이다. 선후 순서를 바꿔도 의미에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고도’는 아래 예문과 같이 절 3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고도’가 병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182) 무서운 도깨비가 우습게도 똥간에 빠지는 슬픈 이야기”처럼 **무섭고도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183) 얼마나 **서글프고도 우습고도 재미있는** 노릇입니까?

(184) 형은 원래 웅변조에 어울리게끔 타고난, **크고도 굵고도 울림이 좋은** 목청을 십분 활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맥아더 원수를 향해 마치 눈앞의 상대방 대하듯 종잇장에 적힌 탄원의 말들을 간곡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든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형용사+-고도+형용사’ 뒤에 관형사형 ‘-(으)ㄴ’이나 부사형 어미 ‘-다’가 뒤이어질 때가 있고, ‘-어지다’나 형용사 뒤에만 나타난 ‘-어 보이다’가 뒤이어질 때도 있고, 어말어미 ‘-다’가 뒤이어질 때가 있다. 이럴 때 문장의 구조가 ‘형+[형+--(으)ㄴ/-어지다/-어 보이다/-게/-다]’가 아니라 ‘(형+형)+-(으)ㄴ/-어지다/-어 보이다/-게/-다’의 구조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85)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하다

(185-1) *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하다]

(185-2)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하다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 서술어가 모두 형용사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형용사구나 형용사절도 가능하다. 심지어 선행절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뒤에 동사도 가능하고, 후행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선행절이 동사나 명사도 가능하다. 단지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적어도 하나가 형용사이어야 한다.

(186) 선비는 그들을 대하니 **반감고도** 다소 부끄러웠다.

(187)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베이의 가장 **과감하고도** 가장 값비싼 노력은 아메리카 온라인과의 3년에 걸친 마케팅 거래에 돌입한 1998년 8월에 시작되었다.

(188) 새삼스럽게 옛 스승을 만난다는 건 **반감고도**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다.

(189) 주변의 작고 가벼운 물건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티스롱의 통찰과 분석은 참으로 **크고도** 무게가 있다.

(186, 187)은 형용사 ‘반갑다’와 형용사구 ‘다소 부끄럽다’의 병렬, 그리고 형용사구 ‘가장 과감하다’와 형용사구 ‘가장 값비싸다’의 병렬이다. (188, 189)는 형용사 ‘반갑다’, ‘크다’와 형용사절 ‘어딘가 불안하다’, ‘무게가 있다’의 병렬이다.

(190) 칼을 쓰지 않고 레이저 빔으로 쌍꺼풀 수술이 용이하고 회복기간이 짧으며, 모발이식과 제반 성형외과적인 내시경 수술을 **손쉽고도 빨리** 할 수 있다.

(190)은 형용사 ‘손쉽다’와 부사 ‘빨리’를 연결해 ‘수술하다’에 대해 수식하며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가 직접 동사를 꾸밀 수 없는데 ‘형용사+-고도+부사’의 형식으로 수식할 수 있는 것은 기저구조는 ‘(형용사+형용사)+-게’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수술을 손쉽고도 빨리 할 수 있다’의 기저구조는 ‘수술을 손쉽고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191) **길고도** 왜곡되어 버린 이야기

(192) 내가 낮에 본 어설픈 동극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화면은 **아름답고도** 생동감이 넘쳤다.

(193) 그는 **어질고도** 글 읽기를 껴이나 좋아하였다.

(194) 미국은 서양 오랑캐, 서양 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땅도 넓고 부강하며, **점잖고도** 도리를 아는 나라라고 되어 있으니 모를 일이었다.

(191, 192)는 ‘형용사+-고도+자동사’의 구성이고, (193, 194)는 ‘형용사+-고도+타동사’의 구성이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선행연구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형용사)가 서로 반의어이거나 다른 특성을 나타낼 때 ‘-고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95-1) 가깝고도 ____?

(195-2) 가깝고도 먼 나라

(195-3) 가깝고도 아름다운 하늘

(195-3a) 아름답고도 가까운 하늘

(195-4) 시내와 가깝고도 조용하다

(195-4a) 조용하고도 시내와 가깝다.

(195-1)과 같이 ‘가깝고도’까지만 나오면 뒤에 어떤 단어가 이어질지 추측하기 어렵다. (195-1~195-4)는 말뭉치 중에서 선행절 서술어가 형용사 ‘가깝다’일 때의 예문의 일부이다. 후행절에 이어지는 형용사가 매우 다양하다. ‘가깝다’의 반의어 ‘멀다’가 있고, ‘아름답다’, ‘조용하다’도 있다. (195-3a)와 (195-4a)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순서를 바꿔도 의미 변화가 없다. (195-3)과 (195-4)의 ‘-고도’가 틀림없이 병렬의 의미이다. 그럼 (195-2)는 단지 ‘-고도’가 반의된 두 형용사를 연결한다는 이유로 병렬과 다른 용법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사전과 다른 논저에서 ‘-고도’의 의미가 ‘어떠한 사실이나 느낌을 나타내면서, 뒤이어 이에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다’하고 하였지만 이럴 때 ‘-고도’에 의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선행절과 후행절의 반의된 단어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다른 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문장이라도 ‘다른 특성’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비슷한 특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

(196-1) 크고도 무게가 있다.

(196-2) 작고도 무게가 있다.

(196-1)과 (196-2)는 선행절의 서술어가 서로 반의된 ‘크다’와 ‘작다’이다. 서로 반의라서 두 문장 중의 ‘다른 특성’을 나타낸 문장은 하나만일 수밖에 없다. ‘크지만 무게가 있다’가 어색한 반면에 ‘작지만 무게가 있다’가 더 자연스러워서 ‘작고도 무게가 있다’가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설정해 보자. 붓글씨를 쓸 때 둘둘 말린 종이 끝에 글쓰기 편하기 위해 문진이라는 것을 두기 마련이다. 크기가 너무 크면 불편할 것이고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문진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작으면서 무게가 있는 문진이 좋은 문진이라는 설정을 한다면 (196-2)의 선행절 서술어가 ‘다른 특성’이 아니라 ‘비슷한 특성’이다. 선행절과 후행절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문맥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다르게 부여되지만 그것이 ‘-고도’의 의미가 각각 달라서 일으킨다고 할 수가 없다.

사전과 논저에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예문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183)이 절 세 개를 연결하는 경우를 보면 ‘서글프다’와 ‘우습다’와 ‘재미있다’가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병렬 관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렬 관계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선후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 영향이 없는 반면에 소위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낸’ 문장은 선후행절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97-1)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197-2)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198-1) 짧고도 긴 침묵

(198-2) 길고도 짧은 침묵

(199-1) 그 젊고도 용맹스러움을 사랑하여, 참아 죽이지 못한다.

(199-2) ?그 용맹스럽고도 젊음을 사랑하여, 참아 죽이지 못한다.

(200-1) 오빠가 가는 한국이 무섭고도 그리워선지 b양의 어린 눈엔 하얀 민들레처럼
그리움이 피어 있었다.

(200-2) *오빠가 가는 한국이 그림고도 무서운지 b양의 어린 눈엔 하얀 민들레처럼
그리움이 피어 있었다.

(197-1)과 (198-1)은 ‘-고도’의 선행절 서술어 순서가 바뀌어도 올바른 문장이다.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197-1)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 반면에 (197-2)의 물리적 거리는 멀다. (198-1)의 침묵의 물리적 시간은 짧은 반면 (198-2)는 길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말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거리상 가깝지만 생활습관이나 사상이나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심리적으로 멀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는 말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일본은 거리상 멀어도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라는 것이다. (198)의 예문도 비슷하게 (198-1)은 물리적 시간은 짧았지만 그 침묵의 괴롭힘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시간이 길다. 그래서 ‘-고도’가 병렬의 의미를 나타낼 때 그에 의해서 연결된 두 서술어의 순서가 물리적 시간에서 심리적 시간으로, 물리적 거리에서 심리적 거리로의 순서로 배치해야 한다.

(199)의 경우를 보면 ‘짧다’와 ‘용맹스럽다’의 순서를 바꾸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짧다’는 직관적 감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용맹스러움’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관찰하거나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200-1)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 순서가 바뀌면 비문이 된 이유는 후술된 내용 때문이다. 인접한 후행절이 후술된 내용과 관계가 더 긴밀해서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그림고도 무서운지’로 바꾸면 후술된 내용이 ‘무서움’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도’로 연결된 두 서술어가

서로 반의어나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면 그 순서가 물리에서 심리로, 직관에서 논증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뒤에 후술된 내용을 고려해서 후술내용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서술어는 후행절에 배치해야 한다.

병렬 연결어미의 이런 특성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도 같은 특성이 있다. 중국어의 병렬 관계 연결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既....又...’가 ‘-고도’의 용법과 비슷하다.

(201) 這是一個既複雜又艱難的事情。

이것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202) 這是一個既複雜又簡單的事情。

이것은 복잡하고도 간단한 일이다.

(203) 日本是一個離我們既近又遙遠的國家。

일본은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다.

(204) 這是一個既簡單又複雜的問題，所以你要慎重解決。

이것은 간단하고도 복잡한 문제이니까 심중히 해결해라.

(205) *這是一個既複雜又簡單的問題，所以你要慎重解決。

*이것은 복잡하고도 간단한 문제이니까 심중히 해결해라.

黃伯榮·廖序東(2005: 160~161)에서 병렬관계를 ‘평렬관계(平列關係)’와 ‘대거관계(對舉關係)’로 나누고 ‘既....又...’는 ‘평렬관계’ 연결사로 불렀다. 소위 ‘평렬관계’는 ‘각 절이 몇 가지 일이나 몇 가지 방면의 공존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고도’와 의미가 같을 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 쓰임도 같다. (201)과 (202)에서 볼 수 있듯이 ‘既....又...’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고도’와 같이 ‘같은 특성’을 가진 서술어일 수도 있고 서로 반의어가 된 서술어일 수도 있다. (203)은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낸다. (204)는 후술된 내용의 관계로 인해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 순서가 바뀌면 비문이 된다.

지금까지 ‘-고도’의 병렬 의미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ㄱ) 선행절과 후행절 서술어가 모두 형용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구나 형용사절도 가능하다. 심지어 선행절 서술어가 형용사이면서 뒤에 동사나 평가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도 가능하다.

(ㄴ) ‘-고도’에 의해서 연결된 형용사 두 개가 서로 반의어가 될 때, 선행 연구에서 ‘상반되거나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반의된 두 형용사에 의해서 나타내지 ‘-고도’에 의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고도’의 의미가 여전히 병렬이다.

(ㄷ) ‘-고도’로 연결된 두 서술어가 서로 반의어나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면 그 순서가 물리에서 심리로, 직관에서 논증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뒤에 후술된 내용을 고려해서 후술내용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서술어는 후행절에 배치되어야 한다. 병렬 연결어미의 이런 특성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도 마차가지이다.

② 통사적인 특징

이어서 예문을 통하여 ‘병렬’인 ‘-고도’의 통사적인 특징을 검토하겠다.

(206) 마지막 부분은 **아름답고도** 간결한 문어체 글이다.

(207) **조용하고도** 시내와 가깝다.

(208) 미국은 서양 오랑캐, 서양 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땅도 넓고 부강하며, **점잖고도** 도리를 아는 나라라고 되어 있으니 모를 일이었다.

(209) **길고도** 왜곡되어 버린 이야기

(210) 그는 **어질고도** 글 읽기를 껴이나 좋아하였다.

(211) 내가 낮에 본 어설픈 동극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화면은 **아름답고도** 생동감이 넘쳤다.

(212) 간단하고도 최선의 방법

병렬인 ‘-고도’는 일반적으로 (206, 207)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형용사이어야 한다. 하지만 (208~212)와 같이 선행절이 형용사이면 후행절은 (208~211)처럼 동사이어도 가능하고 (212)처럼 평가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도 가능하다.

(213) 마지막 부분은 **아름답고도** 간결하다.

(214) 마지막 부분은 **아름답고도** 간결하지 않니?

(215) ***아름답고도** 생동감이 넘쳐라.

(216) ***아름답고도** 생동감이 넘치자.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병렬’의 의미를 가진 ‘-고도’는 평서문, 수사 의문문에만 잘 어울린다. 또 ‘-고도’ 앞에는 시상어미가 결합될 수가 없다.

‘병렬’의 ‘-고도’는 병렬의 ‘-고’에 비해 통사적인 특징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병렬의 ‘-고’는 동일 주어 제약이 없지만 병렬의 ‘-고도’는 주어가 꼭 일치해야 한다. 둘째, 병렬의 ‘-고’는 종결법에 제약이 없지만 병렬의 ‘-고도’는 평서문과 수사의문문에만 쓰인다. 셋째, 병렬의 ‘-고’앞에 시상어미가 결합될 수 있지만 병렬의 ‘-고도’ 앞에는 시상어미가 올 수가 없다. 이렇다고 병렬의 ‘-고도’는 ‘-고’와 ‘도’의 결합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도’와 결합한 ‘-고’는 일부의 병렬인 ‘-고’의 용법만 가지기 때문이다. 즉, 병렬의 ‘-고’는 조사 ‘도’와 결합하므로 그 사용되는 범위가 축소되었다.

4) 첨가의 ‘-고_x’²⁾

‘-고’에 조사 ‘x’를 붙이는 결합형 ‘-고_x’²⁾ 중에 ‘-고’가 ‘첨가’의 의미를 가진 어미는 ‘-고도’ 하나만 있다.

① 의미

2장에서 ‘-고’의 첨가의 용법을 논술한 바가 있는데 ‘-고도’도 이런 용법이 있다.

(217) 이 마음 어찌 그리 편안한지, 그저 **우습고도** 우스웠지.

(218) **슬프고도** 슬픈 사랑의 얘기를 해주었다.

(217-1) 이 마음 어찌 그리 편안한지, 그저 **우습고** 우스웠지.

(218-1) **슬프고** 슬픈 사랑의 얘기를 해주었다.

(217, 218)은 (217-1, 218-1)과 같이 ‘도’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된다. 단지 ‘-고’보다 ‘-고도’가 강조의 의미가 더 강하다.

‘-고도’가 ‘첨가’로 쓰인 용법을 정리하면 같은 형용사가 ‘A+A’의 구조로 사물이 ‘A’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② 통사적인 특징

이어서 첨가인 ‘-고도’의 통사적인 특징을 검토하겠다.

(219) 이 마음 어찌 그리 편안한지, 그저 **우습고도** 우스웠지.

(220) **슬프고도** 슬픈 사랑의 얘기를 해주었다.

(221) 그 뜻은 **좋고도** 좋다.

(219~221)의 경우는 선행절과 후행절은 사물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서술어는 모두 형용사일 뿐만 아니라 같은 형용사의 반복일 때만 가능하다. 평서문과만 어울려서 종결법 제약을 받는다. 또 ‘-고도’의 앞에는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5) 조건의 ‘-고_x²’

‘-고’에 조사 ‘x’를 붙이는 결합형 ‘-고_x²’ 중에 ‘-고’가 ‘조건’의 의미를 가진 어미는 ‘-고야’ 하나만 있다.

① 의미

이어서 세종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을 통하여 조건의 ‘-고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22) 나 한 몸만 같으면야 무슨 걱정이 있으랴, 어디를 가면 못 얻어먹고 어디를 가면 못 숨으랴. 이 식구들을 **끌고야** 어떻게 밥인들 얻어먹으며 몸을 숨기긴들 하랴.

(223) 아무리 명서라 할지라도 재미라는 매력이 **없고야** 가만히 있기에 견디기 어려운 이 더위에 감히 읽어 볼 엄두나마 낼 수 있겠는가.

(224) 하느님, 잠을 안 **자고야** 어찌 사옵니까? 저도 잠을 잤사옵니다.

먼저 (222)를 보겠다. (222)에는 두 가지 상황을 나열했다. 하나는 나 한 몸만이고 하나는 이 식구들을 끄는 것이다.

(222-1) 나 한 몸만 같다.
무슨 걱정이 있으랴

(222-2) 이 식구들을 끌다.
어떻게 밥인들 얻어먹으며 몸을 숨기긴들 하랴

(222-1)의 두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는 ‘-면야’이고, (222-2)의 두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는 ‘-고야’이다. 이렇게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같지만 하나는 ‘-면야’로 연결시키고 하나는 ‘-고야’로 연결시키는 것만을 보아도 ‘-고

야'는 여기서 '-면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2)뿐만 아니라, 나머지 예문들도 '-면야'로 바뀌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에 영향이 없다.

(223-1) 아무리 명서라 할지라도 재미라는 매력이 없으면야 가만히 있기에 견디기 어려운 이 더위에 감히 읽어 볼 엄두나마 낼 수 있겠는가.

(224-1) 하느님, 잠을 안 자면야 어찌 사옵니까? 저도 잠을 잤사옵니다.

(223-1)은 재미라는 매력이 없는 것을 가정하여 읽어 볼 엄두를 내지 못할 뜻을 나타냈다. (224-1)도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후행절에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했다.

'-면야'를 '-면'으로 바뀌도 앞뒤절의 의미 관계가 변함이 없다. '야'는 단지 '-면'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럼 '-면'의 강조 표현은 바로 '-고야'의 의미인가?

(225) 외제차면 다니?

(225-1) *외제차고야 다니?

(226)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226-1) *꼬리가 길고야 밟히는 법이다.

(227)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프다.

(227-1) *비가 오고야 허리가 아프다.

(228) 토요일이면 나는 식구들과 바다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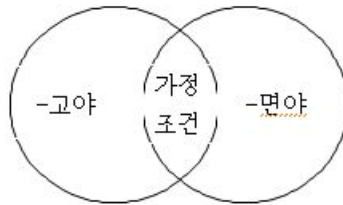
(228-1) ?토요일이고야 나는 식구들과 바다에 갔다.

(229) 영희가 밖에서 노는 것을 보면 숙제 다 끝낸 모양이다.

(229-1) *영희가 밖에서 노는 것을 보고야 숙제 다 끝낸 모양이다.

위와 같은 예문에는 ‘-면’으로 연결된 문장이 ‘-고야’로 바꾸면 비문이나 어색한 문장이 된 예문들이다. (225)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근거나 조건의 관계이고, (226)은 법칙적인 조건이고, (227)은 반복적인 조건이고, (228)은 시간적 조건이고, (229)는 근거이다. 지금까지 논한 것을 보면 ‘-면’은 크게 조건과 근거의 의미가 있는데, 근거의 의미로 쓰일 때는 ‘-고야’로 대체할 수 없고, 조건으로 쓰여도 (222~224)처럼 가정적인 조건일 경우에만 대체할 수 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고야’와 ‘-면야’의 관계

어미화된 ‘-고야’가 필수조건을 나타내는 것을 앞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그림 ‘-고’와 ‘야’의 결합으로 형성된 ‘-고야’가 어떤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까? 앞에서 ‘-어야’와 ‘-면’의 용법을 비교하면서 ‘-면’이 충분조건이라는 용법을 가지므로 ‘-어야’와 구별하였다. ‘-면야’로 바꿀 수 있는 ‘-고야’는 역시 충분조건을 나타낸다. 예문 (222~224)를 보겠다.

(222) 이 식구들을 끌다. ---> 결과: 밥인들 얻어먹으며 몸을 숨길 수 없다.

(223) 재미라는 매력이 없다. ---> 결과: 읽어 볼 엄두나마 낼 수 없다.

(224) 잠을 안 자다. ---> 못 산다.

즉, 선행절의 조건에 충족하기만 하면 후행절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야’는 가정적인 충분조건을 나타낸다. 이런 용법은 ‘-고’가 원래 가지는 용법이다. 아래 ‘-고야’를 ‘-고’로 바뀐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22-3) 나 한 몸만 같으면야 무슨 걱정이 있으랴, 어디를 가면 못 얻어먹고 어디를 가면 못 숨으랴. 이 식구들을 **끌고** 어떻게 밥인들 얻어먹으며 몸을 숨기긴들 하랴.

(223-2) 아무리 명서라 할지라도 재미라는 매력이 **없고** 가만히 있기에 견디기 어려운 이 더위에 감히 읽어 볼 엄두나마 낼 수 있겠는가.

(224-2) 하느님, 잠을 안 **자고** 어찌 사옵니까? 저도 잠을 잤사옵니다.

위와 같은 예문에서 보듯이 조사 ‘야’가 없어도 ‘-고’로 문장을 연결하고 가정적인 충분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 ‘야’는 단지 이런 의미를 강조한다.

② 통사적인 특징

아래 예문을 통하여 조건의 ‘-고야’의 통사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30) 하느님, 잠을 안 **자고야** 어찌 사옵니까? 저도 잠을 잤사옵니다.

(231) 나 한 몸만 같으면야 무슨 걱정이 있으랴, 어디를 가면 못 얻어먹고 어디를 가면 못 숨으랴. 이 식구들을 **끌고야** 어떻게 밥인들 얻어먹으며 몸을 숨기긴들 하랴.

(232) 국가방어의 높은 정신을 떠나 私的인 분노와 애욕의 갈등을 위해 난사하지 않을 만한 충성과 理性과 총명이 있는 자격자에게만 한하여 무기휴대를 許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야** 불안에 떠는 민심을 어떻게 안정시킬 道理가 있으리요.

(230~232)에서 보듯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동일 주어이어야 한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 유형을 보면 역시 동사만 가능하다. ‘조건’을 나타낸 ‘-고’와 같이 수사적 의문문과만 어울린다. 선행절 ‘-고야’ 앞에는 역시 시상어미를 쓸 수가 없다.

4. 소결

3장에서 ‘-고_x’의 의미·통사적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_x’는 크게 어미화된 ‘-고_x¹’와 조사 결합형 ‘-고_x²’로 나눌 수 있다.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첫째, ‘-고_x¹’는 ‘-고’와 비교할 때 의미·통사 기능의 변화가 생겼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고_x’로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고’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통사적인 특징이 변화가 일어날 때 ‘-고_x’는 어미화된 연결어미이다.

둘째, 보조사가 탈락해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변함이 없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기준이라기보다 첫째 기준으로 판별할 때 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고_x’의 구성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미화된 ‘-고_x¹’>:

- a. 조건의 ‘-고_x¹’: -고는/-곤, -고야, -고라야
- b. 양보의 ‘-고_x¹’: -고도, -고라도

<조사 결합형 ‘-고_x²’>:

- a. 계기의 ‘-고_x²’: -고는/-곤,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 b. 방법이나 동시의 ‘-고_x²’: -고도, -고라도,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 c. 병렬의 ‘-고_x²’: -고도
- d. 첨가의 ‘-고_x²’: -고도
- e. 조건의 ‘-고_x²’: -고야

이어서 어미화된 ‘-고_x¹’의 의미·통사적 특징과 조사 결합형 ‘-고_x²’의 의미·통사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9>, <표 10>과 같다.

<표 9> 어미화 여부의 분류에 따른 ‘-고_x’의 의미적 특징

분류	의 미		목록	예 문
어미화된 ‘-고 _x ¹ ’	조건	가정적인 조건	-고는/-곤	술을 마시지 않고 는 못 살겠다.
		필수조건	-고야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다.
		필수조건	-고라야	시원스러운 해석을 내리고라야 마음이 놓인다.
	양보		-고도	밥을 먹고도 배고프다.
			-고라도	마주 보고라도 인사를 안 했다.
결합형 ‘-고 _x ² ’	‘-고’	‘x’	목록	예 문
	계기	강조	-고는/-곤	일을 끝내고 는 갔다.
		기점	-고부터	내가 태어나고부터 단 하루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날이 없다.
		비로소	-고야	난세에 치하고야 비로소 태평 시절이 복인 줄 안다.
		최소 기대	-고만	잠시 뵈고만 갈게요.
		한정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웃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손을 잡아 일으켜준다.
		최소의 조건	-고나	사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야?
		주체복수	-고들	오늘은 이만들 하십시오. 내 간소한 주연을 준비했으니 들고들 가지지요.
	방법이나 동	역시	-고도	눈을 크게 뜨고도 보고, 실눈을 뜨고도 본다.
		아쉬운 대로 받	-고라도	들것을 가지고라도 올 줄 알았는데 나를 구원하

시	아들임		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극단 선택		하늘을 두고라도 맹세할 수 있었다.	
	강조	-고야	이렇게 끓고야 사는 수가 있나?	
	최소 기대	-고만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겠어요. 테리고만 가주세요.	
	한정		연애 편지를 쓰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다녔어.	
	강조		진정 마음먹고만 끈다면 하루만으로도 tv가 반드시 일용의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차선	-고나	이걸 보고 조신이 놈이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오거든 몸에 지니고나 댕기라고 일러라.	
	강조		사내 자식이 두들겨 맞고나 다니고.	
	주체복수	-고들	좁 털 탐내고들 살아.	
	극단적	-고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까지 담배를 피워야만 할까?	
	조건	강조	-고야	잠을 안 자고야 어찌 사옵니까?
	병렬	강조	-고도	간단하고도 쉽다.
	첨가	강조	-고도	예쁘고도 예쁘다.

<표 10> 어미화 여부의 분류에 따른 ‘-고X’의 통사적 특징

분류	의미	목록	통사적 특징				
			주어	술어	종결법	시상어미	기타
어미화된 ‘-고X’	조건	가정적인 조건 -고는/-곤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추측의 문문은 제약 받음	x	선·후행절 술어: 부정의미
		필수 조건 -고야	주어가 달라야 함		평서문, 수사의 문문만 가능	x	없음
		필수 조건 -고라야	제약 없음				
	양보	-고도 -고라도	동일 주어 제약	선행절 술어: 반드시 동사이어야 함	제약 없음	x	없음

결합 형 '-고 X'	계기	-고는/-곤 -고부터 -고야 -고들	제약 없음	선행절이 동사이어야 하며 후행절은 동사나 형용사는 모두 가능	제한 없음	x	없음
		-고만 -고나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방법이나 동시	-고도 -고라도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제한 없음	x	없음
	병렬	-고도	동일 주어 제약	선행절과 후행절은 일반적으로 모두 형용사임. 선행절이 형용사이면 후행절은 동사이어도 가능하고 평가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도 가능함	평서문, 수사 의문문만 가능	x	없음
	첨가	-고도	동일 주어 제약	같은 형용사의 반복	평서문만 가능	x	없음
조건	-고야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수사의문문만 가능	x	없음	

IV.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x’의 교재 개선 방안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가 학습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다. 교사에게 교재는 교수 내용을 제시하는 지침서 같은 존재이고, 학습자에게 교재는 학습할 내용과 순서를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에 사용되는 교재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 현지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한국어 교재에서는 ‘-고x’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 단순히 ‘-고’와 조사의 결합으로만 해석하거나 ‘-고’의 강조 표현이라고 보는 피상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침서가 되는 교재에서 ‘-고’와 조사의 결합형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거나 잘못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에서 ‘-고’와 조사의 결합형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습득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와 조사의 결합형에 대해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또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4장의 내용은 교육 현장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기존 교재 분석한 후에 ‘-고x’에 대한 교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이 장에서 살펴보는 교재는 크게 중국 현지에서 편집된 교재와 한국에서 편집되어 중국으로 도입된 교재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도 이 범위에서 채택된다. 본고에서는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현황을 참고하여 이 두 종류의 교재를 각각 4 가지씩 선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교재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존 교재 검토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배려하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어의 문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용어, 문법 범주의 정의, 의미 해석, 통사적인 특징 해석 등 부분적으로 오류가 적지 않다. 한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한국어의 문법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을 번역된 언어만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재로서 각각 모국어가 다른 학습자에게 적합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가족 호칭어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지역 학습자들은 이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또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를 습득하는 일이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게 비교적 쉬운 일이겠지만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게는 넘어가기가 힘든 큰 산일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한국어 학습자라도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가에 따라 각각 적합한 문법서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문법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으로부터 도입된 교재에서 조사나 어미에 대한 설명은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문법 설명이나 예문에 대한 번역이 잘못되거나 원래의 뜻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다. 본고는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현황을 참고하여 이 두 종류의 교재를 각각 네 가지씩 선정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그럼 교재에 나타난 ‘-고x’를 분석할 때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까? 우선 교재 분석할 때 고찰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서종학(2001)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찰 항목으로 삼았다.

(ㄱ) 문형 목록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제시되어 있는가?

ㄱ-1) 문형 목록의 수준이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적합한가?

ㄱ-2) 배열 순서가 적절한가?

ㄱ-3) 문형이 다른 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재도입되는가?

- (ㄴ) 새로운 문형이 도입되기 전에 연습을 위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가?
- (ㄷ) 문법은 문장 구조를 통하여 제시되어 있고 적합한가?
- (ㄹ) 문법 교수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 (ㅁ) 문법이 요약, 설명되는가?
- (ㅂ) 한국어의 조사, 사·피동, 시제, 경어법, 서법, 문장 종류 등의 문법 범주를 다루고 있는가?

이해영(2001: 4~32)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ㄱ) 새로운 언어 항목의 제시 및 연습을 위해 어떤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그것이 학습자에게 적합한가?
- (ㄴ)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을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 (ㄷ) 제시된 문법은 학습자의 숙달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가?
- (ㄹ)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용이 다루어졌는가?
- (ㅁ)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는가?
- (ㅂ) 새로 나온 문법 항목은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 (ㅅ) 문법 항목에 대한 연습은 4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었고, 실제적인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는가?
- (ㅇ) 문법을 위한 참고 부분이 있어 자습, 개별 학습 등에 적합한가?

서종학(2001)과 이해영(2001)은 위 조항을 문법 전체를 교육하는 교재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본고는 위 조항을 ‘-고x’라는 특정 문법 항목에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서종학(2001)의 (6)번의 경우 ‘한국어의

조사, 사·피동, 시제, 경어법, 서법, 문장 종류 등의 문법 범주를 다루고 있나?’와 같은 항목은 본고에서 고찰하는 내용과 관계가 크지 않다. 기존 교재를 검토해 보면 ‘-고x’가 교재 전체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x’의 교수 목록이고 하나는 ‘-고x’의 제시 시기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종학(2001)과 이해영(2001)은 모두 고찰 항목으로 보았다. 또 교재의 단원 구성은 대체로 ‘본문 - 단어 - 문법 -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고x’와 관계가 있는 부분은 ‘본문, 문법, 연습문제’이다. ‘본문’은 ‘-고x’를 활용하고 있는 예를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법’ 부분의 경우는 ‘문법설명’과 예시로 나눌 수 있는데. 문법 설명이 마땅한지, 예시가 적합한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연습문제 부분은 ‘-고x’에 대해 충분한 연습을 제공하였는지, 그리고 이해영(2001)에서 제시하는 ‘문법 항목에 대한 연습은 4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었고, 실제적인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는가?’ 등 내용도 검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x’에 대한 교재 분석을 하기로 한다.

1) ‘-고x’의 선택과 배열

① ‘-고x’의 필수 교수 항목이 교재에 들어갔는가?

Scott Thornbury(2000: 50~55)에서 문법 제시와 문법 활동은 얼마나 효율적인가(E-요인)¹⁴과 얼마나 적절한가(A-요인)¹⁵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x’의 교육 항목을 선택하는 데에 역시 효율성과 적합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김수정(2003: 61~62)에 따르면 ‘효율성이 문법 지식의 공

14) Scott Thornbury(2000: 50~55)에 따르면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경제성, 용이성, 유효성을 측정해야 한다. 경제성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가, 용이성은 실행하기에 얼마나 쉬운가, 유효성은 훌륭한 학습 원리와 일치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15) Scott Thornbury(2000: 50~55)에 따르면 활동의 적절성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학습자의 태도와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

급자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라면, 적합성은 문법 지식의 수요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효율성이란 적절한 항목의 제시와 간결한 설명, 실제 응용 가능성 등과 관련 있는 개념으로 사용 빈도가 대표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하였다.

‘-고x’의 필수 교수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용빈도를 근거로 하겠다. 사용 빈도에 관해서는 세종 말뭉치(현대문어), 국립국어원 (2005)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¹⁶⁾’를 검토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의 기출문제¹⁷⁾도 참고 자료로 삼겠다.

말뭉치에서 나타난 ‘-고x’의 목록과 출현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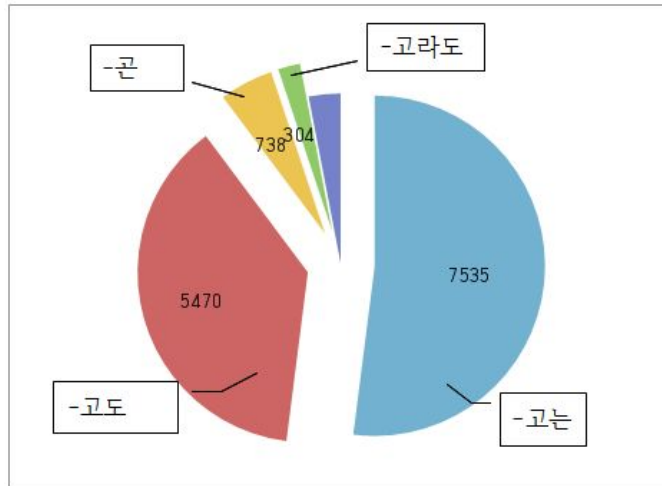
<표 11> 세종 말뭉치(현대문어)에 나타난 ‘-고x’의 목록과 사용빈도

16) 아래에서 ‘빈도2’를 부르겠다.

17) 본고 작성할 때까지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홈페이지에서 검색될 수 있는 기출문제 회수는 2회부터 35회까지이다. 따라서 본고의 검토 자료도 2~35회이다.

순 번	‘-고x’의 목록	빈 도
1	-고는	7535
2	-고도	5470
3	-곤	738
4	-고라도	304
5	-고부터	211
6	-고야	109
7	-고만	68
8	-고나	29
9	-고들	13
10	-고까지	7
11	-고라야	2

세종 말뭉치에서 조사된 ‘-고x’는 ‘-고는’, ‘-고도’, ‘-곤’, ‘-고라도’,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고라야’ 총 11개이다. 각 ‘-고x’의 빈도수가 최고 7535번에서 최저 2번까지 큰 차이가 보였다. 아래 <그림 5>는 세종 말뭉치의 ‘-고x’ 사용 총 수치에서 각각의 ‘-고x’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더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 세종 말뭉치에서 개별 '-고x'가 차지하는 비율

<그림 5>에서 드러났듯이 '-고는'의 사용 비율은 전체의 반을 넘고 있다. '-고는'과 '-고도'의 빈도수 비율을 합치면 89.8%이고, 거의 90%를 차지하는 것이다. '-곤'과 '-고라도' 두 개를 합치면 7.1%이다. 나머진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그리고 '-고라야'의 총합은 3%뿐이다. 이와 같은 비율은 국립국어원(2005)에서 하는 '빈도 조사2',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겠다.

<표 12> '빈도 조사2'에 나타난 '-고x'의 목록과 사용빈도

순번	목록	어미 전체에 차지하는 빈도 순위	빈도
1	-곤	91	742
2	-고도	110	454
3	-고는	128	305
4	-고야	212	23

출처: 국립국어원(2005)

‘빈도 조사2’의 결과에 따르면 ‘-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고도’와 ‘-고는’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고야’이다. 세종 말뭉치의 결과와 비교하면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의 ‘-고x’ 사용 빈도 비교

세종 말뭉치 순위		빈도 조사2에 있는 순위
1)	-고는	3
2)	-고도	2
3)	-곤	1
4)	-고라도	
5)	-고부터	
6)	-고야	4

우선 비슷한 부분을 찾으려면 ‘-곤’, ‘-고도’, ‘-고는’은 ‘빈도 조사2’에든 세종 말뭉치에든 모두 3위권 내에 있다. 차이가 보이는 부분을 찾으려면 ‘-곤’과 ‘-고는’의 빈도 순위의 차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세종 말뭉치에 6위에 있는 ‘-고야’는 ‘-고라도’와 ‘-고부터’를 뛰어넘고 빈도 조사2에 4위를 차지하였다. 이런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빈도 조사2’가 보조용언을 포함한 모든 문법 범주의 ‘-고x’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필자는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고x’를 배제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고x’만 통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곤’을 들어 설명하자면 ‘빈도 조사2’의 ‘-곤’은 문장을 이어주는 ‘-곤’인가 보조용언의 일원으로 쓰이는 ‘-곤 하다’의 ‘-곤’인가 알 수가 없다. ‘-고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종 말뭉치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된 한국어 능력시험의 기출문제에 나타난 ‘-고x’의 목록과 사용빈도 순위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시험 기출문제에 나타난 ‘-고x’의 목록과 사용빈도는 아래 <표 14>와 같다.¹⁸⁾

<표 14>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타난 ‘-고x’의 개황

‘-고x’ 목록	빈 도	급 수
-고도	57	초/중/고
-고는	33	중/고
-고라도	1	고
-고부터	1	고

<표 14>의 순위는 ‘-곤’에 차이가 조금 보인 것 제외하고는 세종 말뭉치와 일치한다. 많이 쓰이는 문법 항목일수록 한국어 능력시험의 평가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의 ‘-고x’ 출현 빈도에 대한 검토이다. 세종 말뭉치에 ‘-고x’의 수치가 11개로 가장 많고, ‘빈도 조사2’와 한국어 능력시험은 모두 네 개이다. 세 개의 자료에 모두 나타난 ‘-고x’는 ‘-고도’, ‘-고는’ 두 개이다.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고x’는 ‘-곤’, ‘-고야’ 두 개이고, 세종 말뭉치와 한국어 능력시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고x’는 ‘-고라도’, ‘-고부터’ 역시 두 개다. 세 개의 자료 중에 각각의 ‘-고x’가 나타난 회수를 제시하면 아래<표 15>와 같다.

<표 15> 세 개의 자료 중에 각각의 ‘-고x’가 나타난 회수

18)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타난 ‘-고x’에 더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부록 참조.

회 수	‘-고x’
3	-고도, -고는
2	-곤, -고야, -고라도, -고부터
1	-고만, -고라야, -고나, -고들, -고까지

본고는 세종 말뭉치, ‘빈도 조사2’,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타난 ‘-고x’ 중에서 한국 사람도 잘 안 쓰는 말뭉치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고라야’를 제외한 나머지 ‘-고x’는 평소에 쓰이는 문법 표현들이라서 교재의 교수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럼 실제로 교재에 들어간 ‘-고x’의 목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어진 내용에서 살펴보겠다. 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고x’는 어미화된 ‘-고x¹’과 조사 결합형 ‘-고x²’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 교재에 들어간 ‘-고x’의 목록을 살펴볼 때 ‘-고x’가 단독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는 경우, 그리고 ‘-고’나 조사 ‘x’를 설명할 때 ‘-고x’에 대해 언급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한국어 교재에 단독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고x’의 목록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문법 항목으로 단독 제시된 ‘-고x’의 목록 [한국어 교재]

	현지 교재				도입 교재				통계
	민족	요녕	흑룡강	표준	연세	외대	가나다	서울대	
-고는		2		1	1				4
-곤		1							1
-고도	1	1	1		2		1		6

-고만		1							1
-고라도	1								1
통 계	2	5	1	1	3	0	1	0	13
	9				4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여덟 가지의 교재 중에서 중국 현지 교재 「요녕」은 ‘-고는’이 2번, ‘-곤’, ‘-고도’, ‘-고만’이 각각 1번, 총 5번이며 ‘-고x’의 문법 항목이 가장 많은 교재로 본다. 그 다음은 도입 교재 「연세」가 세 번, 현지 교재 「민족」이 두 번이다. 현지 교재 「흑룡강」, 「표준」, 도입교재 「가나다」가 각각 한번만이다. 「외대」, 「서울대」의 경우 ‘-고x’에 관한 문법 항목이 없다. 세종 말뭉치나 ‘빈도조사2’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나타난 ‘-고야’, ‘-고라야’, ‘-고나’, ‘-고들’, ‘-고부터’, ‘-고까지’는 문법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재에 ‘-고는’, ‘-곤’, ‘-고만’을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고는/곤 하다’, ‘-고만 + say동사’, 즉 보조동사와 연결하거나 ‘-고’는 인용 기능을 한다. 그래서 실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고x’의 수량은 이보다 훨씬 더 적다.

이어서 ‘-고’나 조사‘x’를 설명할 때 ‘-고x’를 언급한 경우를 보겠다. 우선 ‘-고’를 설명할 때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여덟 가지 교재에 모두 없다. 간혹 조사 ‘x’를 설명할 때 일부분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거나 더 구체적으로 ‘-고’와 연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이런 경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설명 부분에 ‘-고x’의 형식을 언급하거나 보조사 ‘x’가 일부분 연결어미 뒤에 쓰일 수 있다고 하고, 예문에서도 문장을 연결하는 ‘-고x’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B: 설명 부분에 ‘-고x’의 형식을 언급하거나 보조사 ‘x’가 일부분 연결어미

뒤에 쓰일 수 있다고 했으나 예문에서는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고x’ 활용 예문만 제시하였다.

C: 설명 부분에 ‘-고x’의 형식을 언급했으나 ‘-고x’를 활용한 예문이 없다.

D: 조사 ‘x’가 일부분의 연결어미 뒤에 쓰이는 설명만 있고 ‘-고’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예문도 없다.

<표 17> 조사 ‘x’에서 ‘-고x’를 제시하는 교재

	현지 교재				도입 교재				통계
	민족	요녕	흑룡강	표준	연세	외대	가나다	서울대	
들	B			B	C		D		4
야/이야	C		D				B		3
은/는		A	D		D				3
라도/이라도		A	D						2
만	D		B						2
나/이나			A						1
까지					D				1
통계	3	2	5	1	3	0	2	0	16
	11				5				

<표 17>에 따르면 빈도수의 순서대로 조사 ‘들’, ‘야/이야’, ‘은/는’, ‘라도/이라도’, ‘만’, ‘나/이나’, ‘까지’ 모두 7개의 조사를 설명할 때 ‘-고’와 연결할 수 있다거나 연결어미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x’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설명하는 것과 조사 ‘x’를 설명할 때 간접적으로 ‘-고x’를 설명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덟 가지의 교재가 ‘-고x’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킨 여부는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한국어 교재에 ‘-고x’에 대한 학습 내용 포함 여부

	현지 교재				도입 교재				통계
	민족	요녕	흑룡강	표준	연세	외대	가나다	서울대	
-고는		○	○	○	○				4
-고도	○	○	○		○		○		5
-곤		○							1
-고라도	○	○	○						3
-고부터									0
-고야	○		○				○		3
-고만	○	○	○						3
-고나			○						1
-고들	○			○	○		○		4
-고까지					○				1
통 계	5	5	6	2	4	0	3	0	25
	1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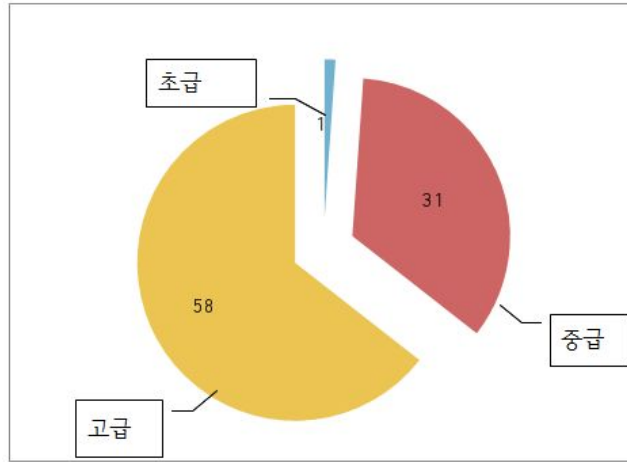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에서 3위권에 들어가는 ‘-곤’은 「연세」에서만 제시되었고 다른 교재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제시된 적이 없다. 또한, 세종 말뭉치의 빈도수 순위 4위에 차지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도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고라도’는 여덟 가지 교재 중에 세 권에만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종 말뭉치의 빈도수의 순위 5위에 차지하고 한국어 능력시험에도 나오는 ‘-고부터’는 여덟 가지 교재에 단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다.

② ‘-고x’의 제시 시기는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부합하는가?

‘-고x’의 제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 제시순서는 형태적 난이도와 학습자 심리적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형태적 난이도는 각각의 ‘-고x’의 획수나 발음할 때의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심리적 난이도를 결정 조건으로 보겠다. 학습자의 심리적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에 주로 세 가지 사항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의 빈도수이다. 빈도수가 높을수록 일상 언어생활에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접할 것이다. 언어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학습 동기가 생긴다. 또 많이 접할수록 생소하지 않으니까 학습하기가 쉬울 것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의 각 ‘-고x’가 출현하는 급수이다. 중국 현지에서 졸업하고 취직하거나 한국에 유학 오려면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증서를 목표로 삼고 공부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의 각 ‘-고x’의 출현하는 급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셋째, ‘-고’와 조사 ‘x’가 교육 과정에서의 교수 시기이다. ‘-고x’는 ‘-고’와 조사 ‘x’가 모두 교재에 소개된 후에 제시해야 한다. 물론 ‘-고도’처럼 ‘-고’와 ‘x’의 개별 의미와 상관없이 어미화된 ‘-고x¹’도 있지만, ‘학교에 버스를 타고도 가고 택시를 타고도 간다.’와 같은 ‘-고’와 조사 ‘도’의 결합형으로 봐야 하는 ‘-고x²’도 있다. 학습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고’와 ‘x’를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는 후에 단계적으로 ‘-고x’를 교수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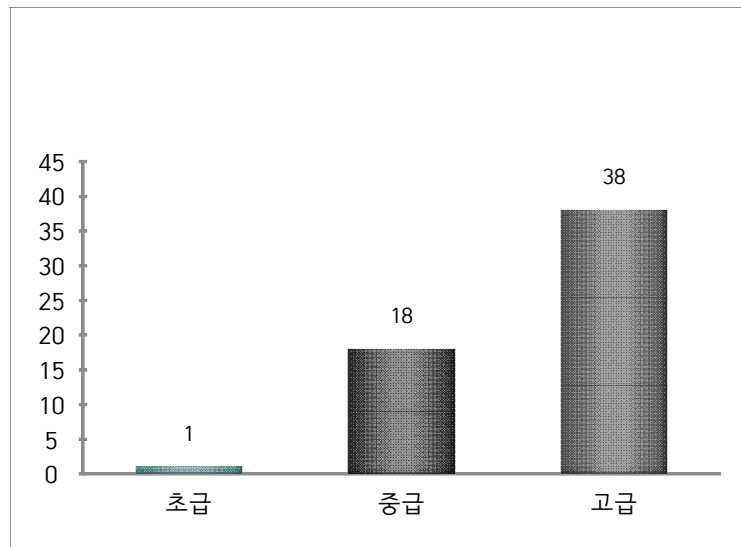
우선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의 빈도수를 따르면 ‘-곤’, ‘-고도’, ‘-고는’ 세 개의 빈도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고야’, ‘-고라도’, ‘-고부터’이다. 마지막으로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이다.

그 다음에 한국어능력시험의 각 ‘-고x’가 출현하는 급수이다. 각 ‘-고x’가 한국어능력시험의 어떤 등급의 평가항목으로 해당하는지 아래 <그림 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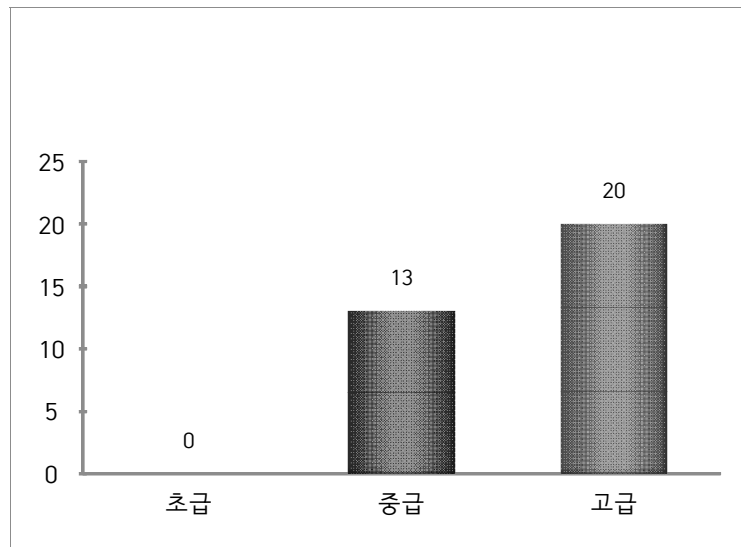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타난 '-고x'의 급수 분포

한국어 능력시험 기출문제에 나타난 '-고x'는 '-고도', '-고는', '-고라도', '-고부터' 모두 4개였다. 출현하는 등급 수는 '-고라도', '-고부터'의 경우는 모두 고급에만 출현하고 '-고는'은 중급과 고급에 출현한 적이 있고 '-고도'는 초급, 중급, 고급 시험에 모두 출현한 적이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고x'는 초급에 한 번만 나타났고, 중급에는 31번, 고급에는 58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고도'와 '-고는'은 한 급수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각 급수에 나타난 회수를 <그림 7>과 <그림 8>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그림 7> '-고도'의 급수 분포

'-고도'는 초급, 중급, 고급 시험에 모두 출현한 적이 있지만 1999년 제3회의 초급 읽기 시험에 한번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 초급 시험에 나타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는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 '-고도'가 있다고 하기보다 시험이 실행하는 초기에 실수로 초급 시험에 '-고도'를 넣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8> '-고는'의 급수 분포

'-고는'은 중급 시험과 고급 시험에만 나타났다. '-고도'와 '-고는'은 모두 고급 시험에 더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중급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고도'와 '-고는'은 중급 단계의 교수 항목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국어능력 시험에 따르면 '-고도'와 '-고는'은 중급 단계, '-고라도', '-고부터'는 고급 단계에 교수되어야 한다. 이런 결과는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의 빈도수 순위에도 부합된다.

셋째, 여덟 가지 교재를 보면 '-고'의 용법은 중급 단계에 모두 학습될 것이고, 각 조사 'x'도 중급 수준에 학습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3가지의 기준을 통합해서 보면 '-고도', '-고는', '-곤'은 중급 단계에 교수되어야 하고, '-고라도',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는 고급단계에 교수되어야 한다.

그럼 각 교재는 '-고x'들을 어느 교수시기에 배치하였는지 지금부터 살펴 보겠다.

<표 19> ‘-고x’의 난이도 제시 [현지 교재]

		민족		요녕		흑룡강		표준		통계
		출현 권수 /총 권수	등급	출현 권수 /총 권수	등급	출현 권수 /총 권수	등급	출현 권수 /총 권수	등급	
-고는	직 접 ¹⁹⁾			2/6	초			4/6	중	초1 중2
				3/6	중					
	간 접 ²⁰⁾			1/6	초	5/6	고			초1 고1
-고도	직접	3/4	중고	3/6	중	2/6	초			초1 중1 중고 1
	간접									
-곤	직접			5/6	고					고1
	간접									
-고라도	직접	3/4	중고							중고 1
	간접			4/6	중	3/6	중			중2
-고부터	직접									
	간접									
-고야	직접									
	간접	2/4	초중			3/6	중			초중 1 중1
-고만	직접			4/6	중					중1
	간접	1/4	초			1/6	초			초2
-고나	직접									

	간접					5/6	고			고1
-고들	직접									
	간접	2/4	초중					3/6	중	초중 1 중1
-고까지	직접									
	간접									

<표 20> '-고x'의 난이도 제시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

		연세		가나다		통계
		출현 권수 / 총권수	등급	출현 권수 / 총권수	등급	
-고는	직접	3/6	중			중1
	간접	1/6	초			초1
-고도	직접	3/6	중	5/6	고	중1 고2
		5/6	고			
-곤	직접					
	간접					
-고라도	직접					
	간접					
-고부터	직접					
	간접					
-고야	직접					
	간접			5/6	고	고1
-고만	직접					

- 19) 교재에서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단독으로 제시되는 방식을 '직접'이라고 부른다.
 20) 교재에서 조사 'x'를 설명할 때 '-고x'를 제시하는 방식을 '간접'이라고 부른다.

	간접					
-고나	직접					
	간접					
-고들	직접					
	간접	2/6	초	3/6	중	초1 중1
-고까지	직접					
	간접	1/6	초			초1

<표 19>와 <표 20> 중에서 나타난 여덟 가지 교재에 각각의 ‘-고x’의 출현 시기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중급 단계의 교수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고는’, ‘-곤’, ‘-고도’의 제시 시기를 보겠다.²¹⁾

<표 21> 한국에서 도입된 중급 수준 교재 ‘-고x’의 제시 현황

목록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고는	1		2		1
-곤					1
-고도	1		2	1	1
통 계	2	0	4	1	3
비 율	20%	0	40%	10%	30%

21) 같은 교재에 같은 ‘-고x’ 항목이 두 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최초에 나타나는 시기를 제시하기로 본다. 단,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모두 있을 때, 문법 설명에 명시적으로 ‘-고’와 결합할 수 있다거나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고 예문에도 문장을 연결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고x’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직접적인 제시 시기를 제시하기로 삼겠다. 예를 들면, 「연세」의 경우는, ‘-고는’에 대해 중급 교재에 직접적인 설명 내용도 있고, 초급 교재에 ‘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설명 내용도 있다. 하지만 초급 교재에 나타난 설명에는 ‘-고’라는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거나 예문에 문장을 연결하는 ‘-고x’에 대한 예문이 없어서 「연세」 교재의 ‘-고는’의 제시 시기는 중급으로 보겠다.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급 교육 단계에 나타나야 하는 ‘-고는’, ‘-곤’, ‘-고도’는 중급 교재에 나타난 회수는 네 번이다. 40%도 도달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초급에 2회, 고급에 3회 중고급 1회로 되어 있다. 초급 수준의 학습자는 ‘-고’의 일부분 의미만 파악했을 것인데 이 시기에 결합형 ‘-고는’, ‘-곤’, ‘-고도’를 교수하는 것이 물론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또 고급 수준이 되고서야 ‘-고는’, ‘-고도’를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학습자도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감을 겪게 할 것이다.

이어서 고급 단계의 교수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고라도’,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의 제시시기를 보겠다.

<표 22> 한국에서 도입된 고급 수준 교재 ‘-고x’의 제시 현황

목록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고라도			2	1	
-고부터					
-고야			1		2
-고만	2		1		
-고나					1
-고들	1	1	2		
-고까지	1				
통 계	4	1	6	1	3
비 율	27%	7%	40%	7%	20%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급 수준에 제시되어야 하는 ‘-고x’는 의외로 중급과 초급 단계에 몰려 제시 되었다. 초급, 초중급, 중급에 나타난 ‘-고x’를 합치면 70%를 넘겼다. 중고급과 고급에 나타난 ‘-고x’는 불과 27%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현재 중국 현지에서 쓰이는 교재는 ‘-고x’에 대한 교수 내용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시 시기가 적합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다. 이어서 이 교재들에 제시된 ‘-고x’의 설명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았는지, 또 예시는 적절한지를 살펴보겠다.

2) ‘-고x’에 대한 설명

이 부분에서는 ‘-고x’의 의미와 통사적인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각 ‘-고x’에 대한 문법 설명이 적절한지를 더 잘 살피기 위해 개별 ‘-고x’의 의미적 특징을 아래 <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통사적 특징은 어미화된 ‘-고x¹’, 그리고 조사 결합형 ‘-고x²’ 중에 같은 의미인 ‘-고’와 통사적인 특징이 다른 것만 <표 2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3> ‘-고x’의 의미적 특징

목 록	어미화 여부	의 미		예 문
-고는/-곤	어미화	가정적인 조건		술을 마시지 않고 는 못 살겠다.
	조사 결합형	계기+강조		일을 끝내고 는 갔다.
-고도	어미화	양보		밥을 먹고 도 배고프다.
	조사 결합형	방법이나 동시+역시		눈을 크게 뜨고 도 보고, 실눈을 뜨고 도 본다.
		병렬+강조		간단하고 도 쉽다.
		첨가+강조		예쁘고 도 예쁘다.
-고라도	어미화	양보		마주 보고 라도 인사를 안 했다.
	조사 결합형	방법이나 동시	아쉬운 대로 받아 들임.	들것을 가지고 라도 올 줄 알았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극단 선택	하늘을 두고 라도 맹세할 수 있었다.
-고부터	조사 결합형	계기+기점		내가 태어나고 부터 단 하루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날이 없다.
-고야	어미화	필수조건		한국이 있고 야 한국 사람이 있다.
	조사 결합형	계기+비로소		난세에 저하고 야 비로소 태평 시절이

				복인 줄 안다.
		방법이나 동시+강조		이렇게 끓고야 사는 수가 있나?
		조건+강조		잠을 안 자고야 어찌 사옵니까?
-고만	조사 결합형	계기	최소 기대	잠시 뵈고만 잠게요.
			한정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웃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치절하게 손을 잡아 일으켜준다.
		방법이나 동시	최소 기대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겠어요. 데리고만 가주세요.
			한정	연애 편지를 쓰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다녔어
			강조	진정 마음먹고만 끈다면 하루만으로도 tv가 반드시 일용의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고나	조사 결합형	계기+최소의 조건
방법이나 동시	차선			이걸 보고 조신이 넘어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오거든 몸에 지니고나 땀기 라고 일러라.
	강조			사내 자식이 두들겨 맞고나 다니고.
-고들	조사 결합형	계기+주체복수		오늘은 이만들 하십시오. 내 간소한 주연을 준비했으니 들고들 가지지요.
		방법이나 동시+주체복수		좁 댈 탐내고들 살아.
-고까지	조사 결합형	방법이나 동시+극단적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까지 담배를 피워야만 할까?

<표 24> '-고x'의 통사적 특징

분류	의미		목록	통사적 특징				
				주어	술어	종결법	시상어미	기타
어미화된 '-고x'	조건	가정적인 조건	-고는/-곤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추측의문문은 제약 받음	x	선·후행절 술어: 부정의미
		필수조건	-고야	주어가 달라야 함		평서문, 수사의문문만 가능	x	없음
		필수조건	-고라야	제약 없음				
	양보	-고도 -고라도	동일 주어 제약	선행절 술어: 반드시 동사이어야 함	제약 없음	x	없음	

	계기	-고만 -고나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제한 없음	x	없음
결합 형 '-고 x'	병렬	-고도	동일 주어 제약	선행절과 후행절 은 일반적으로 모 두 형용사임. 선행절이 형용사 이면 후행절은 동 사이어도 가능하 고 평가적인 의미 를 가진 명사도 가능함.	평서문, 수사 의문문만 가능	x	없음

‘계기’의 ‘-고만’과 ‘-고나’는 ‘계기’의 ‘-고’와 통사적인 특징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계기’의 ‘-고’는 동일 주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형은 동을 던지고 동생은 공을 받는다’. 하지만 ‘-고만’과 ‘-고나’는 다른 ‘계기’인 ‘-고x’와 달리 주어가 다르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둘째, ‘계기’인 ‘-고’가 선행절이 동사이어야 하는데 후행절은 동사이나 형용사는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신문을 읽고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3장에서도 검토하였지만 ‘-고만’과 ‘-고나’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는 필히 동사이어야 한다.

병렬의 ‘-고도’와 병렬의 ‘-고’는 통사적인 특징이 크게 다르다. 문장에 차지하는 비중만 같으면 주어가 다르거나 같거나 상관없고, 술어가 형용사이나 동사이나 상관없는 ‘-고’와 달리 ‘-고도’는 한 가지의 대상에 대해 묘사하는 어미로써,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며 술어가 일반적으로 형용사인데 선행절이 형용사이면 후행절은 동사이나 평가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도 가능하다. 또한 ‘-고’는 종결법 제약을 받지 않지만 ‘-고도’는 평서문, 수사의문문에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병렬의 ‘-고’ 앞에 시상어미가 쓰일 수 있지만 ‘-고도’ 앞에 시상어미를 쓰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① -고는/-곤

‘-곤’은 ‘-고는’의 축약형으로서 ‘-고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통사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고는’와 ‘-곤’을 같이 보겠다. 우선 각 교재에 독립된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고는/-곤’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겠다.

<표 25>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고는’에 대한 설명

교 재	설 명
민족	없음
요녕	(제2권: 115) 連接語尾 用于謂詞后, 以‘-고는/곤 하다’的形式表示反復. 연결어미 서술어 뒤에 쓰여 ‘-고는/곤 하다’의 형식으로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제3권: 27) 連接語尾 ‘-고는’是連接語尾‘-고’和助詞‘-는’結合而成的連接語尾, 強調語尾‘-고’所表示的先后關係、原因等。 연결어미 ‘-고는’은 연결어미 ‘-고’와 조사 ‘-는’이 결합된 연결어미이다. 어미 ‘-고’가 나타낸 선후관계, 원인 등 의미를 강조한다.
흑룡강	없음
표준	(제4권: 54) 連接詞尾

	<p>連接詞尾‘-고는’, 由連接詞尾‘-고’和補助詞‘는’組合構成。用于動詞詞干后, 表示動作一前一后發生。類似于漢語的‘.....后’。</p> <p>연결어미</p> <p>연결어미 ‘-고는’은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는’이 결합된 형식이다. 동사 어간 후에 쓰여 동작의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后’와 비슷하다.</p>
연세	<p>(제3권: 128~129)</p> <p>慣用型</p> <p>用于動詞詞干后面, 表示連貫。即完成前面的動作或行爲后, 再進行后面的動作或行爲。</p> <p>관용표현</p> <p>동사어간 뒤에 쓰여, 이어짐을 나타낸다. 즉, 앞의 동작이나 행위를 완성한 후에 뒤의 동작이나 행위를 진행한다.</p>
외대	없음
가나다	없음
서울대	없음

<표 26>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곤’에 대한 설명

교재	설명
민족	없음
요녕	<p>(제5권: 10)</p> <p>축약형태</p> <p>‘곤’은 어미 ‘-고’와 조사 ‘-는’이 합쳐진 ‘고는’이 축약된 형태로서 그 앞의 사실을 강조한다.</p>

흑룡강	없음
표준	없음
연세	없음
외대	없음
가나다	없음
서울대	없음

이어서는 조사 ‘는’을 설명할 때 간접적으로 ‘-고는’을 설명하는 교재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27> 조사 ‘는’에서 ‘-고는’을 설명하는 교재

교재	설명
민족	없음
요녕	(제1권: 97) -는/은 助詞 ‘-는/은’是添意助詞, 這一課里的‘-는/은’表示強調。 ‘-는/은’表示強調時可用于体詞后, 也可用于副詞、格助詞、詞尾之后。 조사 ‘-는/은’은 첨의조사이다. 이 과의 ‘-는/은’은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는/은’은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 체언 뒤에 쓰일 수도 있고 부사, 격조사, 어미 뒤에도 쓰일 수 있다.
흑룡강	(제5권: 47)

	<p>-는</p> <p>보조사</p> <p>1) 받침 없는 명사나 부사어, 일부 연결어미 뒤에 붙어 그 행위나 상황 자체를 강조하거나 행위의 선후 관계를 강조할 때 쓴다.</p> <p>2) 받침 없는 명사나 부사어, 연결어미 또는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에 붙어 둘 이상을 대조하여 각각에 대해 말할 때 쓴다.</p> <p>3) ['가기는 간다'와 같이 반복되는 두 말을 잇는 곳에 쓰이어] 앞의 사실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건이 뒤따름을 나타낸다.</p>
표준	없음
연세	<p>(제1권: 89)</p> <p>-은/-는</p> <p>助詞</p> <p>用于体詞和部分助詞、詞尾后面， 体詞和助詞、詞尾的開音節后面用-는， 閉音節后面用-은。 表示主題， 即句子陳述的中心。 用于体詞后面時， 常常表示句子的主語， 或是強調的賓語。</p> <p>조사</p> <p>체언과 일부분 조사, 어미 뒤에 쓰인다. 체언과 조사, 어미가 받침이 없으면 뒤에 '-는'을 쓰고, 받침이 있으면 뒤에 '-은'을 쓴다. 주제를 나타내며 문장이 서술하는 중심을 나타낸다. 체언 뒤에 쓰일 때,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거나 목적어를 강조한다.</p>
외대	없음

가나다	없음
서울대	없음

우선 설명 내용에서 ‘-고는’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였는지 보겠다. 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고는/-곤’은 어미화된 ‘-고는’과 조사 결합형 ‘-고는’이 있다. 어미화된 ‘-고는’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며, 조사결합형 ‘-고는’은 ‘계기+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직접적으로 ‘-고는’을 제시한 「요녕」, 「표준」, 「연세」는 ‘-고는’이 계기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요녕」의 경우는 ‘계기’뿐만 아니라 ‘원인’의 의미도 있다고 하였다. ‘-곤’의 경우는 「요녕」에는 ‘앞 사실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또한 형태소 분석에 대하여 「요녕」, 「표준」은 ‘-고는’은 ‘-고’와 조사 ‘는’의 결합형으로 보았다. 이렇게 분석하면 ‘-고는’의 의미는 ‘계기’일 수밖에 없는데 「요녕」은 ‘계기’와 ‘원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설명을 이어 예문 네 개를 들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계기’로 해석하는 문장인데, 또 하나는 ‘일을 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다.’이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 ‘조건’의 의미다. 그래서 「요녕」은 형태소의 분석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요녕」은 ‘-곤’의 의미를 앞 사실을 강조한다고 설명하며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었다.

- (1) 달라진 것이라곤 책상뿐이다.
- (2) 사람이 밥만 먹곤 살 수 없다.
- (3) 책가방을 놓곤 밖으로 나갔다.

교재에서 (1)을 ‘-곤’에 관한 예문으로 들었지만, 여기서 ‘-곤’을 ‘것+이라곤’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라곤’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다. (2)는 밥만 먹으면 살 수가 없는 뜻이라 ‘조건’의 뜻을 나타낸다. (3)은 책가방을 놓은 후에 밖을 나간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계기’의 뜻을 나타낸다. 어느 예문이든 ‘ㄴ’이 강조의 의미를 가지더라도 ‘-곤’은 ‘앞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조사 ‘는’을 통해 ‘-고는’를 설명하는 교재는 「요녕」, 「흑룡강」, 「연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교재는 모두 연결어미에 붙어 쓸 수 있다는 설명만 있을 뿐 그 연결어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설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연결어미에 붙이는 ‘는’의 의미도 「요녕」은 ‘강조’, 「흑룡강」은 ‘대조’, 「연세」는 ‘주체 표현’ 등 다르게 나왔다. ‘-고’와 연결된 ‘는’은 ‘계기’의 의미를 강조할 뿐 ‘대조’나 ‘주체 표현’의 뜻이 없으니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쉽다.

이어서 통사적인 설명을 보겠다. ‘계기’의 의미로 쓰인 ‘-고는’는 ‘계기’의 ‘-고’와 통사적인 특징이 같아서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반면에 어미화된 ‘-고는’에 대해서는 추측의문문에 쓰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부정의미이어야 하는 것을 목표 문법 설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② -고도

우선 ‘-고도’의 의미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미화된 양보의 ‘-고도’, 조사결합형인 ‘병렬’, ‘첨가’, ‘방법이나 동시’의 ‘-고도’이다.

그럼 교재의 설명 부분에 ‘-고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이어서 교재에 ‘-고도’에 대한 설명을 보겠다.

<표 28>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고도’에 대한 설명

교 재	설 명
민족	<p>(제3권: 155)</p> <p>連接語尾</p> <p>并列前后两个事实，表示尽管存在前一事实，但却出现与之相反的后一事实。</p> <p>연결어미</p> <p>두 사실을 나란하게 연결하여, 앞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반대된 뒷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냄.</p>
요녕	<p>(제3권: 122)</p> <p>复合語尾</p> <p>‘-고도’是語尾‘-고’和助詞‘-도’結合而成的复合語尾。用于謂詞后，強調‘-고’所表示的條件、并列、轉折等意義。‘-고도’不能用于時態語尾‘-았/었/였/겠’后面。</p> <p>복합어미</p> <p>‘-고도’는 어미 ‘-고’와 조사 ‘-도’가 결합한 복합어미이다. 서술어 뒤에 쓰여, ‘-고’가 나타난 조건, 병렬, 전환 등 의미를 강조한다. ‘-고도’는 시제어미 ‘-았/었/였/겠’ 뒤에 못 쓰인다.</p>
흑룡강	<p>(제2권: 146~147)</p> <p>連接詞尾</p> <p>連接詞尾‘-고도’是由連接詞尾‘-고’与添意助詞‘-도’連用的形式。表示轉折關係，前面不能加時制詞尾。</p>

	<p>연결어미</p> <p>연결어미 '-고도'는 연결어미 '-고'와 첨의조사 '-도'가 연결해서 쓰는 형식이다. 전환관계를 나타내며 앞에 시제어미가 못 쓰인다.</p>
표준	없음
연세	<p>(제3권: 226~227)</p> <p>慣用型</p> <p>用于動詞詞干后面，表示轉折或讓步。類似于漢語的“即使(做)了.....也.....”。'-고도'前面不能使用時制詞尾。</p> <p>관용표현</p> <p>동사 어간 뒤에 쓰여, 전환이나 양보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即使(做)了.....也.....”와 비슷하다. '-고도' 앞에 시제어미가 못 쓰인다.</p>
외대	없음
가나다	<p>(제5권: 130)</p> <p>동작 동사에 붙어 선행 동사의 동작이 완료된 후에 일어난 후행절의 내용이 선행절의 내용과 모순되어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일치해야 한다. 또한 일부 상태 동사에 붙어 어떤 것이 대립되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p>
서울대	없음

조사 '도'를 설명하는 부분에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거나 '-고'와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어서 <표 28>에서 제시된 내용만 검토하기로 한다.

'-고도'에 대한 설명은 「민족」, 「요녕」, 「흑룡강」, 「연세」, 「가나

다」 다섯 개가 있다. 이 다섯 개는 ‘양보’, ‘대립’, ‘반대’, ‘모순’, ‘전환’ 등 표현으로 어미화된 ‘-고도’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요녕」의 경우 ‘조건’, ‘병렬’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는 중국어 학교 문법에 양보관계를 가진 문장이 있지만, 문장의 종류를 나눌 때 대립관계 문장과 양보관계 문장을 하나로 묶어 ‘轉折(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표현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도입된 「연세」를 제외하고는 ‘양보’라는 표현을 쓰는 교재는 단 한 권도 없다. 그럼 중국 학습자에게 중국 문법을 기준으로 삼아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나? 이 문제에 대해 3장에서도 논의했듯이 ‘대립’과 ‘양보’가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학습자가 더 정확하게 어미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들기 위해 ‘대립’과 ‘양보’라는 표현과 둘의 차이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고도’에 대한 범주 소개는 ‘연결어미’, ‘복합어미’, ‘관용표현’ 등 세 가지가 있다. 「요녕」을 제외하고는 다른 네 가지 교재에 모두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도’에 대해 설명했다. 어미화된 형식으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연결어미’의 범주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흑룡강」은 ‘-고’와 ‘도’가 결합해서 형성된 연결어미나 「요녕」은 ‘복합어미’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

교재 중에서 「요녕」을 제외하고는 ‘-고도’에 대한 설명은 ‘양보’만 있고 ‘-고’와 ‘도’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나 동시’, ‘병결’, ‘첨가’ 등 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런 점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용법을 교수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만 문법 항목과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독의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후술된 개선 방안 부분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고’와 ‘x’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결합형은 조사 ‘x’의 용법을 설명할 때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사적인 특징은 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의미에 따라 통사적인 특징도 다르다. 교재에서 제시된 ‘시상어미’ 뒤에 ‘-고도’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도 받는다. 예를 들면,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 ‘-고도’는 동일 주어 제약, 그리고 선행절 술어가 반드시 동사이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교재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부족하다. 「요녕」, 「후룡강」은 시상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고만 하였으며, 「연세」의 경우는 ‘양보’나 ‘전환’의 의미로 쓰일 때 반드시 동사 뒤에 쓰인다고 하였다. 「가나다」의 경우는 ‘-고도’의 의미가 ‘모순’일 때는 ‘주어 일치’제약을 받고, ‘대립’일 때는 술어가 꼭 형용사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③ -고라도

<표 29>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고라도’에 대한 설명

교재	설명
민족	(제3권: 117) 慣用型 相当于漢語的“即使……也”、“就是……也”。 관용표현 중국어의 “即使……也”、“就是……也”와 흡사하다.
요녕	없음
후룡강	없음
표준	없음
연세	없음

외대	없음
가나다	없음
서울대	없음

<표 30> 조사 ‘라도’에서 ‘-고라도’에 대한 교재별 설명

교재	설명
민족	없음
요녕	<p>(제4권: 110)</p> <p>라도/이라도</p> <p>助詞</p> <p>“라도/이라도”多與語尾“기, 고, 어서”結合, 以“기라도, 고라도, 어서라도”的複合形態, 表示讓步性選擇。</p> <p>조사</p> <p>“라도/이라도”가 어미 “기, 고, 어서”와 많이 결합되고 “기라도, 고라도, 어서라도”의 복합형태로 양보적인 선택을 나타낸다.</p>
흑룡강	<p>(제3권: 212~213)</p> <p>-라도/이라도</p> <p>助詞</p> <p>接在名詞、副詞、連接詞尾后面, 表示甲事物得不到, 退一步取乙事物。 相当于漢語的“哪怕.....也.....”等意。 開音節后面接“라도”, 閉音節后面接“이라도”</p> <p>조사</p> <p>명사, 부사, 연결어미 뒤에 쓰여, 갑 사물을 얻지 못해서 한 걸</p>

	음 물러서고 을 사물을 택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哪怕.....也.....”의 뜻과 흡사하다. 받침이 없으면 ‘라도’가 쓰이고, 받침이 없으면 뒤에 ‘이라도’가 쓰인다.
표준	없음
연세	없음
외대	없음
가나다	없음
서울대	없음

‘-고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가진 어미화된 ‘-고라도’와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를 가진 조사 결합형 ‘-고라도’가 있다. 하지만 둘 중의 어떤 용법으로 쓰이든지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은 동일하다. 이런 경우는 형태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습자에게 굳이 형태소 하나인가 두 개인가의 문제 때문에 중국인 의식에 선·후행 문장이 똑같은 의미 관계를 지니는 ‘-고라도’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런 면을 봐서 지금 현행 교재가 잘 편찬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족」의 ‘관용표현’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고 연결어미로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④ -고야

<표 31> 조사 ‘야’에서 ‘-고야’에 대한 교재별 설명

교재	설명
민족	(제4권: 113)

	<p>-야/-이야</p> <p>補助詞</p> <p>(1) 用來強調，表示有所區別。</p> <p>(2) 用于語尾-아서/-어서/-여서或-고/-고서等后，表示強調某種條件。</p> <p>(3) 常用于-에后，用來強調一定的時間或空間的範圍。</p> <p>보조사</p> <p>(1) 강조할 때 쓰여, 구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p> <p>(2) 어미 ‘-아서/-어서/-여서’ 혹은 ‘-고/-고서’ 뒤에 쓰여, 어떤 조건을 강조한다.</p> <p>(3) ‘-에’ 뒤에 많이 쓰여, 일정한 시간이나 공간의 범위를 강조한다.</p>
요녕	없음
흑룡강	<p>(제3권: 40~41)</p> <p>-야/-이야</p> <p>助詞</p> <p>用于体詞，副詞，連接詞尾，合成動詞后面，表示強調。“-야”接在開音節后面，“-이야”接在閉音節后面。</p> <p>조사</p> <p>체언, 부사, 연결어미, 합성 동사 뒤에 쓰여,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야’는 받침이 없을 때 쓰이며 ‘-이야’는 받침이 있을 때 쓰인다.</p>
표준	없음
연세	없음
외대	없음

가나다	(제5권: 10~11) -(이)야 다른 것을 배타적으로 물리치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앞의 명사는 물론 당연히 인정한다는 의미의 조사이다. 명사 외에도 부사구나 일부 연결 어미에 붙어 '~고야', '~(으)면야' 등의 형태로 사용되어 그 뜻을 강조한다.
서울대	없음

‘-고야’는 어미화된 필수조건인 ‘-고야’와 조사결합형의 ‘-고야’가 있다. 교재에서 소개된 ‘-고야’는 연결어미 ‘-고’와 조사 ‘야’의 결합형이다. 의미는 ‘-고’의 의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는 ‘계기+비로소’이다. 선행절의 행위가 일어난 후에 비로소 후행절 행위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둘째는 ‘방법이나 동시+강조’이다. 선행절이 후행절의 ‘방법이나 동시’인데 ‘야’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조건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야’의 존재함으로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서 ‘야’는 두 가지의 용법이 있다. ‘비로소’와 ‘강조’이다. 문법 항목수를 줄이기 위해 결합형으로 볼 수 있는 ‘-고x²’는 ‘x’조사를 설명할 때 소개하되 ‘야’의 의미에 따라 결합되는 ‘-고’의 의미도 다름이 있다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야’가 ‘비로소’의 의미로 쓰일 때 연결되는 ‘-고’의 의미는 ‘계기’, ‘강조’의 의미로 쓰일 때 연결되는 ‘-고’의 의미는 ‘방법이나 동시’와 ‘조건’이다.

「민족」에 ‘야’의 의미가 ‘강조’라고 설명하였다. 이럴 때 ‘-고’와 연결해서 ‘조건’을 강조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야’가 ‘강조’의 의미로 쓰일 때 ‘-고’가 ‘조건’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동시’의 용법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다. 또 ‘야’의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고’와 연결될 수 있는데 이 교재에 그런 설명이 없다. 이러기에 학습자가 모든 ‘-고야’의 의미를 ‘조건+

강조'로 해석하는 것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독서나 대화에서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학습자가 '-고야'를 구사할 때도 '조건+강조' 하나의 의미만 사용할 것이다.

「흑룡강」은 역시 '야'가 '강조'의 의미로 쓰일 때 연결어미와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만 있다. 그 연결어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로 쓰일 때는 연결되는지 설명이 없다. 학습자한테는 의미가 애매모호하고 활용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나다」에는 '야'의 뜻을 설명할 때는 '다른 것을 배타적으로 물리치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앞의 명사는 물론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설명하였지만 '-고'와 연결할 때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나다」와 같은 설명은 학습자에게 '야'나 '-고야'에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고 본다.

⑤ -고만

<표 32> 문법 항목으로 소개된 '-고만'에 대한 설명

교재	설명
민족	없음
요녕	(제4권: 184) 复合形態 '-고만'是表示引用的語尾'-고'和助詞'-만'結合的复合形態, 用于'-다, -냐, -라, -자'等終結語尾后, 表示'-고'所引用的內容是唯一的。 복합형태

	‘-고만’은 인용을 나타난 어미 ‘-고’와 조사 ‘-만’이 결합된 복합형태이다. ‘-다, -냐, -라, -자’ 등 종결어미 뒤에 쓰여, ‘-고’에 의해 인용된 내용이 유일한 것을 나타낸다.
흑룡강	없음
표준	없음
연세	없음
외대	없음
가나다	없음
서울대	없음

<표 33> 조사 ‘만’에서 ‘-고만’에 대한 교재별 설명

교재	설 명
민족	(제1권: 216) -만 補助詞 用于体言或其他助詞、詞尾后, 表示限制, 相当于漢語的“只”、“光”、“僅”。 보조사 체언이나 보조사, 어미 뒤에 쓰여, 제한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只”、“光”、“僅”에 상당한다.
요녕	없음
흑룡강	(제1권: 160) -만

	添意助詞 接在名詞、副詞、詞尾后面。表示強調。 첨의조사 명사, 부사, 어미 뒤에 쓰여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표준	없음
연세	없음
외대	없음
가나다	없음
서울대	없음

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고만’은 ‘-고’와 ‘만’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결합형 어미이다. ‘-고’의 의미에 따라 ‘계기’와 ‘방법이나 동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고’가 ‘계기’의 의미로 쓰일 때 연결되는 ‘만’의 의미는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과 ‘한정’ 두가지 의미가 있다. ‘-고’가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로 쓰일 때 연결되는 ‘만’의 의미는 ‘화자의 최소 기대’, ‘한정’, ‘강조’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어서 교재에서 ‘-고만’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보겠다.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고만’을 소개한 교재는 「요녕」 하나만이다. 하지만 교재에 ‘-고만’을 표제어로 썼지만 여기의 ‘-고’는 인용의 뜻을 나타내는 ‘-고’이고 두 문장을 연결하는 ‘-고’가 아니다. 이럴 때 인용의 뜻으로 쓰이는 ‘-고’만 ‘만’과 결합해서 쓸 수 있다고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제어를 ‘-다고/-냐고/-라고/자고만’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을 소개할 때 어미 뒤에 쓸 수 있다고 「민족」, 「흑룡강」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어미가 어떤 어미인지 소개하지 않았다.

또한 ‘제한’이나 ‘강조’의 뜻으로 쓰일 때만 ‘-고’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가 어느 의미로 쓰이든지 모두 ‘만’과 결합해서 쓰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기’와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로 쓰일 때만 ‘만’과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시 교재에서의 ‘만’에 대한 문법 설명을 통하여 알 수 없다.

⑥ -고나

<표 34> 조사 ‘나’에서 ‘-고나’에 대한 교재별 설명

교재	설명
민족	없음
요녕	없음
후룡강	(제5권: 47~48) -나/이나 보조사 ‘-나’는 받침 없는 명사나 부사에 사용하고 ‘-이나’는 받침 있는 명사나 부사에 사용한다. 1)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수량이 예상되는 정도를 넘었거나 꽤 많음을 나타낸다. 2)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괜찮은 정도의 차선임을 나타낸다. 3) 일부 받침 없는 부사나 어미 뒤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표준	없음
연세	없음

외대	없음
가나다	없음
서울대	없음

‘-고나’에 대해서 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고’와 ‘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결합형 어미이다. ‘나’와 연결되는 ‘-고’의 의미는 ‘계기’와 ‘방법이나 동시’ 두 가지가 있다. ‘계기’의 의미로 쓰일 때 연결된 ‘나’의 의미는 ‘그것이 허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방법이나 동시’의 의미로 쓰일 때 ‘나’의 의미는 ‘차선’, ‘강조’ 등 두 가지가 있다.

교재에서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단독적으로 ‘-고나’를 설명하는 교재가 없다. 필자도 문법 항목의 수와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와 ‘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고나’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단독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혹룡강」은 조사 ‘나’를 설명할 때 ‘일부 받침 없는 부사나 어미 뒤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우선 ‘나’가 ‘부사나 어미 뒤에 붙어야’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제한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하지만 첫째, ‘나’가 ‘그것이 허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 ‘차선’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일 때도 ‘-고’ 뒤에 붙을 수 있다는 설명이 없다. 둘째, 어떤 ‘부사나 어미’ 뒤에 붙을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고’의 경우는 그 ‘-고’가 어떤 의미로 쓰일 때 ‘야’와 결합하여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⑦ -고들

<표 35> 조사 ‘들’에서 ‘-고들’에 대한 교재별 설명

교재	설명
민족	<p>(제2권: 220)</p> <p>-들</p> <p>補助詞</p> <p>用于体言、 副詞語、 部分連接語尾及夏合動詞的前一个動詞后, 表示該動作的主体是夏數。</p> <p>보조사</p> <p>체언, 부사어, 일부분 연결어미, 그리고 복합동사의 선행 동사 후에 쓰여, 이 동작의 주체는 복수인 것을 나타낸다.</p>
요녕	없음
흑룡강	없음
표준	<p>(제3권: 35~36)</p> <p>들</p> <p>后綴</p> <p>表示夏數。 主要用于名詞和代詞后, 還可以用于部分副詞或詞尾后。 主要有以下用法:</p> <p>(1) 用于名詞或代詞后, 表示該詞語表達的對象是夏數。</p> <p>(2) 用于夏數代詞后, 表示強調。</p> <p>(3) 用于部分副詞后, 表示動作的主体是夏數。</p> <p>(4) 用于部分詞尾后, 表示動作的主体是夏數。</p> <p>(5) 代詞“이”和名詞組成的詞組, 在需要表示夏數時, “들”用于“이”后面, 而不能用于名詞后面。</p> <p>접미사</p> <p>복수를 나타낸다. 주로 명사나 대명사 뒤에 쓰여, 일부분 부사나 어미 뒤에도 쓰일 수 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용법이 있다.</p>

	<p>(1) 명사나 대명사 뒤에 쓰여, 이 단어가 나타낸 대상이 복수라는 것을 나타낸다.</p> <p>(2) 복수 대명사 뒤에 쓰여,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p> <p>(3) 일부분 부사 뒤에 쓰여, 그 동작의 주체는 복수라는 것을 나타낸다.</p> <p>(4) 일부분 어미 뒤에 쓰여, 그 동작의 주체는 복수라는 것을 나타낸다.</p> <p>(5) 대명사 ‘이’와 명사가 결합해서 형성한 구절은,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할 때, ‘들’은 ‘이’ 뒤에 쓰여, 명사 뒤에 쓰일 수가 없다.</p>
연세	<p>(제2권: 8)</p> <p>-들 后綴。 表示复數， 用于体詞后面， 也可以用于副詞以及接續詞尾-지, -어, -고等后面。 접미사 복수를 나타낸다. 체언 뒤에 쓰인다. 부사, 그리고 접속 어미 ‘-지, -어, -고’ 뒤에도 쓰일 수 있다.</p>
외대	없음
가나다	<p>(제3권: 16)</p> <p>~들 复數詞。 用于可數名詞后， 有時也与副詞或詞尾連用。 当与副詞或詞尾連用時， 主要是表示動作或事態的主体爲复數。 복수사. 가산명사 뒤에 쓰인다. 어떨 때는 부사나 어미와도 연결해서</p>

	쓰인다. 부사나 어미와 연결해서 쓰일 때 주로 동작이나 사태의 주체가 복수인 것을 나타낸다.
서울대	없음

‘-고들’은 ‘-고’와 ‘들’이 결합해서 형성된 결합형 어미다. ‘들’은 주체가 복수라는 뜻을 나타내며 ‘-고’는 ‘계기’나 ‘방법이나 동시’의 뜻을 나타낸다. 「민족」, 「표준」, 「가나다」에서 조사 ‘들’을 설명하면서 연결어미에 붙어서 쓸 수 있으며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연세」에서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미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지 밝혔다. 그 중에 ‘-고’가 들어가 있다.

우선 ‘-고’와 ‘들’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고들’은 문법 표제어로 쓰일 필요가 없어서 ‘들’의 표제어에 설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민족」, 「표준」, 「가나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미에 붙을 수 있는지, 또 붙으면 그 연결어미 용법의 확대나 축소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게 조금 유감스럽다.

⑧ -고까지

<표 36> 조사 ‘까지’에서 ‘-고까지’에 대한 교재별 설명

교재	설명
민족	없음
요녕	없음
흑룡강	없음

표준	없음
연세	(제1권: 161~162) -까지 補助詞。 用于体詞后, 表示時間、地点的終結点, 以及順序的末尾。 類似于漢語的“到.....”, “.....至”, “到.....爲止”。 一些助詞、詞尾或副詞后面也可以用-까지。 보조사. 체언 뒤에 쓰이며 시간이나 장소의 종결점, 그리고 순서의 마지막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到.....”, “.....至”, “到.....爲止”와 흡사하다. 일부분 조사나 어미, 혹은 부사 뒤에도 ‘-까지’를 쓸 수 있다.
외대	없음
가나다	없음
서울대	없음

‘-고까지’는 ‘-고’와 ‘까지’의 결합으로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고’는 ‘방법’의 의미만 나타내며 ‘까지’는 ‘극단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연세」는 표제어 ‘까지’에 어미 뒤에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그 어미가 어떤 어미이고, ‘까지’와 결합하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설명이 없다. 특히 ‘까지’는 「연세」에서 ‘시간이나 장소의 종결점’의 뜻을 나타낸다고만 설명하였다. ‘-고’와 연결되면 나타낸 ‘극단적’인 의미가 표제어 설명에 없다.

3) ‘-고x’에 대한 예시와 연습

‘-고x’에 대한 예시와 연습에 대한 검토는 여섯 항목을 점검하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 (ㄱ) 제시된 예문의 형식과 배열순서가 적절한가?
- (ㄴ) 제시된 예문이 문법 항목의 의미·통사 특징을 반영했는가?
- (ㄷ) 제시된 예문의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가?
- (ㄹ) 연습 문제의 형식이 네 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었는가?
- (ㄹ) 연습 문제의 내용이 문법 항목의 의미·통사 특징을 반영했는가?

우선 ‘-고는’을 보겠다.

① -고는/-곤

「요녕」 제2권에 제시된 ‘-고는’은 ‘-고는 하다’의 형식으로 쓰인 ‘-고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표 37> ‘-고는/-곤’: 「요녕」 (제3권: 21~41)

본문	이 문구를 누가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차에서 처음 그 문구를 <u>발견하고는</u> 그 이상 중요한 메시지는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설명	연결어미 ‘-고는’은 연결어미 ‘-고’와 조사 ‘-는’이 결합된 연결어미이다. 어미 ‘-고’가 나타낸 선후관계, 원인 등 내용을 강조한다.
예문	(1) 그 문구를 <u>발견하고는</u> 그 이상 중요한 메시지는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看了那个句子以后, 認為從未見過比那个更重要的信息了。 (2) 철수가 책가방을 <u>들고</u> 는 밖으로 나갔다.

	<p>哲洙拿起書包往外走了。</p> <p>(3) 일을 <u>하지 않고</u>는 돈을 벌 수 없다. 不干活就掙不了錢。</p> <p>(4) 영희가 아침을 <u>먹고</u>는 학교로 간다. 英姬吃完早飯，就上學。</p>
연습 문제	<p>4. 在示例中選擇适当的助詞、詞尾填空。</p> <p>아래 예에서 적당한 조사나 어미를 선택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예:, -고는,</p> <p>(2) 철수는 영희를 만나보() 그녀를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했다.</p> <p>5. 仿照示例，用下列詞語造句。</p> <p>예시를 참고하여,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만드시오. 보기2: 나, 앞 차, 그 문구, 발견하다, 깊다, 충격, 받다</p> <p>-> 나는 앞 차에서 그 문구를 발견하고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p> <p>(1) 나, 철수, 거리, 영화, 보다, 곧추, 기숙사, 돌아오다 -> _____.</p> <p>(2) 어떤, 사람, 어렵다, 사람, 돈, 보내다, 이름, 남기다, 앓는다 -> _____.</p> <p>(3) 저, 아침, 늦다, 일어나다, 밥, 못, 먹다, 학교, 가다 -> _____.</p> <p>(4) 사람, 영똥하다, 친절, 베풀다, 보답, 바라다, 앓는다 -> _____.</p>

<표 38> ‘-고는/-곤’: 「요녕」 (제5권: 1~19)

본문	달라진 <u>것이라곤</u> 오래 사용해서 이제는 낡을 대로 낡은 책상과 걸상,
----	--

	키가 훌쩍 자란 호두나무.
설명	‘곤’은 어미 ‘-고’와 조사 ‘-는’이 합쳐진 ‘고는’이 축약된 형태로서 그 앞의 사실을 강조한다.
예문	(1) 달라진 <u>것이라곤</u> 책상뿐이다. 變化了的只有桌子。 (2) 사람이 밥만 <u>먹곤</u> 살 수 없다. 人不能只爲了吃飯而活。 (3) 책가방을 <u>놓곤</u> 밖으로 나갔다. 放下書包就出去了。
연습 문제	2. 알맞은 조사나 어미들을 빈칸에 넣으시오. (2) 산불이 지나간 다음 남아있는 <u>것이라()</u> 나무 그루뿐이다. (6)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 <u>앉()</u> 갑자기 누군가 활주로에 뛰어들었다. (7) 집을 떠난 지 2년이나 되었지만 달라진 <u>것이라()</u> 머리가 긴 것뿐이다. (8) 아버님까지 돌아가시자 나에게서 <u>혈육이라()</u> 형님밖에 없었다. 7. 다음 각 문장들에서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선택하라. (5)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 A. 설거지뿐이다. B. 얼마든지 있다. C.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D. 아무것도 없다.

「요령」은 제3권과 제5권에 ‘-고는/-곤’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권에 ‘-고

는’이 ‘선후관계’, ‘원인’ 등 의미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예문 (1, 2, 4)는 ‘선후관계’를 강조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문 (3)은 ‘원인’을 강조한다고 하기 어렵다. 윗 부분에도 설명하였듯이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문과 설명이 안 맞는다고 하기보다 설명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도 역시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로 번역하였다.

연습문제를 보면 4.(2)의 의미는 ‘선후관계’(계기)를 강조하는 의미이다. 5번 문제는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든 문제인데 답은 아래와 같다.

- (1) 나와 철수가 거리에서 영화를 보고는 곧추 기숙사에 돌아왔다.
- (2)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 (3)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밥을 못 먹고는 학교에 갔다.
- (4) 사람이 엉뚱하게 친절을 베풀고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우선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위와 같은 답을 해보았지만 (3)번과 같은 경우는 조금 어색한 문장이 아닐까 한다. ‘밥을 못 먹고 학교에 갔다’는 괜찮지만 ‘밥을 못 먹고는 학교에 갔다’는 어색하다. 그 이유는 ‘밥을 못 먹고’는 학교에 가는 방식이라 계기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5번 문제 역시 계기의 의미로 쓰인 ‘-고는’만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에서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였지만 연습문제에 하나의 용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요녕」 제5권은 예문 (1)에는 ‘-곤’을 ‘것+이라곤’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라곤’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곤’에 대해 다섯 개의 연습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네 개는 보조사 ‘이라곤’에

대한 연습이다.

또한, (2) ‘사람이 밥만 먹곤 살 수 없다’를 ‘人不能只爲了吃飯而活.’로 번역하였는데 중국어 번역문의 뜻은 ‘사람은 밥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된다’의 뜻이다. 물론 이 예문은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은 있는 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표 39> ‘-고는/-곤’: 「표준」 (제4권: 45~62)

본문	그런데 이튿날 그 노신사가 또 와서 1000원을 <u>놓고는</u> 그냥 갔다.
설명	연결어미 연결어미 ‘-고는’은 연결어미 ‘-고’와 보조사 ‘는’이 결합된 형식이다. 동사어 동작의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后’와 비슷하다.
예문	<p>(1) 그런데 이튿날 그 노신사가 또 와서 1000원을 <u>놓고는</u> 그냥 갔다. 但是第二天，老先生又來了，放下1000塊錢就走了。</p> <p>(2) 박 선생은 회의를 <u>마치고는</u> 나가 버렸다. 朴先生開完會后就走掉了。</p> <p>(3) 일을 <u>망치고는</u> 책임을 안 지려 한다. 把事情搞砸了却不想負責。</p> <p>(4) 숙제를 <u>하고는</u> 집을 나섰다. 做完作業后走出了家門。</p> <p>(5) 영화를 <u>보고는</u> 메모를 해 두는 습관이 있다. 有看完電影后記錄感想的習慣。</p> <p>(6) 다시 안 <u>만나기로</u> 하고는 또 만나는구나. 說好不見却又見了。</p> <p>(7) 주사를 <u>맞고는</u> 효과를 보았습니다.</p>

	<p>打完針后見效了。</p> <p>(8) 청소를 <u>하고는</u> 집으로 갔다. 打掃完衛生回家了。</p> <p>(9) 왜 따뜻한 물로 세수를 <u>하고는</u> 찬물로 헹궈야 하나요? 爲什麼用熱水洗完臉后還要用冷水在沖洗一遍呢？</p>					
<p>연습 문제</p>	<p>1. 仿照例句進行連接聯系。 예시를 참고하여 연결 연습을 하시오. 보기: 해롭다+(으)ㄴ/는 것이다 = 해로운 것이다. (4)</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놓다 입다 끼다 차다 신다 두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0 1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고는</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0 1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td> </tr> </table> <p>4. 用适当的語法或詞匯填空。 적당한 문법이나 어휘로 빈칸을 채우시오. (7) 그는 숙제를 다 하() 집을 나갔다.</p> <p>6. 用下列語法造句。 아래 문법으로 문장을 만드시오. (6) -고는</p> <p>7. 將下列韓語譯成漢語。 아래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십시오. (6) 강의를 듣고는 기숙사로 돌아갔다.</p> <p>8. 將下列漢語譯成韓語。 아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p>	놓다 입다 끼다 차다 신다 두다	+	고는	=	
놓다 입다 끼다 차다 신다 두다	+	고는	=			

	(6)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는 자살했다.
--	------------------------

「표준」 제4권에 ‘-고는’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명에는 ‘-고는’은 중국어의 ‘...后’(...후)의 뜻을 가지고 동사 뒤에만 쓰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문에는 그대로 반영하였다. 하지만 연습문제 (4)는 ‘신체 소지 동사’가 선행절에 쓰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물론 예문이나 다른 연습문제에 다른 동사와 연결된 문장도 나왔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신체 소지 동사’가 선행절에 쓰이는 경우만 훈련시키면 학습자가 앞으로 문장을 만들 때도 ‘신체 소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표 40> ‘-고는/-곤’: 「연세」 (제3권: 117~142)

본문	전 이번 주말에 ‘정치와 경제’라는 책을 좀 <u>읽고는</u> 하루 종일 폭 쉬었어요.
설명	관용표현 동사어간 뒤에 쓰여, 이어짐을 나타낸다. 즉, 앞의 동작이나 행위를 완성한 후에 뒤의 동작이나 행위를 진행한다.
예문	(1) 창문을 <u>열고는</u> 밖을 내다 보았다. 打開窗戶，往外看。 (2) 내 말을 <u>듣고는</u> 그냥 나가 버렸어요. 他听了我的话，就那么走了出去。 (3) 단어를 배우지 <u>않고는</u> 말을 배울 수가 없다. 不學習單詞，就不能學習語言。 (4) 한 번 써 <u>놓고는</u> 다시 보지 않았어요.

	<p>寫好之后，沒有再看。</p> <p>(5) 색안경을 <u>끼고</u>는 제대로 보지 못해요.</p> <p>帶上墨鏡看不清楚。</p>
<p>연습 문제</p>	<p>유형연습</p> <p>25.5 D1</p> <p>(보기) 선생: 질문을 했습니다 /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학생: 질문을 하고는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p> <p>(1) 선생: 일기를 썼습니다 / 곧 잠이 들었습니다. 학생: 일기를 쓰고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p> <p>(2) 선생: 화를 냈습니다 / 나가 버렸습니다. 학생: 화를 내고는 나가 버렸습니다.</p> <p>(3) 선생: 거짓말을 했습니다 /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학생: 거짓말을 하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p> <p>(4) 선생: 그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학생: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는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p> <p>(5) 선생: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내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p> <p>25.5 D2</p> <p>(보기) 선생: 시험을 끝내고 뭘 하셨어요? (전시회에 갔다) 학생: 시험을 끝내고는 전시회에 갔어요.</p> <p>(1) 선생: 숙제를 다 하고 뭘 하셨어요? (한잔하러 갔다) 학생: 숙제를 다 하고는 한잔하러 갔어요.</p> <p>(2) 선생: 점심 식사를 하고 뭘 하셨어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다) 학생: 점심 식사를 하고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다.</p> <p>(3) 선생: 졸업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광고 회사에 취직했다) 학생: 졸업하고는 광고 회사에 취직했어요.</p>

	<p>(4) 선생: 그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곧 떠날 준비를 했다) 학생: 그 연락을 받고는 곧 떠날 준비를 했다.</p> <p>(5) 선생: 어머니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뭘 하셨어요? (이것 저것 준비했다) 학생: 어머니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것 저것 준비했어요.</p>
연습장	<p>3.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p> <p>(7) 가: 졸업하고 나서 영화를 만난 적이 있니? 나: 아니, _____고는 _____.</p>

「연세」 제 3권에도 ‘-고는’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고는’은 ‘앞의 동작이나 행위를 완성한 후에 뒤의 동작이나 행위를 진행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어간 뒤에 쓰이는 관용표현이라고 소개하였다. 예문 (1, 2, 4, 5)가 ‘앞의 동작이나 행위를 완성한 후에 뒤의 동작이나 행위를 진행한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예문 (3) ‘단어를 배우지 않고는 말을 배울 수가 없다’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쓰인다면 ‘-고는’이 ‘...ㄴ/은 후에’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단어를 배우지 않은 후에 말을 배울 수가 없다’와 같이 ‘-ㄴ/은 후에’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그래서 예문 (3)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단어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배울 수가 없다’의 뜻이므로 ‘조건’을 나타낸 ‘-고는’이다.

유형연습과 연습장에는 ‘앞의 동작이나 행위를 완성한 후에 뒤의 동작이나 행위를 진행한다’의 뜻을 드러낸 ‘-고는’만 제시되었다.

② -고도

<표 41> ‘-고도’: 「민족」 (제3권: 149~160)

본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은 자신이 일을 <u>저지르고도</u> 시치미를 떼는 사람을 가리키며, ‘우물가에서 송냥 찾는다’는 말은 성격이 지나치게 급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설명	연결어미 두 사실을 나란하게 연결하여, 앞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반대된 뒷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냄.
예문	<p>(1)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은 자신이 일을 <u>저지르고도</u> 시치미를 떼는 경우를 가리킨다. ‘吃了鷄却拿出鴨蹠’這句話指的是自己惹了事却要裝相的意思。</p> <p>(2) 그가 그렇게 <u>말하고도</u> 안 했다고 딱 잡아떼니 어쩔 수가 없군요. 他那麼說了還矢口否認，真是沒有辦法。</p> <p>(3) <u>오시고도</u> 연락을 안 하셨다니 섭섭합니다. 來了也不和我聯系，心里覺得有点不是滋味。</p>
연습 문제	<p>5. 根据所給的內容完成下列句子 주어진 내용에 따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p> <p>(1)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을 알고도 _____.</p> <p>(2) 몸이 이 지경이 되어 가지고도 _____.</p> <p>(3) 분명히 듣고도 _____.</p> <p>(4) 큰 집을 사 놓고도 _____.</p> <p>(5) 도둑이 옆 사람의 지갑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_____.</p> <p>(6)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청자를 깨고도 _____.</p> <p>7. 用下列慣用型、語尾、單詞、詞組造句。 아래의 관용표현, 어미, 단어, 구로 문장을 만드시오. -고도</p>

--	-------

「민족」 제3권에 ‘-고도’가 ‘앞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반대된 뒷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예문이나 연습문제에서도 역시 이 용법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다.

<표 42> ‘-고도’: 「요녕」 (제3권: 115~138)

본문	그는 도박판에서 하룻밤에 수백 수천만 원을 <u>날리고도</u>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설명	복합어미 ‘-고도’는 어미 ‘-고’와 조사 ‘-도’가 결합한 복합어미이다. 서술어 뒤에 쓰여, ‘-고’가 나타난 조건, 병렬, 반대 등 의미를 강조한다. ‘-고도’는 시제어미 ‘-았/었/였/겠’ 뒤에 못 쓰인다.
예문	(1) 도박판에서 하룻밤에 수백 수천만 원을 <u>날리고도</u>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他在賭場里一夜之間輸掉了數百數千萬元，也不眨一眼。 (2) <u>보고도</u> 못 본 척 한다. 看見了，也裝作沒看見。 (3) 이 강은 <u>넓고도</u> 깊다. 這條河又寬又深。 (4) 밥을 안 <u>먹고도</u> 살 수 있니? 不吃飯也能活下去嗎？
연습 문제	4. 在示例中選擇适当的助詞、詞尾填空。 아래 보기에서 제시된 조사, 어미를 선택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고도, (10) 철수는 낙제를 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

「요녕」 제3권에 ‘-고도’는 ‘-고’와 ‘도’가 결합한 복합어미로 ‘조건, 병렬, 전환’ 등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예문(1, 2, 4)는 ‘양보’의 용법인데 교재에 따르면 ‘전환’의 용법이다. 우선 ‘전환’라는 기술이 정확하지 않다. 중국어 학교 문법에 대립관계 문장과 양보관계 문장을 하나로 묶어 ‘轉折(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표현한다. 즉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면 ‘-고도’의 의미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보의 ‘-고도’는 ‘-고’와 ‘도’의 결합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면 학습자들이 ‘-고’의 의미로 ‘-고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고 학습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또한, 설명 부분에 기술하는 ‘조건’의 용법은 ‘-고도’가 가지지 않는 의미이다. 예문에도 역시 ‘조건’ 의미 관계를 가진 문장이 없다.

<표 43> ‘-고도’: 「흑룡강」 (제2권:141~156)

본문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u>일하고도</u> 집에서 가만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으로 휴식을 취한다면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설명	연결어미 연결어미 ‘-고도’는 연결어미 ‘-고’와 첨의조사 ‘-도’가 연결해서 쓰는 형식이다. 대립관계를 나타내며 앞에 시제어미가 못 쓰인다.
예문	(1) 그는 실수를 <u>하고도</u> 사과하지 않았다. 他做錯了，却不道歉。

	<p>(2) <u>잘못하고도</u> 무슨 큰 소리야. 你做錯了，還嚷什麼？</p> <p>(3) 그 사람은 일을 <u>망치고도</u> 책임을 지지 않는다. 他把事辦砸了，却不負責任。</p> <p>(4) 어른을 <u>보고도</u>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 見到長輩，却不行禮（打招呼）怎麼行呢？</p> <p>(5)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u>일하고도</u> 집에 돌아와서는 가만히 누워 휴식만 한다면 건강에 안 좋다. 在辦公室一直坐着做事，回到家里却只躺着休息，這不利于健康。</p>
<p>연습 문제</p>	<p>1. 用下列詞語和語法形態造句。 아래의 단어나 문법 형태로 문장을 만드시오. -고도</p> <p>5. 完成下列句子。 아래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8) 자기가 잘못하고도 _____.</p> <p>7. 改病句。 틀린 문장을 고치시오 (3) 그는 잘못하고도 사과한다.</p> <p>8. 把下列句子翻譯成韓國語。 아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5) 자기가 잘못 하고도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p>

「후룡강」 제2권에 ‘-고도’가 연결어미 ‘-고’와 첨의조사 ‘-도’가 연결해서 쓰는 형식으로 ‘대립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문 다섯 개를 들었는데 이 다섯 개의 ‘-고도’가 모두 ‘양보’, 즉 교제에서 말하는 ‘대립’의 의미를 나

타냈지만 예문의 번역문이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중국어 문법은 ‘대립’과 ‘양보’를 하나로 묶어 ‘전환’이라고 부른다. 예문을 통해서 봐도 중국어로 번역할 때 대립의 연결사 ‘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학습자들은 ‘-고도’가 ‘지만’과 별 다르지 않은 어미로 생각하기 쉽다.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在辦公室一直坐着做事，回到家里却只躺着休息，這不利于健康.’로 번역하였는데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일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누워 쉬기만 한다. 이러면 건강에 좋지 않다.’의 뜻이다. 즉,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일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쉬지 않고 뭐 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원문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일하고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만히 누워 휴식만 한다면 건강에 안 좋다.’와 차이가 보인다. 원문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이미 일했으니까 피곤하거나 몸에 대해 이미 단련을 시켰으니까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의 뜻을 나타낸다. 비교해보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했다’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어져야 하는 행동은 번역문은 ‘무엇을 좀 해야 한다.’, 원문은 ‘쉬기만 하면 된다.’이다. 번역문은 ‘퇴근 후에 무엇을 해야 하지만 안했다.’, 원문은 ‘퇴근 후에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5)를 통해서도 적어도 번역할 때 한국어의 문법에 따라 ‘양보’와 ‘대립’을 구별해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44> ‘-고도’: 「연세」 (제3권: 219~245)

<p>본문</p>	<p>그러나 큰 실수를 <u>하고도</u>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거나 모른 척하는 이들도 있다. 실수를 하고 몹시 미안해 하는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p>
<p>설명</p>	<p>관용표현</p>

	<p>동사 어간 뒤에 쓰여, 대립이나 양보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即使(做)了.....也.....”와 비슷하다. ‘-고도’ 앞에 시제어미가 못 쓰인다.</p>
<p>예문</p>	<p>(1) 부르는 소리를 <u>듣고도</u> 대답을 안 하니? 聽到叫你也不回答嗎?</p> <p>(2) 아까 <u>먹고도</u> 또 먹으려고 해요. 剛才吃過了, 現在又想吃。</p> <p>(3) 영수는 잠을 <u>자고도</u> 피곤해 해요. 英洙睡過覺了還是累。</p> <p>(4) 선물을 <u>받고도</u> 인사를 못 했어요. 收到了禮物也沒顧上致謝。</p> <p>(5) 책을 <u>읽고도</u> 무슨 내용인지 모르대요. 書看了也不知道是什麼內容。</p>
<p>연습 문제</p>	<p>유형 연습 29.1 D3 (보기) 선생: 잘못을 합니다 /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 잘못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p> <p>(1) 선생: 전화를 받습니다 /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학생: 전화를 받고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p> <p>(2) 선생: 일찍 일어납니다 / 학교에 늦었습니다. 학생: 일찍 일어나고도 학교에 늦었습니다.</p> <p>(3) 선생: 길에서 선생님을 뵙니다 /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 길에서 선생님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p> <p>(4) 선생: 나쁜 짓을 합니다 /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 나쁜 짓을 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p> <p>(5) 선생: 야단을 맞습니다 / 그 버릇을 고치지 않습니다. 학생: 야단을 맞고도 그 버릇을 고치지 않습니다.</p>

	<p>29.1 D4</p> <p>(보기) 선생: 친구한테 답장을 썼어요? (편지를 받다)</p> <p>학생: 아니요, 편지를 받고도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p> <p>(1) 선생: 잘 쉬셨어요? (일을 다 끝내다)</p> <p>학생: 아니요, 일을 다 끝내고도 잘 쉬지 못했어요.</p> <p>(2) 선생: 새 컴퓨터를 써 보셨어요? (한 달 전에 사다)</p> <p>학생: 아니요, 한 달 전에 사고도 새 컴퓨터를 써 보지 못했어요.</p> <p>(3) 선생: 등록하셨어요? (합격하다)</p> <p>학생: 아니요,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했어요.</p> <p>(4) 선생: 숙제를 가져 오셨어요? (밤새도록 하다)</p> <p>학생: 아니요, 밤새도록 하고도 숙제를 가져 오지 못했어요.</p> <p>(5) 선생: 그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길에서 만나다)</p> <p>학생: 아니요, 길에서 만나고도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어요.</p>
연습장	<p>3.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p> <p>(3) 가: 그 영화를 두 번이나 봤다면 또 봐요?</p> <p>나: 너무 재미있어서 _____고도 _____.</p>

<표 45> ‘-고도’: 「연세」 (제5권: 223~250)

본문	교수님은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졸업하면 가정으로 들어가 고등 교육을 <u>받고도</u> 인력을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고 하시고, 여성도 남성과 같이 사회 참여를 해야만 평등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없음
예문	
연습 문제	<p>유형연습</p> <p>3. -고도 _____.</p>

	<p>(보기) 가: 배가 고프는데 뭐 좀 먹고 합시다. 나: 아까 그렇게 먹고도 벌써 배가 고파요?</p> <p>(1) 가: 잠을 많이 잤는데 왜 이렇게 하품이 나올까? 나: 아니, 하루종일 자고도 또 졸려요?</p> <p>(2) 가: 이삿짐을 날라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 마디 없어요. 나: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인사 한마디가 없단 말이에요?</p> <p>(3) 가: 저 재수생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해요. 나: 시험에 떨어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참 한심스럽군요.</p> <p>(4) 가: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나: 그럼요. 모든 걸 얻고도 건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p> <p>(5) 가: 그분은 대학 시절 건축과 장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식당을 경영한대요. 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네요.</p>
--	---

「연세」는 각각 제3권과 제5권에 ‘-고도’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제3권의 경우는 ‘-고도’를 처음 소개하기 때문에 용법을 설명하고 예문 들고 연습문제에도 많이 시키었는데 제5권의 경우는 전에 배웠던 내용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후에 설명과 예문 없이 연습문제에만 나왔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문법을 재도입하는 형식은 학습자가 문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제3권은 ‘-고도’가 ‘대립’이나 ‘양보’의 뜻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어로 대응시키는 연결사는 ‘양보’를 나타낸 ‘即使(做)了.....也.....’이다. ‘却’(하지만) 등으로 번역하는 교재보다 더 정확하다고 본다. 유형 연습 부분에 더 많은 예문을 대화의 형식으로 드는 것은 학습자가 ‘-고도’가 사용되는 언

어 환경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 훈련시키는 연습장에는 ‘-고도’에 관한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46> ‘-고도’: 「가나다」 (제5권: 128~133)

본문	저도 결혼 초기에는 힘들게 <u>요리하고도</u> 식구들한테서 맛있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설명	동작 동사에 붙어 선행 동사의 동작이 완료된 후에 일어난 후행절의 내용이 선행절의 내용과 모순되어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일치해야 한다. 또한 일부 상태 동사에 붙어 어떤 것이 대립되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문	(1) 그렇게 오래 저를 만나고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어요? (2) 힘들이지 <u>않고도</u>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3) 인생은 <u>길고도</u> 짧다.
연습 문제	2. _____고도 _____. (1) 가: 시집살이가 왜 힘들다는 거예요? 나: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해야 하니까요. (2) 가: 살 뽐 때 먹고 싶은 거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 고생하지 <u>않고도</u> 쉽게 살을 빼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3) 가: 일본과 한국은 어떤 사이입니까? 나: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던데요. (4)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도와 주었다 / 고맙다는 말은커녕 핀잔만 들었어요.) (5) 마사코 씨를 여기서 만날 줄 정말 몰랐어요.

(넓다 / 좁은 세상이라잖아요.)

「가나다」 제 5권에는 ‘-고도’의 두 가지 용법을 소개하였다. 하나는 동작 동사 뒤에 연결하여 ‘대립’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상태 동사 뒤에 연결하여 ‘어떤 것이 대립된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예문을 보면 (1, 2)는 동작 동사 뒤에 연결되어 ‘대립’의 뜻을 나타낸다. (3)은 형용사 뒤에 연결되어 ‘어떤 것이 대립된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1, 2)의 경우는 모두 의문문이다. 이렇게 하면 학습자가 ‘-고도’가 과연 평서문에 쓰일 수 있는지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연습문제 부분에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개된 두 용법에 대해 하나씩 연습시켰다. 연습문제에 차츰 어려워지고 학습자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방법이 학습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용법에 단지 하나의 연습문제만 있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예문 (4)의 경우는 선행절에 주어진 문장에 시상어미 ‘-었-’이 있는데 시상어미가 ‘-고도’ 앞에 쓰이지 못하는 정보가 교재를 통하여 알 수가 없어서 학습자가 연습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③ -고라도

<표 47> ‘-고라도’: 「민족」 (제3권: 110~137)

본문	자연을 <u>훼손하</u> 고라도 인간만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설명	관용표현 중국어의 “即使……也”、“就是……也”와 흡사하다.

<p>예문</p>	<p>(1) 자연을 <u>훼손하고</u>라도 인간만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以破坏自然爲代价獲得人類幸福的想法的确是非常危險的。</p> <p>(2) 그걸 외울 수 없으면 <u>보고</u>라고 읽어요. 如果背不下來的話，就照着念吧。</p> <p>(3) 부모님께 욕을 <u>먹고</u>라도 그 일을 한번 해 보려고 마음먹었다. 下決心即使挨父母的罵也要嘗試做那件事。</p> <p>(4) 살고 있는 집을 <u>팔고</u>라도 새 집을 장만하고 싶어요. 哪怕把現在住的房子賣了，也想買個新房子。</p>
<p>연습 문제</p>	<p>6. 根据所給的內容完成下列句子 주어진 내용에 따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p> <p>(1) 벌금을 내고라도 _____.</p> <p>(2) 휴가를 취소하고라도 _____.</p> <p>(3) 원가의 두 배를 주고라도 _____.</p> <p>(4) 안 오겠다면 끌고라도 와서 _____.</p> <p>(5) 나의 이익을 희생하고라도 _____.</p> <p>(6) 식구들의 오해를 받고라도 _____.</p> <p>7. 用下列慣用型、語尾、單詞、詞組造句。 아래의 관용표현, 어미, 단어, 구로 문장을 만드시오.</p> <p>..... -고라도</p>

「민족」 제3권에 ‘-고라도’를 소개하였는데 중국어의 양보 연결사 “卽使.....也”、“就是.....也”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예문은 네 개를 제시하였는데 그중에 (1, 2)의 번역문이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 (1)의 경우는 ‘자연을 훼손하고

손하고라도 인간만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에 대한 중국어 번역문 ‘以破坏自然爲代价獲得人類幸福的想法的确是非常危險的.’의 뜻은 ‘자연을 훼손하는 대가로 인간의 행복을 얻는 생각은 정말로.....’이다. ‘-고라도’가 나타난 양보적인 의미를 번역문을 통해서 전혀 표현하지 못하였다. (2)도 마찬가지로 ‘보고라도 읽어요’에 대한 번역은 ‘就照着念吧.’인데 ‘그럼 봐서 읽어봐요’의 뜻이다. 역시 양보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였다. 연습문제 부분은 6번과 7번이 있는데 6번의 경우는 후행절 만들기에만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선행절에 대한 연습이 없다. 학습자가 ‘-고라도’를 내재화하기에 충분한 연습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④ -고만

「요녕」 제4권에 ‘-고만’을 표제어로 교재에 소개하였지만 ‘-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라 본고의 취지와 다르니 여기서 더 이상 논의를 들지 않겠다.

지금까지 개별 ‘-고x’에 대해 제시된 예문이 문법 항목의 의미·통사 특징을 반영했는가,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리고 연습문제의 내용이 문법 항목의 의미·통사 특징을 반영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재의 예문의 형식을 보면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 「민족」, 「요녕」, 「흑룡강」, 「표준」이 전부 단문으로 예문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의 경우는 「가나다」가 대화, 「연세」가 예문 부분 단문으로 제시하였지만 유형연습 부분에 모두 대화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예문의 제시 형식만 보면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는 학습자에게 ‘-고x’의 사용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하기 더 쉽게 구성되어 있다.

예문이 제시된 순서를 보면 대부분 난이도가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국에서 편집된 네 가지의 교재는 공통점 하나 있는

데 본문에서 ‘-고x’를 포함한 예문을 다시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학습된 내용을 반복 제시하여 학습에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예문에 첫마디에 본문의 문장을 제시하는 다른 세 가지 교재와 달리 「흑룡강」의 경우는 마지막의 순서에 본문의 ‘-고x’ 문장을 다시 제시해 주었다. 본문에 ‘-고x’가 포함된 문장 자체가 다른 예문에 비해 난이도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본문에서 접한 내용은 다른 예문보다 학습자에게 더 친숙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학습자에게 가장 먼저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문의 예문을 통해 학습자가 ‘-고x’의 사용 환경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더욱 가장 처음에 학습자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연습 문제의 형식을 보면 여덟 가지의 교재는 모두 네 가지 영역과 연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목표 문법의 연습이 부족한 단점도 모든 교재에 나타난다.

지금까지 현재 중국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대해 살펴봤는데 아래와 같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다.

(ㄱ) 제시 항목

조사를 통하여 ‘-고x’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문법 항목을 줄이는 면은 잘 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교재에 들어가야 하는 ‘-고x’의 항목은 부족하다. ‘-고부터’의 경우는 세종 말뭉치의 빈도수의 순위에 5위에 차지하고 한국어 능력시험에도 나왔지만 여덟 가지 교재에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와 한국에서 편집·출판되고 중국으로 도입된 교재에 들어가는 ‘-고x’의 항목이 다 부족하지만 두 교재를 대비해 보면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가 중국인 학습자가 어미와 조사를 어려워하는 점을 더 배려해 항목을 조금 더 많이 제시해 준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외국

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다보니 각 나라의 학습자의 특징을 골고루 고려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교재에 들어가는 ‘-고x’의 항목도 비교적 적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중국에서 편집한 교재에 들어가는 ‘-고x’의 회수는 총 18번,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에 들어가는 ‘-고x’의 회수는 총 7번이다.

(ㄴ) 제시 시기

‘-고x’는 제시되는 시기가 적합하지 못하였다. 중급에서 제시해야 하는 ‘-고는’, ‘-고도’는 30%의 교재에서 초급, 30%의 교재에서 중·고급 단계에 제시되었다. 또 나머지 고급에서 제시해야 하는 ‘-고x’는 중고급과 고급에서 제시하는 경우는 단지 20%에 불과하다.

(ㄷ) 문법 설명

여덟 가지의 교재는 문법 항목의 범주를 학습자에게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가 목표 문법의 범주를 알면 그 문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용어가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그리고 ‘-고x’에 대한 범주 설정은 여덟 가지 교재 중에 많은 교재에서 ‘관용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밖에 어미화된 ‘-고x’에 대해 ‘-고’와 ‘x’의 결합형으로 설명하여 학습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가 있다.

또한, 조사결합형 ‘-고x’는 결합으로 인하여 ‘-고’와 ‘x’의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단지 ‘결합’, 혹은 ‘-고’에 대한 ‘강조’라고 설명한 경우가 있다. 그 밖에 통사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도 부족하다.

(ㄹ) 예문 제시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한국에서 편집되고 중국으로 도입된 교재와 대비해 보면 보통 단문으로 예문을 제시하는 단점이 있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단문과 대화의 형식으로 섞어서 제시해 주는 방법은 문제가 안 되겠지

만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단문으로 예문을 제시하는 것은 사용 환경 등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

여덟 가지의 교재는 예문에서 ‘-고x’의 통사적인 특징을 거의 보여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의 내용에도 언급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교재의 예문의 형식을 보면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 「민족」, 「요녕」, 「흑룡강」, 「표준」이 전부 단문으로 예문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의 경우는 「가나다」가 대화, 「연세」가 예문 부분에서 단문으로 제시하였지만 유형연습 부분에 모두 대화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예문의 제시 형식만 보면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는 학습자에게 ‘-고x’의 사용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하기 더 쉽게 구성되어 있다.

예문이 제시된 순서를 보면 대부분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국에서 편집된 네 가지의 교재는 공통점 하나 있는데 본문에서 ‘-고x’를 포함한 예문을 다시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학습된 내용을 반복 제시하여 학습에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예문에 첫마디에 본문의 문장을 제시하는 다른 세 가지 교재와 달리 「흑룡강」의 경우는 마지막의 순서에 본문의 ‘-고x’ 문장을 다시 제시해 주었다. 본문에 ‘-고x’가 포함된 문장 자체가 다른 예문에 비해 난이도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본문에 접한 내용은 다른 예문보다 학습자에게 더 친숙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학습자에게 가장 처음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문의 예문을 통해 학습자가 ‘-고x’의 사용 환경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장 처음에 학습자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口) 연습 문제

‘-고x’에 대한 연습 문제가 부족하다. 그리고 연습 문제의 형식이 네 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어 있지 못했다. 통사적인 특징에 대한 연습이 거의 없다. 그 밖에 문법 설명 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제시하였는데 연습 문제가 '-고X'의 부분적인 의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ㄷ) 번역

대부분의 교재는 목표 문법을 설명할 때나 예문을 제시할 때, 한국어 밑에 중국어로 번역해 주어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에 도와준다.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가 예문의 번역문이 잘못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편집되는 교재가 중국으로 도입되면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비교적 많다.

2. 교재 개선 방안

1) 개선 원칙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는 근년 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주옥파(2002)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법 교재를 개발할 경우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가 교착어인 점과 다르게 중국어가 고립어로서 갖는 특징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병운(2005)는 한국과 중국 수교 이전과 이후 단계를 나누어서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과 과정과 강의 내용, 문법 교육의 목적, 기본 원리 및 방법, 평가, 쟁점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중국 실정에 맞는 문법 교육의 과제, 문법 교재와 참고서 개발의 시급, 문법 사용의 난이도에 따른 다른 교재의 개발, 기능과 의미가 비슷한 조사와 어미들의 비교 사전의 개발, 체계적인 문법 오류 사례 연구 분석집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알 수 있듯이 수업 목표, 학습자의 특성 등 요인에 따라 교재에 대한 요구도 다르다. 중국 현지에서 쓰게 되는 한국어 교재를 편집할 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²²⁾

첫째, 문법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이루는 데에 목표를 둔다. 문법 지식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법 항목을 맥락 속에서 학습시킨다. 형태와 의미를 잘 파악하도록 하는 단계를 거쳐서 실제 사용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란 목표를 이룬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다. 진류연(2012: 152~154)의 중국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는 연역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문법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양 언어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법 학습 성취도는 높지 않고, 참여 학습보다는 개인 학습을 더 지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재를 개선할 때 중국어를 메타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재 사용 대상이 중국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문법 설명 부분을 중국어로 제시해주고, 예문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가한다.

셋째, 다양하고 적절한 예문과 연습 문제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예문을 통해서 목표 문법 항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예문은 실제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형식이 다양하고 난이도가 적당한 문장이어야 한다. 필자는 예문의 형식에 대하여 단일한 문장보다 대화로 제시된 예문이 학습자가 이 예문의 형식이 사용되는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습자가 문법 항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연습이 필요하다.

기존 교재를 살펴보면 문법 항목을 기술할 때 구성요소는 보통 ‘맥락 제

22) 이 부분은 진류연(2012: 152~154)에 참조, 인용.

시 - 설명 - 예문 - 연습' 등 네 가지가 있다. 본고는 이 네 가지 요소 밖에 활용하는 단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활용 단계를 통하여 학습자는 문법을 내재화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맥락 제시 - 설명 - 예문 - 연습 - 활용' 이 다섯 단계를 통하여 '-고x'를 기술해야 한다고 본다.

맥락 제시: 초급과 중급의 경우는 학습자에게 흥미 유발할 수 있고 친근감이 있는 내용을 통하여 목표 문법을 제시한다. 상황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화 형식으로 문법 제시하면 효과가 더 있다고 본다. 고급의 경우는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기르는 데에 고급 학습자의 교육 목표이다. 그래서 대화 형식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서술문이나 논술문이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설명: 설명 부분에 대한 원칙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어미화된 '-고x¹'은 단독항목으로 설명하고 결합형 '-고x²'는 보조사 'x'를 제시할 때 설명한다. '-고'와 'x'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고x²'는 교재의 학습 내용에 들어가야 하지만 표제어 항목수와 학습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본다. 이런 경우는 '-고'를 제시할 때 조사 'x'와 결합할 수 있고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조사 'x'를 제시할 때 어미 '-고'와 결합할 수 있고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고'와 조사의 학습 단계를 보면 조사보다 '-고'를 훨씬 더 앞서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본고는 조사 'x'를 설명할 때 '-고'와 연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본다.

둘째, 중국어로 메타언어로 한다. '-고x'의 범주나 구조를 명시해준다. 의미를 설명한 후에 번역할 때 대응하는 중국어를 제시한다. 1절에서 검토하였듯이 여덟 가지의 교재 중에 '-고x'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단독적으로 설명하는 회수는 13번인데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목표 문법을 설명하

는 회수는 불과 두 번이다. ‘-고도’에 대해 「연세」의 ‘即使(做)了.....也.....’, ‘-고라도’에 대해 「민족」의 ‘即使.....也’, ‘就是.....也’이다. 중국어로 한국어의 어미를 설명하자면 대부분 중국어의 문법 요소에 한국어의 어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문장을 연결하는 ‘연사(連詞)’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교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도 이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는 특징이 있지만, 중국어의 연사는 그렇지 않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어미들 간에 그 미묘한 차이를 중국인 학습자에게 전달하려면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중국어의 어미에 국한되지 않고 부사나 개사(介詞) 등 활용해서 어미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어미가 ‘-니까’, ‘-아/어/여서’, ‘-는 덕분에’, ‘-는 바람에’, ‘-는 탓에’, ‘-느라고’ 등등 많이 있다. 그럼 대응하는 연사(連詞)를 찾거나 통사적인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어의 그 많은 인과관계 어미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 예를 들면 ‘-는 덕분에’는 중국어의 ‘多亏.....’로 번역하면 중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이나 조건’이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多亏.....’는 ‘-는 덕분에’가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대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고 불가능하다. 완벽하게 대치할 수 있기 위해 더 많은 중국어를 나열하는 것보다 한 두 가지만 제시하고 목표 어미가 사용되는 언어 환경, 그리고 그 어미가 특별하게 가지는 뉘앙스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본다.

셋째, 설명 부분에 통사적인 제약을 분명히 학습자에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조사 결합형의 통사적인 제약이 같은 의미의 ‘-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학습자에게 밝혀줘야 한다.

넷째, 이미 습득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미를 통하여 목표 어미를 해석한다. 그리고 그 어미와의 차이를 분명히 제시해 준다.

예문: 초중급의 경우는 단문보다 대화의 형식으로 예문을 제시한다. 고급의 경우는 단문과 대화 형식 반반으로 나눠서 제시해 준다. 그리고 목표 문법의 의미 특성과 통사적인 특징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문을 선택한다. ‘.....덕분에’의 예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시험 준비 잘한 덕분에 시험에 붙었다.

(2) 가: 너 공부 완전 못했잖아. 어떻게 대학도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았어?

나: 고등학교 단임 선생님 덕분에 공부에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열심히 했지.

예문 (1)과 예문 (2)는 모두 후행절이 좋은 결과인 올바른 문장이다. 하지만 단문의 (1)보다 (2)가 더 생동감이 있고 ‘.....덕분에’가 나타난 언어 환경을 더 잘 나타냈다. 또한 (1)보다 (2)는 더 ‘.....덕분에’가 가지는 다른 어미와 구별되는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예문 제시할 때 (2)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문의 순서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차츰 어려운 예문으로 배열해야 한다.

연습: 연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계적인 연습이고 하나는 네 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이다. 기계적인 연습은 통사적인 제약을 숙지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은 학습자가 목표 문법을 내재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활용: 과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목표 문법을 내재화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와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고x’를 소개할 때 아래와

같이 구별해야 한다.

<표 48> 중급 수준과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고x’ 설명의 방식 차이

기술 단계	중 급	고 급
맥락 제시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서술문이나 논술문
설명 (통사적인 특징)	조사결합형 ‘-고x ² ’일 경우 같은 의미의 ‘-고’와 통사적인 제약이 같으면 설명과 예문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해 준다.	조사결합형 ‘-고x ² ’일 경우 같은 의미의 ‘-고’와 통사적인 제약이 같으면 설명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해 준다.
예문	대화 형식	대화와 단문 형식
연습	네 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문제를 충분히 제시한다.	네 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문제를 충분히 제시한다. 전문적인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쓰기 영역에는 학습된 내용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활동	일상생활에 관한 과제	전문적인 연구나 업무 수행에 관한 과제

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고x’의 개선 방안을 탐구하기로 한다.

2) -고는/-곤

4장 1절의 내용을 논의하면서도 본고는 ‘-고’와 ‘x’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고x²’와 어미화된 ‘-고x¹’이 교재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개해야 하는지 언급하였다. ‘-고’와 ‘x’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고x²’는 교재의 학습 내용에 들어가야 하지만 표제어 항목수와 학습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

나의 문법 항목으로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런 경우는 ‘-고’를 제시할 때 ‘-고’가 조사 ‘x’와 결합할 수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조사 ‘x’를 제시할 때 보조사 ‘x’가 어미 ‘-고’와 결합할 수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고’와 조사의 학습 단계를 보면 조사보다 ‘-고’가 훨씬 더 앞서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본고는 조사 ‘x’를 설명할 때 ‘-고’와 연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본다.

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고는/-곤’은 어미화되어 ‘조건’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고’와 ‘는’의 결합으로 ‘계기’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계기’를 강조하는 ‘-고는/-곤¹’은 말뭉치에서의 빈도수가 더 높고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미 숙지한 ‘-고’와 ‘는’의 의미를 통하여 ‘-고는/-곤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조건’을 나타낸 ‘-고는/-곤²’보다 ‘-고는/-곤¹’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럼 먼저 제시되는 ‘계기+강조’의 뜻을 나타낸 ‘-고는/-곤¹’을 보겠다.

맥락 제시: ‘-고는/-곤¹’은 중급에 교수할 내용이다. 중급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교수하는 것이 교육 목표이다. 그래서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가 중급 수준 학생한테 적당한 본문 내용이 될 것이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 능력에 맞추어 본고는 ‘시험 기간’이라는 단원에서 ‘-고는/-곤¹’을 제시하겠다.

설명: ‘-고는/-곤¹’은 계기의 의미를 강조한다. 중국어의 ‘순승(順承)’문과 비슷하다. 번역할 때 ‘.....之后’로 번역할 수 있다.

‘-고는/-곤¹’의 통사적인 제약은 ‘-고’와 같은 것을 전달해 준다.

예문: 대화 형식의 예문으로 ‘-고는/-곤¹’을 제시한다. 예문 제시할 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순서를 배열한다. 뿐만 아니라, ‘-고는/-곤¹’이 통

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을 예문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하나씩 제시해 준다. 그리고 이미 학습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고는/-곤¹’을 이해하는 데에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연습: 기계적인 연습을 통하여 ‘-고는/-곤¹’의 통사적인 제약을 숙지하게 한다. 네 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 문제를 충분히 제공한다.

활용: 과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목표 문법을 내재화하고 ‘-고는/-곤¹’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예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49> 교재에서의 ‘-고는/-곤¹’에 대한 기술

제21과 시험 기간

본문

A: 어제 시험 잘 봤지?
 B: 모르겠어. 떨어질까 봐 걱정이네.
 A: 그 동안 시험 준비 열심히 했으니 점수 잘 나올 거야.
 B: 잘은 나오지 않아도 되고 통과하기만 하면은 돼.
 A: 겸손하긴. 근데 어제 시험 끝난 후에 어디 갔어?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려는데 안 보이더라.
 B: 그래? 시험을 끝내고는 여자 친구랑 엑소 콘서트 갔어.
 A: 부러워. 다음에 나도 좀 끼워주라.
 B: 글썸..... 여자 친구가 싫어할 텐데.....

문법

◇ 補助詞 은/는(ㄴ)

補助詞‘은/는(ㄴ)’, 表示強調。接在体言, 副詞語, 表示先后順序的‘-고’后面。‘-고는/-곤’与表示前后句動作發生先后順序的‘-고’意思相近, 但有強調之意。相當于漢語的‘.....之後’。

<맥락 제시>

학습자에게 지루함을 줄이고 흥미 유발을 위해서 친근감이 있는 대화 내용에 목표 문법 ‘-고는’ 제시.

<문법 설명-1>

목표 문법 항목의 의미와 통사적인 제약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준다.

이미 습득한 ‘계기’의 ‘-고’ 통해 이해시킨다.

◇보조사 은/는(ㄴ)

보조사 ‘은/는(ㄴ)’는 체어, 부사어, ‘계기’의 ‘-고’ 등 연결어미 뒤에 이어,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고는/-곤’은 ‘계기’의 ‘-고’와 의미가 비슷하나 강조의 의미가 있다. 중국어의 ‘.....之後’의 뜻과 비슷하다.

★ 和表示動作發生先后順序的‘-고’一樣，‘-고는/-곤’前面不能出現時態詞尾。

예문:

- 1) A: 철수가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말했어요?
 哲洙听到那个消息后说了什么?
 B: 철수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잘 되었다고 했어요.
 哲洙听到那个消息之后說真是太好了。
- 2) A: 졸업하고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畢業之后想干什么?
 B: 졸업하고 여행가고 싶어요.
 畢業后想要去旅行。
- 3) A: 수도 비는 냈어요?
 水費交了嗎?
 B: 미안해요. 잊어버렸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는 수도 비를 내려 갑시다.
 對不起, 我忘了。吃完中午飯以后一起去交水費吧。
- 4) A: 엄마, 다음 달에 루한이랑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면 막 신나요.
 媽, 一想到下个月要和鹿晗結婚, 就好興奮啊。
 B: 결혼하고는 자기만 생각하지 마. 상대방도 배려해야 돼. 알지?
 結婚后不能只想着自己。要為對方考慮, 知道嗎?

<문법 설명-2>

‘-고는/-곤’은 ‘-고’의 통사적 특징이 같으며 앞에 시상어미가 쓰이면 안 된다.

<예문>

예문 부분은 중국어로 번역해준다.
 예문의 순서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차츰 어려운 예문으로 배열한다.
 예문 (1, 2)를 통하여 ‘-고는’과 ‘-고’의 의미 관계를 보여 준다.
 예문을 통하여 ‘-고는’은 여러 종결법과 어울리는 것을 보여준다.

연습문제

1. 주어진 두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 문장을 완성 하시오.

- 1) 수민이 일기를 () [쓰고는, 썼고는] 썼다.
- 2) 내일 숙제를 () [마치고는, 마치겠고는] 쇼핑 가자.

2.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 1) A: 지영아, 빨래하고 뭐해?
B: _____ 시장에 갈까 싶다.
- 2) A: 책을 다 읽은 후에 등산하러 갈까?
B: 그래. 책을 다 읽고는 _____.
- 3) A: 엄마랑 통화했어?
B: _____.
- 4) A: 영희한테 생일 선물 주었어?
B: _____.

3. 2인 1조로 그림을 보고 '-고도'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오²³⁾.

1)



답: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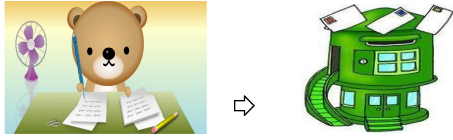
<연습문제>

'-고는'의 의미와 통사적인 제한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는'을 내재화하고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4가지 영역을 포함한 5가지의 연습문제를 제공하였다.

<문제1>은 기계적인 연습인데 '-고는'의 통사적인 제약을 이해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문제2>와 <문제3>은 듣기와 말하기 영역과 연계된 연습이다.

2)



답: _____.

3)



답: _____.

4. 아래 내용을 읽고 '-고는'으로 연결된 문장을 찾으시오.

왕룡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회사에서 영미 씨를 알게 되었어요. 둘이 몇 번 데이트하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요.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오늘은 왕룡과 영미 씨의 결혼기념일인데 퇴근 후에 첫 번째 데이트했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문제4>는 읽기와 쓰기 영역에 연계된 연습문제이다.

이 연습은 학습자가 숙지한 '.....고 나서', '-후에', '-ㄴ/은 후에', '-고'등 '-고는/-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을 통하여 '-고는/-곤'의 사용 환경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3) 이 부분의 그림은 중국 사이트 '바이두'에서 가져온 것이다.

5. 학교에서 다음주 화요일에 동아리 축제가 열리는데 친구에게 축제의 일정에 대해 소개해주시요.

<활용>

<문제5>는 과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고는’을 내재화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1. 10:00~11:00 개막식
2. 11:00~12:00 마술 공연 (마술 동아리)
3. 12:00~14:00 시식대회
4. 14:00~15:00 사물놀이 공연 (전통악기 동아리)
5. 15:00~16:00 중국 무술 공연 (중국 문화 동아리)
6. 16:00~17:00 하회탈춤 공연 (하회탈춤 동아리)
7. 17:00~18:00 폐막식

이어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는/-곤²’의 교재 개선 방안을 보겠다.

맥락 제시: ‘-고는/-곤²’는 역시 중급에 교수할 내용이다.

설명: ‘-고는/-곤²’는 처음으로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어미화된 ‘-고x’이다. 그래서 문법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에게 어미화된 ‘-고x’와 결합형 ‘-고x’의 차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고는/-곤²’를 학습하기 전에 ‘-고는/-곤¹’을 제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도입을 통하여 ‘-고는/-곤¹’과 ‘-고는/-곤²’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는/-곤¹’에 대해 복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고는/-곤²’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조건문은 중국어에서 ‘조건’과 ‘가설’로 나뉜다. 黃伯榮·廖序東(2005: 166~168)에 따르면 조건문이란 종속절에는 조건을 제시하고, 주절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조건문 연사는 ‘只要 (只需、一旦)就 (都、便、總)’(‘...하기만 하면’과 흡사하다), ‘只有.....才.....’(‘-어야’와 흡사하다), ‘無論.....都.....’(‘-든지’, ‘든지’와 흡사하다) 등 있다. ‘假設句’(가설문) 연사는 ‘如果.....就.....’(‘-면’과 흡사하다), ‘.....的話’(‘-면’과 흡사하다), ‘即使 (就是、就算、縱使、縱然、哪怕)也 (還) ’(‘-어도’와 흡사하다), ‘再.....也.....’(‘아무리...-어도...’와 흡사하다)등이 있다. ‘-고는/-곤²’의 의미를 따지면 중국어의 조건문이 아니라 가설문에 속한다. 그래서 문법 설명할 때 ‘-고는/-곤¹’은 ‘假設’(가설)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의미를 설명한 후에 번역할 때 대응하는 중국어를 제시하는데 ‘.....的話’(‘-면’과 흡사하다)가 ‘-고는/-곤²’을 번역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번역될 수 있고 중국인 학습자에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통사적인 제약은 세 가지 있는데 ‘-고는/-곤²’ 앞에 시상어미가 쓰이면 안 되는 것, ‘-고는/-곤²’에 의해 연결된 두 절은 부정문이나 부정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추측의문문에 쓰이지 못하는 것이다. 술어는 ‘명사+이다’가 쓰이지 못하는 것은 선행절과 후행절은 부정문이나 부정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이어야 해서 ‘명사+이다’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명사+이다’가 술어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학습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학습자에게 익숙한 ‘-면’을 통하여 ‘-고는/-곤²’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면’과의 차이도 중요한 것을 집어서 학습자에게 전달해 준다. 첫째, ‘-고는/-곤²’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어야 한다. ‘-면’은 술어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 둘째, ‘-고는/-곤²’은 ‘-면’보다 더 단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셋째, ‘-고는/-곤²’은 추측의문문에 쓰이지 못한다. ‘-면’은 종결법에 제약이 없다.

‘-고는/-곤’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고는/-곤²’를 소개한 후에 ‘-고는/-곤’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서 다 끝난 셈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지금까지는 모든 ‘-고는/-곤’의 의미를 다 배웠다는 정보를 주면서 ‘-고는/-곤’의 두 가지 의미를 다시 회고하게 한다.

예문: 대화 형식의 예문으로 ‘-고는/-곤²’를 제시한다. 예문 제시할 때 앞부분에 언급하였듯이 배열 순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는 순서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고는/-곤²’는 통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예문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이미 학습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고는/-곤²’를 이해하는 데에 연상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연습: 기계적인 연습을 통하여 ‘-고는/-곤²’의 통사적인 제약을 숙지하게 한다. 네 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을 충분히 제공한다.

활용: 과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목표 문법을 내재화하고 ‘-고는/-곤²’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어서 교재에서의 ‘-고는/-곤²’에 대한 기술을 보겠다. 맥락 제시, 연습, 그리고 활용 단계는 <표 50>를 통하여 충분히 보였다고 해서 이어진 방안에 설명과 예시를 중심으로 하기로 한다.

<표 50> 교재에서의 ‘-고는/-곤²’에 대한 설명과 예시

◇ 連接語尾‘-고는/-곤²’

◇ 연결어미 ‘-고는/-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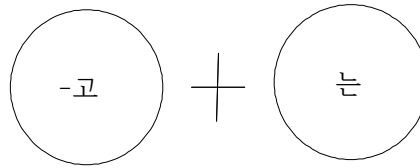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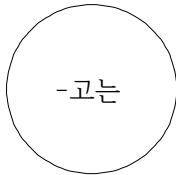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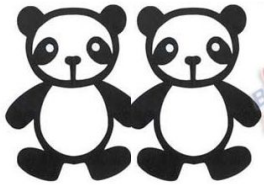
我們之前學過表示強調先后順序的‘-고는/-곤¹’，它是由‘-고’和‘는’構成的。但是

今天我們要學習的‘-고는/-곤²’和‘-고는/-곤¹’不同，他是一個整體，不能分開，它的意思也和‘-고’沒有什麼關係。我們把這樣不能再分割的‘-고는/-곤²’，叫做一體化‘-고는/-곤²’，把可以分成‘-고’和‘는’的，叫做組合体‘-고는/-곤¹’。那麼我們應該怎樣理解‘一體化’與‘組合体’，他們有什麼分別呢？

우리 전에 ‘계기’를 강조하는 ‘-고는/-곤¹’을 배웠는데 ‘-고는/-곤¹’은 ‘-고’와 ‘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고는/-곤²’는 ‘-고는/-곤¹’과 다르다. ‘-고는/-곤²’는 한 덩어리이고 더 분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고는/-곤²’의 뜻은 ‘-고’와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런 더 쪼갤 수 없는 ‘-고는/-곤²’를 ‘일체화(一體化) -고는/-곤²’, ‘-고’와 ‘는’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고는/-곤¹’을 ‘조합체(組合体) -고는/-곤¹’라고 부른다. 그럼 무엇이 ‘일체화’이고 무엇이 ‘조합체’일까? ‘일체화’와 ‘조합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組合体 ‘-고는/-곤¹’

一體化 ‘-고는/-곤²’



밥을 먹고는¹ 갔다.
 밥을 먹고 갔다. (○)
 吃完飯就走了。

술을 마시지 않고는² 살지 못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 살지 못한다.(x)
 不喝酒就不能活。

組合体 ‘-고는/-곤¹’ 可看成是 ‘-고’与 ‘는’的組合，是任意的。即使沒有‘는’，只有‘-고’也可以表達与‘-고는/-곤¹’ 差不多的意思。但是一体化的‘-고는/-곤²’則不同，他們是一个不可分割的整体，所以如果這個時候把‘는’去掉，只留下‘-고’的話，是不能表達‘-고는/-곤²’ 的意思的。

那么‘-고는/-곤²’ 是什么意思呢？

결합형 ‘-고는/-곤¹’ 은 ‘-고’와 ‘는’이 수의적으로 연결된 형식이라 ‘는’이 없어도 ‘-고’가 ‘-고는/-곤¹’과 비슷한 의미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어미화된 ‘-고는/-곤²’는 더 쪼갤 수 없는 한 덩어리된 어미이다. 그래서 ‘는’을 빼고 ‘-고’만으로는 ‘-고는¹’과 비슷한 의미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럼 ‘-고는/-곤²’ 는 무슨 의미를 나타나는가?

‘-고는/-곤²’表示假設。相当于漢語的‘.....的話，（就.....）’。和‘-면’相似。但是‘-고는/-곤²’連接的兩個分句，必須是否定句，或表達否定意義的句子。

★ 使用時需注意：

♣ ‘-고는/-곤²’前面不能出現時態詞尾。

(1) 사과하지 않고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1)’ 사과하지 않았고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X)

(2) 좋아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2)’ 좋아하지 않겠고는 못 배길 것이다.(X)

♣ ‘-고는/-곤²’連接的兩個分句，必須是否定句，或表達否定意義的句子。

(3) 할인하지 않고는 고객을 끌어올 수 없다.(○)

(3)’ 할인하지 않고는 고객들이 다른 매장에서 산다.(X)

(4)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

(4)’ 술을 먹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X)

‘-고는/-곤²’은 ‘가설’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的話，（就.....）’와 비슷하다. 한국어의 ‘-면’과 용법이 비슷하지만, ‘-고는/-곤²’는 부정문이나 부정의미

를 표현하는 문장만 연결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고는/-곤²’ 앞에 시상어미가 쓰이면 안 된다.

♣ ‘-고는/-곤²’에 의해 연결된 두 절은 부정문이나 부정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到這儿我們就學完了所有的‘-고는/-곤’, 一个是表示對先后順序進行強調的‘-고는/-곤¹’, 例如：영화보고는 울었다. 另一个是表示假設的‘-고는/-곤²’, 例如：안경을 끼지 않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大家都學會了嗎？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는/-곤’의 모든 용법을 배웠다. 하나는 ‘계기’를 강조하는 ‘-고는/-곤¹’이다. 예를 들면：영화보고는 울었다. 또 하나는 가설(조건)을 나타낸 ‘-고는/-곤²’이고 예를 들면：안경을 끼지 않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다들 잘 이해했지요？

例句：

1) A: 회원 아니고는 이 행사를 참석할 수 없습니다.

不是會員的話，不能參加這次活動

B: 그럼 회원이면 참석할 수 있죠？

那如果是會員的話就可以參加對吧？

2) A: 그 사람이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聽說那個人挺不好說話的，我們別拜托他，想想別的辦法吧。

B: 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결과를 모르지 않아요？

不試試的話誰也不知道結果，不是嗎？

3) ...

4) ...

3) -고도

‘-고도’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어미화된 ‘-고도’는 ‘양보’인 ‘-고도¹’, 조사 결합형 ‘-고도’는 ‘병렬+강조’의 ‘-고도²’, ‘첨가+강조’의 ‘-고도³’, 그리고 ‘방법+역시’의 ‘-고도⁴’가 있다. ‘고도’의 특성에 따라 어미화된 ‘양보’의 ‘-고도¹’은 단독항목으로 제시해야 한다.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도’를 설명할 때 ‘병렬+강조’의 ‘-고도²’, ‘첨가+강조’의 ‘-고도³’을 제시하고 ‘역시’의 뜻을 나타내는 ‘도’를 설명할 때 ‘방법+역시’의 ‘-고도⁴’를 제시한다.

네 가지 ‘-고도’의 형태적 난이도가 같아서 학습자 심리적 난이도에 따라 ‘-고도’의 학습 순서를 정한다. 세종 말뭉치의 빈도 순위와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출 문제를 참고하여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 시험 응시 때문에 학습에 가장 시급한 ‘-고도¹’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 다음에 ‘-고도²’와 ‘-고도³’, 그리고 ‘-고도⁴’이다. 요즘 들어 교재의 총 권수는 여섯 권인 것이 보통인데 만약 총 여섯 권이라면 제3권에는 ‘-고도¹’과 ‘-고도 남다’, 제4권에는 ‘-고도²/’-고도³’, ‘-고도⁴’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고도¹’에 비해, ‘-고도²/’-고도³’과 ‘-고도⁴’의 구조 구성이 더 가까워서 교재 각 권과의 간격을 조금씩 두고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고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되고 ‘-고도’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고도’의 개선 방안을 보겠다.

맥락 제시: ‘-고도’는 ‘-고는’와 같이 중급 단계에 교수할 내용이다. 그래서 ‘-고는’와 같이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가 중급 수준 학습자에게 적당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설명: 교재에 제시되는 순서대로 하나씩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고도¹’이다. ‘-고도¹’은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 4장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중국어의 학교 문법에 양보관계를 가진 문장이 있지만, 문장의 종류를

나눌 때 대립관계와 양보관계를 하나로 묶어 ‘轉折(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표현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도입된 「연세」를 제외하고는 ‘양보’라는 표현을 쓰는 교재는 단 한 권도 없다. 그럼 중국 학습자에게 중국 문법대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나? 이런 점에는 3장에서도 논의했듯이 ‘대립’과 ‘양보’가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학습자가 더 정확하게 어미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들기 위해 ‘대립’과 ‘양보’라는 표현과 둘의 차이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에서 영어가 필수과목이 된 지금, 한국어를 습득하기 전에 영어에 대해 어느 정도 기초가 있을 것이다. 영어의 양보문을 습득한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양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고도’¹⁾은 중국어의 양보관계를 나타내는 ‘即使.....也.....’, ‘盡管.....也.....’와 의미가 비슷하다. 여기서 두 가지 중국어 대응 표현을 제시하는 이유는 ‘即使.....也.....’는 가정적인 양보를 나타내고 ‘盡管.....也.....’는 사실적인 양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가정적인 양보를 나타내는 연사(連詞)와 사실적인 양보를 나타내는 연사(連詞)를 구별해서 쓰지만 ‘-고도’¹⁾의 경우에는 사실양보와 가정적인 양보를 다 나타낼 수 있어서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도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고도’¹⁾은 학습자들이 이미 숙지한 ‘-어도’와 용법이 비슷하다. 차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도’의 선행절 술어 유형은 제약을 안 받는 반면에 ‘-고도’¹⁾은 선행절 술어가 반드시 동사이어야 한다. 또한, ‘-고도’¹⁾은 주어 동일 제약을 받는데 ‘-어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든지 다르든지 문장이 자연스럽다. ‘-어도’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하는 설명을 통하여 학습자가 ‘-고도’¹⁾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또 통사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두 어미가 각각 가지는 특성을 인식하게 한다.

‘-고도’¹⁾의 통사적인 제약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어도’와 비교할 때 이

미 언급하였지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동일해야 한다. 둘째, 선행절의 술어가 반드시 동사이어야 한다. 셋째, ‘-고도’ 앞에 시상어미가 쓰이지 못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약은 이미 의미 설명부분에 ‘-어도’와 비교할 때 언급된 내용이라 따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고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1> 교재에서의 ‘-고도’에 대한 설명과 예시

◇ 連接語尾‘-고도’

‘-고도’表示讓步。相當於漢語的‘即使……也……’‘儘管……也……’。與 ‘-어도’相似。但是‘-고도’前面只能接動詞，前後句主語一般情況下相同。前面不能接時制詞尾。

◇ 連接語尾‘-고도’

‘-고도’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即使……也……’ ‘儘管……也……’와 흡사하다. ‘-어도’와 비슷하지만 그 앞에 동사만 쓰일 수 있으며 선·후행절의 주어는 보통 동일하다. ‘-고도’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例句:

1) A: 엄마는 우리 8공주를 낳고도 튼튼하시다.

A: 儘管生了我們8公主，媽媽也很健康。

B: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낳으셨어도 튼튼하세요?

B: 是嗎? 儘管生了那麼多，也還是很健康?

2) A: 배고파...

A: 好餓啊.....

B: 그렇게 많이 먹고도 배고파?

B: 吃了那麼多還餓?

3) ...

4) ...

지금까지 어미화된 ‘-고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어서 결합형 ‘-고도’의 설명 내용에 들어가겠다.

‘-고도²’와 ‘-고도³’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도’를 제시할 때 같이 제시할 내용이다.

‘-고도²’와 ‘-고도³’은 ‘병렬’이나 ‘첨가’의 의미를 ‘강조’한다. 하지만 ‘병렬’과 ‘첨가’의 의미 구분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개를 따로 가르치는 것보다 ‘첨가’는 ‘병렬’의 특별한 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와 문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도²’는 중국어의 ‘是又.....又.....’와 비슷하다. ‘又.....又.....’는 ‘병렬’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是’는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고도³’은 중국어의 ‘.....之又.....’와 비슷하지만 ‘.....之又.....’는 단음절인 형용사만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국어의 ‘.....之又.....’와 비슷하지만 번역할 때 ‘眞.....’로 번역하는 것을 같이 제시해주어야 한다.

‘병렬’인 ‘-고도²’는 ‘병렬’의 ‘-고’보다 술어의 범위가 좁혀짐에 따라 통사적인 제약도 변화가 생겼다. ‘병렬’의 ‘-고도²’는 총 네 가지 제약을 받는다. 첫째는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둘째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일반적으로 형용사인데 선행절이 형용사이면 후행절은 동사이나 평가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도 가능하다. 셋째, 평서문과 수사의문문에만 쓰인다. 넷째는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첨가’인 ‘-고도³’은 ‘첨가’인 ‘-고’와 같이 네 가지 제약을 받는다. 첫째는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둘째는 술어는 같은 형용사의 반복이어야 한다. 셋째, 평서문에만 쓰인다. 넷째는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또한, ‘-고도²’와 ‘-고도³’을 학습하기 전에 양보인 ‘-고도¹’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도입을 통하여 ‘-고도¹’과 ‘-고도²’, ‘-고도³’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¹’에 대해 복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고도²’와 ‘-고도³’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2> 교재에서의 ‘-고도²’와 ‘-고도³’에 대한 설명과 예시

◇ 補助詞 ‘도’

助詞‘도’可以用在表示‘并列’的连接語尾 ‘-고’后面，表示強調。

我們之前學過表示讓步的‘-고도¹’，例如：밥을 먹고도 배고프다. 這時的‘-고도¹’是一個整體，不能分開，和‘-고’的意思沒有什麼關係，和‘-어도’的意思差不多。

但是今天我們要學習的‘-고도²’和‘-고도¹’不同，它是由表示并列的‘-고’和表示強調的‘도’組合而成的。

‘-고도²’相當於漢語的‘是又.....又.....’。‘-고도²’連接的謂語一般情況下為形容詞，但是在前面謂語是形容詞的情況下，後面句子的謂語也可以是動詞，或者表示評價的名詞。只能用於陳述句或反問句中。前後句主語都必須一致，前面不能用時制詞尾。

‘-고도²’也可以連接兩個相同的形容詞，表示強調。相當於漢語的‘.....之又.....’，翻譯時，可以翻譯成‘真.....’。這時，只能用於陳述句中。

◇ 보조사 ‘도’

조사 ‘도’는 ‘병렬’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 뒤에 쓰여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는 전에 양보의 ‘-고도¹’을 배웠다. 예를 들면 ‘밥을 먹고도 배고프다.’ 이때의 ‘-고도¹’은 한 덩어리로 되어 분리할 수 없다. ‘-고’의 의미와 상관이 없으며 ‘-어도’의 의미와 비슷하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고도²’는 ‘-고도¹’과 다르다. ‘-고도²’는 ‘병렬’을 나

타내는 ‘-고’와 강조를 나타낸 ‘도’가 결합되어서 형성된 것이다.

‘-고도²’는 중국어의 ‘是又.....又.....’와 흡사하다. ‘-고도²’에 의해 연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일반적으로 형용사인 데 선행절이 형용사이면 후행절은 동사이나 평가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도 가능하다. 평서문과 수사의문문에만 쓰인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하고 앞에 시상어미 쓸 수 없다.

‘-고도²’는 같은 형용사를 연결할 수도 있으며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之又.....’와 비슷하며 번역할 때 ‘眞.....’로 번역할 수 있다. 같은 형용사를 연결할 때 평서문에만 쓰일 수 있다.

例句:

1) A: 우리 학교하고 가깝고 조용한 모임 장소가 없나요?

A: 沒有離我們學校又近又安靜的聚會場所嗎?

B: ‘천하장사’라는 카페가 있는데 우리하고 가깝고도 조용해요. 거기 어떨까요?

B: 有一个叫‘天下壯士’的咖啡廳，離我們學校是又近又安靜，那怎麼樣?

2) A: 이 낙엽들을 봐라. 참 예쁘고도 예쁘다.

A: 看着落叶，真是漂亮啊

B: 그렇지요? 정말 예쁘지요?

B: 是吧? 真的很漂亮吧?

3) ...

4) ...

‘-고도⁴’는 ‘역시’의 뜻을 나타내는 ‘도’를 제시할 때 같이 제시할 내용이다.

‘-고도⁴’는 ‘방법+역시’의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也 (用)’과 비슷하다. ‘방법’인 ‘-고’와 같이 세 가지 제약을 받는다. 첫째, 주어가 동일하여야 한다. 둘째, 술어가 동사이어야 한다. 셋째,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또한, ‘-고도⁴’는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는 마지막 ‘-고도’인데, ‘-고도⁴’를 설

명한 후에 지금까지 학습된 ‘-고도’의 의미를 회고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고도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3> 교재에서의 ‘-고도⁴’에 대한 설명과 예시

◇ 補助詞 도

助詞‘도’可以用在表示‘方法’的連接語尾 ‘-고’后面，表示也(可以)用這樣的方法。可翻譯成漢語的‘也 (用)’。与表示‘方法’的‘-고’一樣，前后句的主語必須相同，謂語必須是動詞，不能用在時制詞尾后面。

到現在我們一共學習了四个和‘-고도’有關的用法，它們分別是：

表示‘讓步’（‘即使.....也.....’ ‘盡管.....也.....’。）的一体化‘-고도’,例如：밥 먹고도 배고프다,

表示‘有充分的可能性或者能力’（‘太能.....’或 ‘足夠.....’）的補助動詞‘-고도 남다’, 例如：얼마나 무서운지 짐작하고도 남다.

表示并列的組合体‘-고도’（‘是又.....又.....’或‘眞.....’）,例如：가깝고도 조용하다.

還有今天學習的表示‘也 (用)’的組合体‘-고도’, 例如：눈을 크게 뜨고도 보고 실눈을 뜨고도 본다.

◇ 보조사 도

조사 ‘도’는 ‘방법’을 나타낸 ‘-고’ 뒤에 붙어 쓰고 이런 방법도 쓴다는(쓸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也 (用)’로 번역할 수 있다. ‘방법’을 나타낸 ‘-고’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여야 하고, 술어가 꼭 동사이어야 한다. ‘-고도⁴’ 앞에는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세 개의 ‘-고도’를 배웠는데 그들의 용법은 아래와 같다.

‘양보’를 나타내는 ‘일체화 -고도’（‘即使.....也.....’ ‘盡管.....也.....’。）, 예를 들면: 밥 먹고도 배고프다.

‘병렬’의 뜻을 나타내는 ‘조합체 -고도’（‘是又.....又.....’或‘眞.....’）, 예를 들

면 : 가깝고도 조용하다. 예를 들면 가깝고도 조용하다.

그리고 오늘 배운 ‘也 (用)’의 뜻을 나타낸 ‘조합체 -고도’ 예를 들면: 눈을 크게 뜨고도 보고 실눈을 뜨고도 본다.

例句 :

1) A: 요즘 술값도 비싼데 어떻게 매일 나가서 술 먹어요?

A: 最近酒价也挺貴的, 怎么每天出去喝酒啊?

B: 돈을 내고도 먹고, 외상으로도 먹어요

B: 有的時候給錢喝, 有的時候賒賬喝。

2) A: 철수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알았어요?

A: 怎么知道哲秀心情不好的?

B: 누가 슬퍼하면 우리는 목소리를 듣고도 알고, 노는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지요?

B: 如果一个人傷心的話, 我們听聲音能知道, 看他玩的樣子也能知道, 不是嗎?

3) ...

4) ...

예문: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중급 학습자에게는 대화 형식의 예문이 목표 문법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문을 통하여 개별 ‘-고도’가 어떤 어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지 최대한으로 보여준다. 또 통사적인 제약을 안 받는 부분을 학습자에게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연습: 기계적인 연습을 통하여 ‘-고도’의 통사적인 제약을 숙지하게 한다. 4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을 충분히 제공한다.

활용: 과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목표 문법을 내재화하고 ‘-고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4) -고라도

‘-고라도’는 조사 결합형 ‘-고라도’와 어미화된 ‘-고라도’로 나눌 수 있다. 조사 결합형 ‘-고라도’의 의미는 ‘라도’의 의미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하나는 ‘방법+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쉬운 대로 받아들임’의 ‘-고라도¹’이고, 하나는 ‘방법+극단적인 선택’의 ‘-고라도²’이다. 어미화된 ‘-고라도³’의 의미는 ‘양보’이다.

맥락 제시: 고급 수준에 제시된 문법 항목이라서 대화 형식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서술문이나 논술문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말뭉치에서 검색된 결과에 따르면 어미화된 ‘-고라도³’의 빈도수가 ‘-고라도¹’과 ‘-고라도²’보다 훨씬 더 적다. 그래서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고라도¹’과 ‘-고라도²’를 접하거나 사용하는 기회는 ‘-고라도³’보다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고라도’의 제시 순서는 ‘-고라도¹’>‘-고라도²’>‘-고라도³’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설명: 고급 단계에서는 새로운 문법 항목을 배우는 것보다 초·중급 단계에서 학습해 온 내용의 심화 용법이나 특수 용법이나 조합 용법을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결합형 ‘-고라도’를 보겠다. ‘-고라도¹’은 ‘방법’을 나타내는 ‘-고’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쉬운 대로 받아들임’을 나타내는 ‘라도’의 결합형이다. 중국어로 해석하면 ‘哪怕.....’, ‘即便.....’가 타당할 것이다.

<표 54> 교재에서의 ‘-고라도¹’에 대한 설명과 예시

◇ 補助詞 라도

助詞‘라도’表示雖然不令人滿意，但是也可以勉強接受，可以用在表示‘方法’的連接語尾 ‘-고’后面，表示方法雖然不令人完全滿意，但是也可以勉強接受。可翻譯

成漢語的‘哪怕.....’, ‘即便.....’, ‘-고라도’的用法与表示方法的‘-고’相同。

◇ 보조사 ‘라도’

조사 ‘라도’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쉬운 대로 받아들임’의 뜻을 나타낸다. 방법을 나타내는 ‘-고’ 뒤에 연결하여 쓸 수 있는데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쉬운 대로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哪怕.....’로 번역할 수 있다. ‘-고라도’의 통사적인 특징은 ‘방법’을 나타낸 ‘-고’와 같다.

例句：

1) A: 삼촌이 지금 걸을 수 있지만 아직 지팡이를 잡고 걸어야 돼요.

A: 叔叔現在雖然能走了，但是還是要拄着拐棍。

B: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B: 即便是拄着拐棍，（可是）能走了真是太好了。

2) 구호차를 기다리다가 하도 안 와서 들것을 가지고라도 올 줄 알았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本來是等救護車的，可是怎麼等都不來，就想哪怕能拿個擔架來吧，可是一個來救我的人都沒有。

3) ...

4) ...

‘-고라도²’는 ‘방법’을 나타내는 ‘-고’와 ‘극단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라도’의 결합형이다. 중국어로 해석하면 ‘就算（用...樣的方法）’이다.

‘-고라도¹’과 ‘-고라도²’는 ‘방법’을 나타내는 ‘-고’와 같은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다. ‘-고라도¹’과 ‘-고라도²’의 통사적인 제약을 설명하고 하나씩 예문을 들어 이해시키는 방법은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의미인 ‘-고’와 같은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하면 될 것이다.

<표 55> 교재에서의 ‘-고라도²’에 대한 설명과 예시

◇ 補助詞 라도

助詞‘라도’表示極端選擇，可以用在表示‘方法’的連接語尾 ‘-고’后面，表示選擇極端的方法。可翻譯成漢語的‘就算（用...樣的方法）’，‘-고라도²’的用法與表示方法的‘-고’相同。

◇ 보조사 ‘라도’

조사 ‘라도’는 ‘극단적인 선택’의 뜻을 나타낸다. 방법을 나타내는 ‘-고’ 뒤에 붙어 쓸 수 있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함’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就算（用...樣的方法）’로 번역할 수 있다. ‘-고라도²’의 통사적인 특징은 ‘방법’을 나타낸 ‘-고’와 같다.

例句：

1) A: 저 진짜 하늘을 두고라도 맹세할 수 있어요.

A: 真的，我可以對天發誓。

B: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믿어줄게.

B: 你都這麼說了，那我就相信你吧。

2) 차가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나는 내려서 택시를 잡아끌고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每次車卡在信號燈的時候，我都想下車，就算拽着它，也想要讓它往前跑。

3) ...

4) ...

그 다음에 어미화된 ‘-고라도³’이다. ‘-고라도³’은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 중국어의 ‘即使.....也.....’, ‘盡管.....也.....’와 비슷하다. 한국어의 ‘-어도’의 의미와 비슷하지만 선행절의 술어가 반드시 동사이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보통 문어에 나타나고 일상 생활에는 ‘-어도’, ‘-고도’, ‘-더라도’가 더 많이 쓰

이다. 이렇게 학습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미를 통하여 ‘-고라도³’의 의미를 설명한다.

통사적인 제약은 세 개가 있다. 첫째, ‘-어도’와 비교할 때 이미 언급하였는데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둘째, 선행절의 술어가 반드시 동사이어야 한다. 셋째, -고라도³ 앞에 시상어미가 쓰이지 못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약은 이미 의미 설명부분에 ‘-어도’와 비교할 때 언급된 내용이라 따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모든 ‘-고x’의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가 없다. 이 특징은 이미 중급의 ‘-고는¹’, ‘-고는²’, 그리고 ‘-고도¹’, ‘-고도²’, ‘-고도³’, ‘-고도⁴’를 설명할 때 언급하였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연결어미의 결합형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여 모든 ‘-고x’ 앞에 시상어미 쓸 수 없다고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연결어미의 조사 결합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있을 것이고, 또한 ‘-고는’과 ‘-고도’의 설명을 통하여 시상어미가 그에 앞에 쓰일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급 수준에 제시된 첫 번째 ‘-고x’의 설명에 “모든 ‘-고x’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그 후에 소개된 ‘-고x’에 대해 이 특징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고라도³’은 ‘-고라도’의 마지막 용법인데, ‘-고라도³’을 설명한 후에 지금까지 학습된 ‘-고라도’의 의미를 회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56> 교재에서의 ‘-고라도³’에 대한 설명과 예시

◇ 連接語尾‘-고라도³’

‘-고라도³’表示讓步。相當于漢語的‘即使……也……’‘盡管……也……’。與 ‘-어도’, ‘-고도¹’相似。但是‘-고라도³’前面只能接動詞，前後句主語一般情況下相同，日常生活中，更多使用‘-어도’和‘-고도¹’。所以和‘-고’有關的一體化語尾和組合體語

尾, 前面都不能接時制詞尾。

到這兒, 我們就學完了‘-고라도’所有的用法。大家還記得是哪些嗎?

‘-고라도¹’和‘-고라도²’是組合體, ‘-고라도³’是一體化的‘-고라도’。

‘-고라도¹’表示‘方法雖然不令人完全滿意, 但是也可以勉強接受’(‘哪怕.....’, ‘即便.....’), 例如: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고라도²’表示選擇極端的方法 [‘就算 (用...樣的方法)'], 例如: 하늘을 두고라도 맹세할 수 있다.

‘-고라도³’表示讓步。例如: 책을 안 가져오고라도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필기도 열심히 쓰면 되지 않을까요?

◇ 連接語尾‘-고라도³’

‘-고라도³’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即使.....也.....’ ‘盡管.....也.....’와 흡사하다. ‘-어도’, ‘-고도¹’과 비슷하지만 그 앞에 동사만 쓰일 수 있으며 선·후행질의 주어가 보통 동일하다. 일상생활에는 ‘-어도’와 ‘-고도¹’이 비교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 ‘-고’와 연관된 모든 ‘일체화 -고x’, 혹은 ‘조합체 -고x’ 앞에 시상어미를 쓸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라도’의 모든 용법을 배웠다. 그 용법들은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하나요?

‘-고라도¹’과‘-고라도²’는 조합체이고, ‘-고라도³’은 일체화 ‘-고라도’이다.

‘-고라도¹’은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쉬운 대로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哪怕.....’, ‘即便.....’), 예를 들면: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고라도²’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就算 (用...樣的方法)'], 예를 들면: 하늘을 두고라도 맹세할 수 있다.

‘-고라도³’은 ‘양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책을 안 가져오고라도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필기도 열심히 쓰면 되지 않을까요?

例句:

- 1) A: 언니, 저 책을 안 가져왔어요. 오늘 그냥 수업 듣지 말까요?
 A: 姐姐, 我沒帶書來, 我今天要不就不聽課了吧?
 B: 책을 안 가져오고라도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필기도 열심히 쓰면 되지 않을까요?
 B: 即使沒帶書來, 如果好好聽課, 認真記筆記的話, 不也可以嗎?
- 2) 만일 예식은 안 지내고라도 부부가 되어 혼례식 지낸 사람보다 의리를 잘 지키면 오히려 예식 지내고 시종이 여일치 못한이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假如即使沒有舉辦儀式, 也成爲夫妻, 并且比舉辦婚禮儀式的人更有道義的話, 難道不比舉辦了儀式却不能終如一更好嗎?
- 3) ...
 4) ...

예문: 예문 부분은 학습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대화 형식과 단문 형식을 반반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어미화된 ‘-고라도¹’의 경우는 예문 부분에 ‘-어도’, ‘-더라도’, 혹은 ‘-고도’의 사용 환경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결합형 ‘-고라도²’와 ‘-고라도³’의 경우는 ‘방법’ 의미를 나타낸 ‘-고’와 사용 환경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라도’가 통사적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예문을 통하여 보여준다.

연습: 4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문제를 충분히 제시한다. 전문적인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쓰기 영역에는 학습된 내용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연습이 필수적이다.

활용: 전문적인 연구나 업무 수행에 관한 과제를 통해 학습된 내용을 내재화 시킨다.

5) -고부터

‘-고부터’의 개선 방안을 단계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맥락 제시: ‘-고부터’는 고급 수준에 제시되어야 하는 ‘-고_x²’로서 ‘-고라도’와 같이 대화 형식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서술문이나 논술문이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설명: ‘-고부터’는 ‘계기’를 나타내는 ‘-고’와 ‘부터’의 결합형으로 볼 수 있는 조사 결합형 ‘-고_x²’이다. ‘-고부터’는 조사 ‘부터’를 설명할 때 ‘기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소개될 것이다.

‘-고부터’는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와 같은 통사적인 제약을 받는다.

<표 57> 교재에서의 ‘-고부터’에 대한 설명과 예시

<p>◇ 補助詞 부터</p> <p>‘부터’表示時間或地點的起始點，可以用在表示‘先後順序’的‘-고’後，表示從那件事以後。相當於漢語的‘從.....開始.....’。用法和表示‘先後順序’的‘-고’相同。</p> <p>◇ 보조사 부터</p> <p>‘부터’는 ‘시간이나 장소의 기점’을 나타내며 ‘계기’를 나타내는 ‘-고’ 뒤에 쓰인다. ‘그 사건부터’의 뜻을 나타내는데 중국어의 ‘從.....開始.....’와 비슷하다. 통사적인 특징은 ‘계기’를 나타낸 ‘-고’와 같다.</p> <p>例句:</p> <p>1) A: 텔레비전을 얼마만큼 즐겨봐요? A: 有多愛看電視? B: 내가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날이 없어요. B: 從我出生開始到現在，沒有一天不看電視的。</p>
--

2) 도대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부터 진료확인서를 받기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從在医院接受診療開始，到收到診療確認書爲止，需要六个月的時間的理由到底是什么？

3) ...

4) ...

예문: 예문 부분은 학습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대화 형식과 단문 형식으로 제시한다. 예문을 통하여 종결법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연습: 네 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문제를 충분히 제시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쓰기 영역에는 학습된 내용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연습이 필수적이다.

활용: 전문적인 연구나 업무 수행에 관한 과제를 통해 학습된 내용을 내재화시킨다.

6) -고야

‘-고야’는 ‘-고라고’, ‘-고부터’와 같이 고급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고X’이다.

‘-고야’는 총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어미화된 ‘-고야’와 조사 결합형 ‘-고야’로 나눌 수 있다. 조사 결합형 ‘-고야’는 ‘조건+강조’의 ‘-고야¹’, ‘방법+강조’의 ‘-고야²’, ‘계기+비로소’의 ‘-고야³’ 세 가지가 있다. 어미화된 ‘-고야⁴’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고야¹’과 ‘-고야²’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 ‘야’를 제시할 때 설명해야 하고 ‘-고야³’은 ‘비로소’의 의미를 나타낸 ‘야’를 제시할 때 설명해야 한다. ‘-고야⁴’의 경우는 이미 어미화되었으니 단독 항목

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의 ‘-고야’의 제시되는 순서는 일상생활에 많이 접하는 빈도에 따라 ‘-고야¹’, ‘-고야²’ > -고야³ > -고야⁴로 하겠다.

맥락 제시: ‘-고야’가 고급 수준에 제시된 문법 항목이라서 대화 형식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서술문이나 논술문이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설명: ‘-고야¹’과 ‘-고야²’는 ‘강조’의 뜻을 나타낸 ‘야’를 제시할 때 같이 설명할 내용이다.

‘-고야¹’과 ‘-고야²’는 ‘조건’이나 ‘방법’의 ‘-고’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고야¹’은 중국어의 ‘.....的話, 怎么能.....呢?’와 비슷하다. ‘-고야²’는 중국어의 ‘.....着,’와 비슷하다.

‘-고야¹’과 ‘-고야²’는 ‘조건’이나 ‘방법’의 ‘-고’와 통사적인 제약은 비슷하다.

‘-고야¹’과 ‘-고야²’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8> 교재에서의 ‘-고야¹’과 ‘-고야²’에 대한 설명과 예시

◇ 補助詞 야

助詞‘야’可以用在表示‘條件’和‘方法’的‘-고’后面, 表示強調。‘-고야’接在動詞后面, 相当于漢語的‘.....的話, 怎么能.....呢?’或者‘.....着,’。前后句主語必須相同。表示‘.....的話, 怎么能.....呢?’的‘-고야’和表示條件的‘-고’相同, 只能用在反問句中。但是表示‘.....着,’的時候, 沒有這樣的限制。

◇ 보조사 야

조사 ‘야’는 ‘조건’이나 ‘방법’을 나타낸 ‘-고’ 뒤에 쓰여 강조를 나타낸다. ‘-고야’는 동사 뒤에 쓰여 중국어의 ‘.....的話, 怎么能.....呢?’, ‘.....着,’와 비슷하다. ‘.....的話, 怎么能.....呢?’를 나타낸 ‘-고야’는 ‘조건’을 나타낸 ‘-고’

와 비슷하게 수사의문문에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着,’를 나타낸 ‘-고야’는 이런 제약을 안 받는다.

例句:

1) A: 아무리 일이 많아도 잠을 자셔야지요. 잠을 안 자고야 어찌 사십니까?

A: 事情再怎么多也要睡覺啊, 不睡覺怎么能活呢?

B: 그래, 당신도 수고 많았어. 불 끄고 자자.

B: 好吧, 你也辛苦啦, 我們關灯睡覺吧。

2) 매일 이렇게 굶고야 사는 수가 있나?

每天這樣餓着, 能活下去嗎?

3) ...

4) ...

이어서 ‘계기+비로소’의 ‘-고야³’을 보겠다.

‘-고야³’는 ‘계기’를 나타낸 ‘-고’와 ‘비로소’를 나타낸 ‘야’의 결합형이다. 중국어의 ‘.....以后, 才.....’와 흡사하다. 통사적인 제약은 ‘계기’의 ‘-고’와 같다.

<표 59> 교재에서의 ‘-고야³’에 대한 설명과 예시

◇ 補助詞 야

助詞‘야’可以用在表示‘先后順序’的‘-고’后面, 表示‘經過了這件事之后才.....’。相當于漢語的‘.....以后, 才.....’。用法与表示先后順序的‘-고’相同。

◇ 보조사 야

조사‘야’는 ‘계기’의 ‘-고’ 뒤에 쓰일 수 있다. ‘이 일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의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以后, 才.....’와 비슷하다. 통사 특징은 ‘계기’의 ‘-고’와 같다.

例句:

1) A: 안 갈 거야? 난장을 맞고야 일어날 거야!

A: 不走是不是? 非得揍你一頓才走是不是?

B: 난장을 맞고도 안 일어납니다!

B: 就是揍我, 我也不走!

2) 난세에 처하고야 비로소 태평 시절이 복인 줄 안다.

處于亂世以後, 才知道太平時節是一種福氣。

3) ...

4) ...

마지막으로는 어미화된 ‘조건’을 나타낸 ‘-고야⁴’를 보겠다.

‘-고야⁴’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서 앞에서 설명한 ‘조건’을 나타낸 ‘-고야¹’와 혼동할 수 있다. 그래서 ‘-고야⁴’를 설명하기 전에 복습할 겸 ‘-고야¹’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문법에서 둘이 다 ‘조건’으로 부르지만 중국어의 대응 연사는 완전 다르다. 그래서 중국어의 번역을 통하여 중국 학습자에게 이 두 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60> 교재에서의 ‘-고야⁴’에 대한 설명과 예시

◇ 連接語尾‘-고야⁴’

‘-고야⁴’表示條件。

我們之前也學過‘-고야’的其他用法, 包括表示‘條件+強調’(‘.....的話, 怎么能.....呢?’); 例如: 밥을 안 먹고야 어찌 삽니까?

‘方法+強調’(.....着,), 例如: 매일 굶고야 사는 수가 있나?

‘先后順序+才’(.....以後, 才.....), 例如: 난세에 처하고야 태평시절이 복인 줄 안다.

今天要學習‘-고야’的最后一个用法。‘-고야’雖然也表示條件，但是他相當於漢語的‘只有.....才（能）.....’，和我們之前學過的‘-고야’的意思都不同。

前后分句的主語必須不同，只能用在陳述句和反問句中，

◇ 연결어미 ‘-고야’

‘-고야’는 조건을 나타낸다.

우리가 전에 ‘-고야’의 많은 용법을 배웠다.

‘조건+강조’(‘.....的話， 怎么能.....呢?) 예를 들면:밥을 안 먹고야 어찌 삽니까?

‘방법+강조’ (.....着，) , 예를 들면: 매일 굶고야 사는 수가 있나?

그리고 ‘계기+비로소’ (.....以后， 才.....) : 난세에 처하고야 태평시절이 복인 줄 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고야’는 ‘-고야’의 마지막 용법이다. ‘-고야’도 ‘조건’을 나타내지만 중국어의 ‘只有.....才（能）.....’와 비슷하며 전의 어떤 용법과도 다르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하며 평서문과 수사의문문에만 쓰일 수 있다.

例句:

1) A: 중국이 있고야 중국 사람이 있다.

A: 只有有了中國，才能有中國人

B : 그래요, 중국이 없으면 중국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B : 是啊，沒有中國的話，哪有中國人啊

2) 부모님이 건강하시고야 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只有父母健康了，我才能安心工作。

3) ...

4) ...

예문: 예문 부분은 학습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대화 형식과 단문 형식을 반반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어미화된 ‘-고야¹’의 경우는 예문 부분에 ‘-어야’의 사용 환경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결합형 ‘-고야’는 ‘-고’와 사용 환경이 비슷한 것을 보여 준다.

‘-고야’가 통사적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예문을 통하여 보여준다.

연습: 네 개 영역을 포함한 연습문제를 충분히 제시한다. 전문적인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쓰기 영역에는 학습된 내용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연습이 필수적이다.

활용: 전문적인 연구나 업무 수행에 관한 과제를 통해 학습된 내용을 내제화 시킨다.

3. 소결

4장에서는 기존 교재를 분석한 후에 ‘-고x’에 대한 교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재를 검토하기 전에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x’의 필수 교수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고x’의 제시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이다.

‘-고x’의 필수 교수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용빈도를 근거로 하였다. 사용 빈도는 세종 말뭉치, ‘빈도 조사2’, 한국어 능력시험 기출문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고는 세종 말뭉치, ‘빈도 조사2’, 한국어 능력시험 기출 문제에 나타난 ‘-고x’는 한국 사람도 잘 안 쓰고 말뭉치에서 2번밖에 안 나온 ‘-고라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소에 잘 쓰이는 표현이라 교재의 교수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검토 과정을 통하여 ‘-고x’의 필수 제시 목록은 ‘-고는/-곤’, ‘-고도’, ‘-고라도’,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총 아홉 개이다.

‘-고x’의 제시시기를 결정하는 데에 제시순서는 형태적 난이도와 학습자 심리적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형태적 난이도는 각각의 ‘-고x’의 획수나 발음할 때의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심리적 난이도를 결정 조건으로 보았다. 학습자의 심리적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에 주로 세 가지 사항을 고루 고려하였다. 첫째,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의 빈도수이다. 빈도수가 높을수록 일상 언어생활에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접할 것이다. 언어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학습 동기가 생긴다. 또 많이 접할수록 생소하지 않으니까 학습하기가 쉬울 것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의 각 ‘-고x’가 출현하는 급수이다. 중국 현지에서 졸업하고 취직하거나 한국에 유학 오려면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증서를 노력하는 목표로 삼고 공부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의 각 ‘-고x’의 출현하는 급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셋째, ‘-고’와 조사 ‘x’의 교육 과정에서의 교수 시기이다. ‘-고x’는 ‘-고’와 조사 ‘x’가 모두 교재에 소개된 후에 제시해야 한다. 물론 ‘-고도’처럼 ‘-고’와 ‘x’의 개별 의미와 상관없이 어미화된 ‘-고x¹’도 있지만, ‘학교에 버스를 타고도 가고 택시를 타고도 간다.’와 같은 ‘-고’와 조사 ‘도’의 결합형으로 봐야 하는 ‘-고x²’도 있다. 학습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고’와 ‘x’를 모두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후에 단계적으로 ‘-고x’를 교수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는 ‘-고는/-곤’, ‘-고도’는 중급 단계에 교수되어야 하고, ‘-고라도’,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는 고급 단계에 교수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고x’의 교수 항목, 제시 시기,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문법 항목에 대한 예시와 연습 등 방면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교재 분석의 결과를 근거하여 중급의 ‘-고는/-곤’, ‘-고도’, 그리고 고급의 ‘-고라도’, ‘-고부터’, ‘-고야’를 예로 삼고 ‘-고x’의 교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x’의 효율적인 교수에 관심을 두고, ‘-고x’의 교재 기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장에서 본 연구의 연구 동기, 방법 그리고 대상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x’의 교재 기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고는 ‘-고’의 의미 검토를 토대로 하고 ‘-고’와 조사의 결합형의 의미를 규명하고 교재 기술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보는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검토. 둘째, ‘-고x’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징 검토. 셋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x’ 교재 개선 방안 검토.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장부터 4장까지 3장을 거쳐서 각각의 명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밝혔다. 3장에서 ‘-고x’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징에 대한 검토를 예문을 분석하면서 진행하였다. 예문이 이 부분의 기초 분석 자료인데 이 기초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 말뭉치의 예문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장에서 현재 중국 현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대상으로 삼고 교재를 분석한 다음에 ‘-고x’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론 마지막 부분에 본 연구에서 ‘-고x’의 범위와 교재 검토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고x’의 검토 범위는 연결어미 ‘-고’와 조사의 결합 형식을 갖는 모든 ‘-고x’이다. 그 목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종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고x’의 목록은 ‘-고는’, ‘-곤’, ‘-고도’, ‘-고만’, ‘-고나’, ‘-고야’, ‘-고들’, ‘-고까지’, ‘-고라도’, ‘-고부터’, ‘-고라야’로 총 11개이다.

교재를 선정할 때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현황을 참고하여 중국 현지에서 편집된 교재와 한국에서 편집되고 중국으로 도입된 교재를

각각 네 가지씩 선정하고 검토하였다.

2장에서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고’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고’의 의미는 ‘계기’, ‘방법이나 동시’, ‘병렬’, ‘첨가’, ‘조건’, 그리고 ‘관용표현’ 등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밝히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입각하여 ‘주어 동일 제약’, ‘술어 제약’, ‘종결법 제약’, ‘시상어미 제약’ 등 네 가지의 측면에서 각각 의미로 쓰인 ‘-고’의 통사적인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61>과 같다.

<표 61> ‘-고’의 통사적 특징

의미	주어	술어	종결법	시상어미
계기	제약없음	선행절이 동사 이어야 하며 후행절은 동사 혹은 형용사이 어야 함	제약없음	x
방법이나 동시	동일 주어 제 약	동사이어야 함	제약없음	x
병렬	제약없음	제약없음	제약없음	○
첨가	동일 주어 제 약	같은 형용사의 반복	평서문만 가능	x
조건	동일 주어 제 약	동사이어야 함	수사의문문만 가능	x

3장에서 ‘-고_x’의 의미·통사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고_x’는 크게 어미화된 ‘-고_x¹’과 조사 결합형 ‘-고_x²’로 나눌 수 있다. 어미화된 ‘-고_x¹’이 가지는 의미가 ‘조건’과 ‘양보’ 두 가지가 있다. ‘조건’의 ‘-고_x¹’은 ‘-고는/-곤’, ‘-고야’, ‘-고라야’ 세 개가 있고 ‘양보’의 ‘-고_x¹’은 ‘-고도’, ‘-고라도’ 두 개가 있다. 조사 결합형 ‘-고_x²’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다. 계기의 ‘-고는/-곤’,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방법이나 동시의 ‘-고도’, ‘-고라도’, ‘-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병렬의 ‘-고도’, 첨가의 ‘-고도’, 그리고 조건의 ‘-고야’이다. 3장에서 어미화된 ‘-고x¹’의 의미·통사적 특징과 조사 결합형 ‘-고x²’의 의미·통사적 특징을 검토하였는데 그 검토 결과는 아래 <표 62>, <표 63>과 같다.

<표 62> 어미화 여부의 분류에 따른 ‘-고x’의 의미적 특징

분류	의 미		목록	예 문
어미화된 ‘-고x ¹ ’	조건	가정적인 조건	-고는/-곤	술을 마시지 않고 는 못 살겠다.
		필수조건	-고야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다.
		필수조건	-고라야	시원스러운 해석을 내리고라야 마음이 놓인다.
	양보		-고도	밥을 먹고도 배고프다.
			-고라도	마주 보고라도 인사를 안 했다.
결합형 ‘-고x ² ’	‘-고’	‘x’	목록	예 문
	계기	강조	-고는/-곤	일을 끝내고 는 갔다.
		기점	-고부터	내가 태어나고부터 단 하루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날이 없다.
		비로소	-고야	난세에 치하고야 비로소 태평 시절이 복인 줄 안다.
		최소 기대	-고만	잠시 뵈고만 갈게요.
		한정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웃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치절하게 손을 잡아 일으켜준다.
		최소의 조건	-고나	사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야?
		주체복수	-고들	오늘은 이만들 하십시오. 내 간소한 주연을 준비했으니 들고들 가지지요.
	방법이 나 동 시	역시	-고도	눈을 크게 뜨고도 보고, 실눈을 뜨고도 본다.
		아쉬운 대로 받아들임	-고라도	들것을 가지고라도 올 줄 알았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극단 선택		하늘을 두고라도 맹세할 수 있었다.
		강조	-고야	이렇게 끓고야 사는 수가 있나?
		최소 기대	-고만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겠어요. 테리고만 가주

				세요.
		한정		연애 편지를 쓰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다녔어.
		강조		진정 마음먹고만 끈다면 하루만으로도 tv가 반드시 일용의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차선	-고나	이걸 보고 조신이 놈이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오거든 몸에 지니고나 댕기라고 일러라.
		강조		사내 자식이 두들겨 맞고나 다니고.
		주체복수	-고들	좀 덜 탐내고들 살아.
		극단적	-고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까지 담배를 피워야만 할까?
	조건	강조	-고야	잠을 안 자고야 어찌 사옵니까?
	병렬	강조	-고도	간단하고도 쉽다.
	첨가	강조	-고도	예쁘고도 예쁘다.

<표 63> 어미화 여부의 분류에 따른 ‘-고X’의 통사적 특징

분류	의미		목록	통사적 특징				
				주어	술어	종결법	시상어미	기타
어미화된 ‘-고X ¹ ’	조건	가정적인 조건	-고는/-곤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추측의문문은 제약 받음	x	선·후행절 술어: 부정의미
		필수 조건	-고야	주어가 달라야 함		평서문, 수사의문문만 가능	x	없음
		필수 조건	-고라야	제약 없음				
	양보	-고도 -고라도	동일 주어 제약	선행절 술어: 반드시 동사이어야 함	제약 없음	x	없음	
결합형 ‘-고X ² ’	계기	-고는/-곤 -고부터 -고야 -고들	제약 없음	선행절이 동사이어야 하며 후행절은 동사나 형용사는 모두 가능	제한 없음	x	없음	

		-고만 -고나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방법이나 동시	-고도 -고라도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제한 없음	x	없음
	병렬	-고도	동일 주어 제약	선행절과 후행절 은 일반적으로 모 두 형용사임. 선행절이 형용사 이면 후행절은 동 사이어도 가능하 고 평가적인 의미 를 가진 명사도 가능함	평서문, 수사 의문문만 가능	x	없음
	첨가	-고도	동일 주어 제약	같은 형용사의 반 복	평서문만 가능	x	없음
	조건	-고야	동일 주어 제약	동사이어야 함	수사의문문만 가능	x	없음

4장에서 기존 교재 분석한 후에 ‘-고x’에 대한 교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
다.

‘-고x’의 필수 교수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용빈도를
근거로 하였다. 사용 빈도에 관해서는 세종 말뭉치(현대문어), 국립국어원
(2005)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를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
어 능력시험의 기출문제도 참고 자료로 삼았다. 이에 따라 ‘-고x’의 필수 교
수 목록은 ‘-고는/-곤’, ‘-고도’, ‘-고라도’,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이다.

‘-고x’의 제시시기를 결정하는 데에 제시순서는 형태적 난이도와 학습자
심리적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형태적 난이도는 각각의 ‘-고x’의

획수나 발음할 때의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심리적 난이도를 결정 조건으로 보았다. 학습자의 심리적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에 주로 세 가지 사항을 고루 고려하였다. 첫째, 세종 말뭉치와 ‘빈도 조사2’의 빈도수이다. 빈도수가 높을수록 일상 언어생활에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접할 것이다. 언어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학습 동기가 생긴다. 또 많이 접할수록 생소하지 않으니까 학습하기가 쉬울 것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의 각 ‘-고x’가 출현하는 급수이다. 중국 현지에서 졸업하고 취직하거나 한국에 유학 오려면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증서를 노력하는 목표로 삼고 공부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의 각 ‘-고x’의 출현하는 급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셋째, ‘-고’와 조사 ‘x’가 교육 과정에서의 교수 시기이다. ‘-고x’는 ‘-고’와 조사 ‘x’가 모두 교재에 소개된 후에 제시해야 한다. 물론 ‘-고도’처럼 ‘-고’와 ‘x’의 개별 의미와 상관없이 어미화된 ‘-고x¹’도 있지만, ‘학교에 버스를 타고도 가고 택시를 타고도 간다.’와 같은 ‘-고’와 조사 ‘도’의 결합형으로 봐야 하는 ‘-고x²’도 있다. 학습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고’와 ‘x’를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는 후에 단계적으로 ‘-고x’를 교수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는 ‘-고는/-곤’, ‘-고도’는 중급 단계에 교수되어야 하고, ‘-고라도’, ‘-고부터’, ‘-고야’, ‘-고만’, ‘-고나’, ‘-고들’, ‘-고까지’는 고급 단계에 교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서 ‘-고x’의 교수 항목, 제시 시기,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문법 항목에 대한 예시와 연습 등 방면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ㄱ) 제시 항목

조사를 통하여 ‘-고x’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문법 항목을 줄이는 면은 잘 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교재에 들어가야 하는 ‘-고x’의 항목

은 부족하다. ‘-고부터’의 경우는 세종 말뭉치의 빈도수의 순위에 5위에 차지하고 한국어 능력시험에도 나왔지만 여덟 가지 교재에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

‘-고x’의 항목에 대해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와 한국에서 편집·출판되고 중국으로 도입된 교재를 대비해 보면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중국인 학습자가 어미와 조사를 어려워하는 점을 더 배려해 항목을 조금 더 많이 제시해 준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다 보니 각 나라의 학습자의 특징을 골고루 고려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교재에 들어가는 ‘-고x’의 항목도 비교적 적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중국에서 편집한 교재에 들어가는 ‘-고x’의 회수는 총 18번,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에 들어가는 ‘-고x’의 회수는 총 7번이다.

(ㄴ) 제시 시기

‘-고x’는 제시되는 시기가 적합하지 못하였다. 중급에서 제시해야 하는 ‘-고는’, ‘-고도’가 30%의 교재에서 초급, 30%의 교재에서 중·고급 단계에 제시되었다. 또 나머지 고급에서 제시해야 하는 ‘-고x’는 중고급과 고급에서 제시하는 경우는 단지 20%에 불과하다.

(ㄷ) 문법 설명

여덟 가지의 교재는 문법 항목의 범주를 학습자에게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가 목표 문법의 범주를 알면 그 문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용어가 혼란스러운 현상이 있다. 그리고 ‘-고x’에 대한 범주 설정은 여덟 가지 교재 중에 많은 교재가 ‘관용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밖에 어미화된 ‘-고x’에 대해 ‘-고’와 ‘x’의 결합형으로 설명하고 학습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가 있다.

또한, 조사결합형 ‘-고x’는 결합으로 인하여 ‘-고’와 ‘x’의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단지 ‘결합’, 혹은 ‘-고’에 대한 ‘강조’라고 설명한 경우가 있다. 그 밖에 통사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도 부족하다.

(ㄷ) 예문 제시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는 한국에서 편집되고 중국으로 도입된 교재와 비교하면 보통 단문으로 예문을 제시하는 단점이 있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단문과 대화의 형식으로 섞어서 제시해 주는 방법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단문으로 예문을 제시하는 것은 사용 환경 등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

여덟 가지의 교재는 예문에서 ‘-고x’의 통사적인 특징을 거의 보여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에 내용에도 언급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교재의 예문의 형식을 보면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 「민족」, 「요녕」, 「흑룡강」, 「표준」이 전부 단문으로 예문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의 경우는 「가나다」가 대화, 「연세」가 예문 부분 단문으로 제시하였지만 유형연습 부분에 모두 대화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예문의 제시 형식만 보면 한국에서 도입된 교재는 학습자에게 ‘-고x’의 사용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하기 더 쉽게 구성되어 있다.

예문이 제시된 순서를 보면 대부분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국에서 편집된 네 가지의 교재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본문에서 ‘-고x’를 포함한 예문을 다시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학습된 내용을 재출현시키고 다시 상기시킨다는 것은 학습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예문에 첫마디에 본문의 문장을 제시하는 다른 세 가지 교재와 달리 「흑룡강」의 경우는 마지막의 순서에 본문의 ‘-고x’ 문장을 다시 제시해 주었다. 본문에 ‘-고x’가 포함된 문장 자체가 다른 예문에 비해 난이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본문에 접한 내용은 다른 예

문보다 학습자에게 더 친숙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가장 처음에 학습자에게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문의 예문을 통해 학습자가 ‘-고x’의 사용 환경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장 처음에 학습자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口) 연습 문제

‘-고x’에 대한 연습 문제가 부족하다. 그리고 연습 문제의 형식이 네 가지 언어 영역과 연계되어 있지 못했다. 통사적인 특징에 대한 연습이 거의 없다. 그 밖에 문법 설명 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제시하였는데 연습 문제가 ‘-고x’의 부분적인 의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ㄷ) 번역

대부분의 교재는 목표 문법을 설명할 때나 예문을 제시할 때, 한국어 아래 중국어로 번역해 주어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에 도와준다.

중국에서 편집된 교재에서 예문의 번역문이 잘못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편집되는 교재가 중국으로 도입되면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비교적 많다.

교재 분석의 결과를 근거하여 중급의 ‘-고는/-곤’, ‘-고도’, 그리고 고급의 ‘-고라도’, ‘-고부터’, ‘-고야’를 예로 삼고 ‘-고x’의 교재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이론적인 검토에 그치고 아직은 실제적인 교수 활동에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광주(1999), “대등 접속문의 대한 재검토”, 한국어학9, 한국어학회.
- 고영근(1975), “현대국어의 어말 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응용언어학 제7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78), “형태소 분석의 한계”, 언어학3, 한국언어학회.
- 국립국어원(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국립국어원.
- _____ (2011), 말뭉치(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 권영춘(1988), “국어 조사 ‘도’, ‘까지’, ‘마저’, ‘조차’의 의미분석”, 국어국문학 논문집32, 서울대학교.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_____ (1986), “문법형태소의 서격”, 국어학신연구(약천김민수 회갑기념논집), 태학사.
- 김병운(2005), “중국의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어 교육론2, 한국문화사.
- 김병원(198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원리”, 이중언어학회지 4, 이중언어학회.
- 김수정(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 어미 연구, 한국문화사.
- 김승곤(1977), “연결어미 ‘-고’에 대하여”, 건대학술지 제21집, 건국대학교.
- _____ (2003), 현대 표준 말본, 한국문화사.
- 김영기(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론적 배경, 효과적 교수법과 교재 개발”, 교육한글 4, 한글학회.
- 김영희(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1, 광문사.
- _____ (1976), “복수표지 ‘들’의 문법”, 문법연구3, 탑출판사.
- _____ (1987), “국어의 접속문”, 국어생활11, 국어연구소.
- _____ (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호, 한글학회.
- _____ (2001), “이른바 대립 접속문의 구조적 유형”, 한글 253호, 한글학회.

- 김유정(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문법 교육의 위치·교육 원리에 관하여”,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 _____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남(2006),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32, 이중언어학회.
- 김정대(1999), “한국어 접속문에서의 시제구 구조”, 언어학24, 한국언어학회.
- 김정숙(1992), “한국어교육 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원리 및 방법”,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 김종록(2008), “보조사 ‘-는’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분석”, 어문학 102, 한국어문학회.
- _____ (2010),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분석”, 국어교육연구46, 국어교육학회.
- 김진수(1987a),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탑출판사.
- _____ (1987b), “-고’, ‘-(으)며’, ‘-(으)면서’의 통사·의미의 상관성”, 국어학 16, 국어학회.
- _____ (1989), “국어 접속어미의 분류”, 언어연구, 한국현대언어학회.
- 김찬화(2008), “연결어미 ‘-고도’의 의미양상과 통사적 제약”, 중국조선어문 15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김충실(2006), 중한문법대조연구, 부산외국어대학출판사.
- 김홍수(1977), “계기의 ‘-고’에 대하여”, 국어학5, 국어학회.
- 남기심(1978), “국어 연결어미의 화용론적 기능: 나열형 ‘-고’를 중심으로”, 연세논총15, 연세대학교 대학원.

- _____ (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말10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_____ (1994), 국어 연결 어미의 쓰임: ‘-고, -어서, -니까, -다가’의 의미통사적 특징. 서광 학술 자료사.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남기심·이상억·홍재성(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방송통신대출판부.
- 남수경·채숙희(2004),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연구”,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남윤진(2000),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국어학회.
- 노민경(200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고’의 교수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목지선(2012), “계기의 접속어미 ‘-고’와 ‘-아서’의 의미·통사상 차이: 부정 표현과의 결합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학116, 한국어문학회.
- 민현식(1992),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국어교육 79·8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 (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_____ (2000),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2),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 제12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소영(2000), “양태의 연결어미 ‘-고’에 대한 연구”, 언어학26, 한국언어학회.
- 박영순(1994), “접속문의 성립조건과 접속성의 정도에 대하여”, 언어, 한국언어학회.

- _____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 박용한(2000), “국어 접속어미 ‘-고’의 의미 구조”, *연세어문학* 제32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박종갑(1987), “‘-고’의 접속기능과 제약”, *국어학* 제35집, 국어학회.
- _____ (1997),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연구(1): 통사적 분류의 의미적 의존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31, 한민족어문학회.
- _____ (1998),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연구(2): 의미 기능의 유형 설정을 중심으로”, *방언학과 국어학*(청암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 _____ (2000),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연구(3): 문장의 선형 구조와 관련된 도상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35, 국어학회.
- 방운규(1999), *현대 국어의 나열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낙천(2003), *국어의 통합형 접속어미*, 월인.
- 백봉자(199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동방학지* 71·72합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서세정(2009), “통사적 숙달도 진단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연구: 학습자 작문 텍스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정수(1982), “연결어미 ‘-고’와 ‘-어(서)’”, *언어와 언어학* 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 _____ (1994), “국어의 종속 접속문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 서종학(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에 대한 시고”, *울산어문논집* 15,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 서태룡(1979), 국어 접속문의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88), 국어 활용 어미의 형태와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8), “접속어미의 형태”,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 성광수(1979), 국어 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 성기철(1972), “어미 ‘-고’와 ‘-어’에 대하여”, 국어교육1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 (1998),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 성낙수(1978),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문 연구Ⅱ”, 한글162, 한글학회.
- 손혜옥(2010), “한국어 접속문에 나타나는 ‘-었-’의 생략 현상과 해석: ‘-고’, ‘-지만’, ‘-으니’ 접속문을 중심으로”, 국어학58, 국어학회.
- 양정석(2005), 한국어 통사구조론, 한국문화사.
- 우사민(2008), “국어 양보 표현의 사전 기술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복상(1985), 연결서술어미 연구, 집문당.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제191호, 한글학회.
- _____ (2008), “‘-고’ 접속문에서 선어말어미 ‘-겠-’의 작용역과 결합 양상: ‘-었-’, ‘-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논총49, 한국문학언어학회.
- 윤경애(2008), 중국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연구: 조건 표현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희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의미론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이관규(1992), 국어 대등 구성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_____ (1999), “대등문·접속문·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청어문27, 서울대 국어교육과.
- _____ (2012), 학교문법론, 월인.
- 이기동(1977), “대조·양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I)”, 어학연구 13-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상복(1978), “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이상익(1997),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법 사항의 비교 평가”,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상태(1988), 국어 접속어미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2011), “한국어의 [대립]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한 논의”, 태릉어문연구17,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성영(1998), “교육문법의 체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8집, 국어교육학회.
- 이시형(1990), 한국어의 연결 어미 ‘-어’, ‘-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1998), “접속 어미의 통사”,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 _____ (1999),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 어미의 기능”, 국어학34, 국어학회.
- _____ (2000),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 _____ (2007), “-고’접속문과 ‘-어서’접속문의 비교: 동사 유형 및 문형을 중

- 심으로”, 한국어 교육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정노(199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편찬에 있어서 고려할 몇 가지 문제”, 교육한글 4.
- 이정애(1998), “문법화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흐름”, 한국언어문학40, 한국언어문학회.
- 이지영(1996), 한국어 조사의 교수 모형,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필영(1994), “대등절과 종속절에 관하여”, 제효 이용주 교수 정년퇴임 기념 특집, 선청어문22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혜영(1999), “문법 교육의 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 _____ (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1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이효정(1996), “한국어 학습자 담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희승(1949), 초급 국어 문법, 박문출판사.
- 이희자(1996), “어미 및 어미 형태류의 하위 범주 문제”,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한국문화사.
- 이희자·이종희(1999),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한국문화사.
- _____ (2001), 어미·조사 학습자용 사전, 한국문화사.
- 임동훈(1998), “어미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56, 국어학회.
-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2, 국어학회.
- _____ (1975), “부정법 ‘-어’와 상태진술의 ‘-고’”, 국민대학논문집8. 국민대학.

- _____ (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장경희(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제227호, 한글학회.
- 장광군(1999), 한국어 연결 어미의 표현론, 월인.
- 장기복(2014),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고’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진(1973), “시상의 양상: 계속 완료의 생성적 고찰”, 어학연구9-2, 한국언어학회.
- 장요한(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보 연결어미의 연구 - ‘-어도’, ‘-더라도’, ‘-고도’, ‘-은들’을 중심으로”, 새국어연구 제81호.
- 전수태(1984), “진술미완의 ‘-아’와 진술완료의 ‘-고’”, 한글185, 한글학회.
- 전혜영(1988),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정덕(1986), 국어 접속어미의 의미통사론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희정(1990), “연결어미 ‘-고’, ‘-어서’에 대하여”, 연세어문학22,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고영근·이현희 교주(1986), 탑출판사).
- 주옥파(2002),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교재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교육의 현황과 장래), 월인.
- 진류연(2012), “중국인을 위한 독학용 문법 교재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소명출판.
- 진정란(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1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 진희(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고’와 ‘-어서’의 교육 방안

-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연강(1984), 현대한국어 연결 어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39, 서울대.
- _____(1990), “특수조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 _____(1998), “특수조사”,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 최길시(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최문석(2004), “의미 중심의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영환(1992), “국어교육에서 문법 지도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 2집, 국어교육학회.
- _____(1994),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체제”, 국어교육학연구 4집, 국어교육학회.
- 최재희(1985), “-고’ 접속문의 양상”, 국어국문학94, 국어국문학회.
- _____(1991), 국어 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 _____(2006),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하치근(1990), “남북한의 문장 짜임새 설정 비교 연구”, 언어와 언어교육5, 동아대학교 어학연구소.
- 함병호(2013),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어문학연구학회.
-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_____(1986), 언어학개론, 샘문화사.

허용 외(198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홍사만(1983), 국어특수조사론, 학문사.
 Scott Thornbury(2000),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高名凱(1986), 『漢語語法論』, 上海開明書店.
 黎錦熙(1924),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呂叔湘(2005),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_____(1982),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范文瀾(1958), 『中國通史簡編』(修訂本), 人民出版社.
 王 力(1944), 『中國語法理論』, 商務印書館.
 _____(2007),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丁聲樹(1961),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黃伯榮·廖序東(2002),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교재:

『가나다 KOREAN for Chinese』(2006), 가나다 한국어보습반, 베이징대학 출판사.
 『기초 한국어 1-4』(2008), 남일,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고급 한국어 1-2』(2011), 심현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신편 초·중·고급 한국어(상·하)』(2008), 최희수, 요녕민족출판사.
 『표준 한국어 교정 1-6』(2010), 장광군, 려춘연, 요녕민족출판사.
 『표준 한국어 교정 1-6』(2012), 한국외국어대학·한국어문화교육원, 상무인서관.
 『한국어 1-4』(2004), 이선한·안병호 외 4, 민족출판사.
 『한국어 1-4』(2007), 한국서울대학언어교육원, 외어교학여연구출판사.

『한국어교정 1-6』 (2008),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세계도서출판사.

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다음 사이트 전자판),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전자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전자판), 국립국어원.

『現代漢語詞典』 (2005), 呂叔湘, 商務印書館.

ABSTRACT

A study on the auxiliary combination type of '-Ko' in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 improvement
scheme for Chinese learners-

SONG LANL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hin University

Korean language is an agglutinating language unlike the Chinese, an isolated language and has characteristic of having various word endings and postpositions developed.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se word endings and the postpositions are the elements which show best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 native speaker can learn naturally the word endings and postpositions in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but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whose mother tongue is Chinese, especially the adult Korean language learners can only understand and learn the functions and syntactic limitations of the word endings and postpositions through education.

Also, in Korea language, there are various auxiliaries attached at the end of word endings. Among them, the '-Ko' and the combination type of postpositions are very various and complex grammatically. This is the

part that the Korean language learner and the teachers feel difficult in China.

Like this Korean has various and complex aspects and there are little explanation about the 'Ko' and combination type of postposition in the teaching material utilized in Chinese sites which teach the '-Ko' and combination type of postpositions which are felt difficult by the learners and the teachers. Also, the materials which introduce the meaning of the '-Ko' and combination type of postpositions only provides superficial explanation saying that they are only the meaning combination of '-Ko' and postpositions, and thus the various meanings and functions that the '-Ko' and combination type of postpositions have are not correctly perceived.

Considering this problem, this paper intends to survey the meaning of the '-Ko' and combination type of postpositions based on the meaning of the '-Ko' and search for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material technology.

In chapter 1, the study motivation, method and object of this study have been proposed. In chapter 2, by reviewing the precedent studies, the meaning and function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Ko'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were revealed. In chapter 3, examples were analyzed and the study was proceeded about the review of the semantic functions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Ko'. Examples were the basic analysis data for this part and in order to secure the correctness of this basic data, using Sejong's corpus was the principle. In chapter 4, the objects were the materials being used currently at Chinese universities

and they were analyzed and the improvement scheme of '-Ko' was searched for. In chapter 5, this study was summarized and the meaning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have been proposed.

Key words: Korean language learning by Chinese people, auxiliary combination type of '-Ko', word endings, postposition combination type, teaching material improvement scheme